

2007 한중교류의 해



中韓建交 15주년

2007 沈阳韩国周

2007年 5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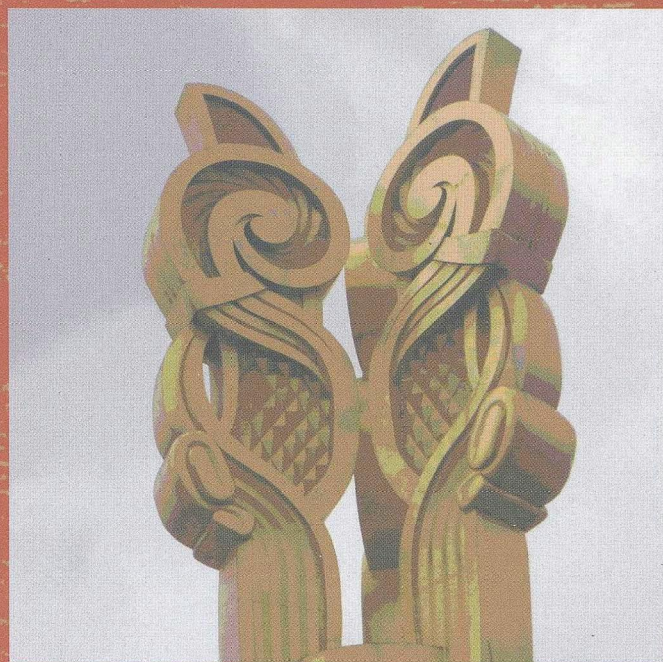
韓·中 文化交流

유적지순례 || 둔촌백일장 || 학술토론회



2007. 5.18 - 22

|| 중국 심양시 메리어트 호텔 회의실 ||



城南文化院
성남문화원

韓・中 文化交流

유적지순례 · 둔촌백일장 · 학술토론회

일시 : 2007년 5월 18일~22일 <討論會 : 5. 20(17:00)>

장소 : 중국 심양시 메리어트 호텔 회의실

성 남 문 화 원

목 차

■ 개회사

- ◎ 삼족오(三足鳥) 文化의 근원 5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 주제발표

- ◎ 삼족오(三足鳥) 문양의 시대별 변천 7
손환일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 서예문화연구소장)
- ◎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形成과 展開 37
김주미 (단국대 강사, 고고미술사 전공)
- ◎ 심양 서탑지역의 유래 57
정 무 (요녕일보사 고급기자, 심양시 세종한글학교 교수)
- ◎ 중국 태양조 69
이행준 (요녕 조선문보사 특약기자, 무순시 민족과학자협회 상무 부회장)

삼족오(三足鳥)文化의 근원



城南文化院長 韓 春 燮

한국과 중국은 5000년 동안의 교류가 확인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시대별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특히 심양은 당·송·원·명·청의 시대를 불문하고 연경으로 향하는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였다. 예로부터 심양은 대륙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이런 역사교류의 현장에서 한·중간에 합동 한시와 시조시 백일장을 열고, 학술토론회를 갖는 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한·중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시를 주고 받으며, 생각을 터 놓은 채 뜻을 주고 받았던 조상들의 문화전통을 되살린 시 짓는 백일장은 선현들의 행적을 생각하게 한다. 더구나 고조선의 본 고장인 심양에서 삼족오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중화 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심양과 요령지역에는 삼족오와 관련된 문화가 많이 있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조양원태자벽화묘삼족오태양(朝陽袁台子壁畫墓三足鳥太陽)」은 매우 유명하다.

삼학사와 연암 박지원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곳인 데, 병자호란 때 청과의 화의(和議)를 반대하고 척화(斥和)를 주장한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를 척화 삼학사, 병자 삼학사라고도 한다. 삼학사는 모두 심양성 서문(西門) 밖에서 처형당했다. 이후 조정에서는 이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정문(旌門)을 세웠으며, 홍익한에게는 충정(忠正), 오달제에게는 충렬(忠烈), 윤집에게는 충정(忠貞)이라는 시호를 주었고, 모두 영의정으로 추증했다. 그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연암 박 지원은 심양에서 묵으면서 명사들과 사귀었고, <연암일기>에는 그들과 주고받은 시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한·중관계가 이루어져 오던 심양에서 문화활동을 통하여 양국의 우호를 다지고,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조상들에게도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일이며,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모쪼록, 이런 두 나라의 문화활동을 통하여 양국의 이익을 증대하고, 민간외교의 중추적인 구심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상호 협조를 통하여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로 대신한다.

2007. 5.

여 백

삼족오(三足鳥) 문양의 시대별 변천

주제 발표 : 손환일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여 백

삼족오(三足鳥) 문양의 시대별 변천

손환일(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목 차

- I. 머리글
- II. 삼족오의 연원과 의미
- III. 삼족오 표현양식의 시대별 변천
 - 1. 삼국시대의 삼족오
 - 2. 고려시대의 삼족오
 - 3. 조선시대의 삼족오
- IV. 맺는 글

I. 머리글

삼족오(三足鳥)는 ‘세발까마귀’를 말한다. 세발까마귀는 ‘일중삼족오(日中三足鳥)’라고 하여, 해 속에 세발까마귀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해와 까마귀가 함께 나타난다. 음양의 대칭으로 ‘월중삼여(月中蟾蜍)’는 달 속에 두꺼비가 있고, ‘월중옥토(月中玉兔)’는 달 속에 토끼가 있으며, ‘월중삼여옥토(月中蟾蜍玉兔)’는 토끼와 두꺼비가 같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와 세발까마귀, 달과 두꺼비·토끼는 어떤 관계일까?

삼족오는 산해경의 설화와 관련하여 도교의 사상과 문화와 상관이 있다. 한나라 시대 무덤의 벽화인 화상석에 사후세계의 표현으로 삼족오가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한 화상석의 삼족오는 한의 문화일까? 까마귀의 발이 셋인 삼의 개념이나 사상은 민족의 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삼족오에서 그 민족의 의식세계를 볼 수 있다. 삼족오 문양은 한민족의 사상과 문화와 관련하여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민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삼족오의 출현은 동이족인 고조선의 후예들이 살던 지역인 요령·산동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일본에서 주로 보인다. 양소문화기의 토기와 은허(殷墟)인 후가장대묘(侯家莊大墓)에서 출토된 방정금수(方鼎禽獸)의 삼족오를 비롯하여, 한대(漢代)의 벽화 화상석(畫像石)에서 자주 나타난다. 동이족이 많이 살았던 지역의 한대 화상석에 현저하게 많은 수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고구려의 무덤벽화나 신라의 기와, 가야의 토기, 백제의 부장품, 고려의 기와, 불화와 불구에도 사용되어졌으며, 조선시대에는 묘비·

불구 · 민화 등에서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명에도 삼죽오와 관련된 명칭이 있다. 설화에 있어서도 소호족의 설화는 신라의 <연오(延鳥)와 세오(細鳥)>설화나, 조선시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85장의 가사는 삼죽오와 관계있는 것이다.

삼죽오는 시대에 따라 표현양식이 다르다. 까마귀가 봉황이나 천마 · 닭 · 매 등으로 표현되고, 또 다리가 꼭 셋인 삼죽오가 아니라, 두개 혹은 없는 경우도 있다. 삼죽오의 색깔도 검은색에서 금빛이나 노랑색, 또는 붉은 빛깔이나 흰색도 있다. 특히 조선시대 비석의 비두와 민화에서는 일월상만 남게 되었다.

이제까지 삼죽오에 대한 연구는 사상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고 문양의 시대에 따른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삼죽오 문양의 연원과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민족 신앙의 변천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그리고 삼죽오의 문양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나는가를 고구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표출된 문양의 변천을 정리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고구려의 벽화에 나타난 삼죽오에 대하여는 이형구선생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있지만, 그 이후에도 삼죽오의 문양은 끊임없이 나타난다. 삼죽오의 문양이 시대별로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 것은 당시 사회 · 문화현상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삼죽오는 사회 · 문화의 변화를 통하여 표출되었는데, 그 문양의 표현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문양이 다양하다. 삼죽오 표현의 다양성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디자인화 되었다. 특히 당시의 문화와도 관계가 있어서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에는 불교관계 불구나 문헌에 불교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용 되었으며, 성리학이 발달했던 조선시대에는 묘비의 비두에 사용되어졌고, 조선후기에는 민중들에게 유행되어 민화 · 문자도 · 부적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삼죽오의 고찰은 연성군 이곤(延城君 李坤 : 1462~1524)묘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판교의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철거될 예정인 많은 문화재 중에서 <연성군이곤묘비>가 있다. <연성군이곤묘비>는 연안이씨 이곤의 묘비로 비두에 삼죽오가 새겨져 있다. 연성군 이곤(1462~1524)묘비의 전면에는 삼죽오가, 뒷면에는 월계수가 조각되어있다. 본고에서는 시대적으로 표출된 삼죽오문양의 변천과 <연성군묘비삼죽오>의 위상과 가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성군 이곤(1462~1524)의 묘비는 사후 35년 뒤 1559년에 손자 이숙(李倣)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연성군의 묘비는 비두와 비신이 함께 조각된 통비석으로 비두의 조각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삼죽오의 문양은 한민족의 사상 · 문화와 관련하여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삼죽오는 조선시대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삼죽오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짧은 이 글은 미술사를 전공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삼죽오의 사상보다는 문양의 소재를 찾아 역사적으로 표현된 양식의 정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원래 본고는 2004년 8월 평양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루어졌고, 2005년 2월에야 북경대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그 후 『성남문화연구』 제13호, 『한국사상과 문화』 제33집에서 발표한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II. 삼족오(三足鳥)의 연원(淵源)과 의미(意味)

세발까마귀인 삼족오(三足鳥)는 ‘일중삼족오(日中三足鳥)’로 해 속에 세발 까마귀가 있는 문양인데, ‘금오(金鳥)’ · ‘준(駿)’ · ‘준오(駿鳥)’ · ‘일오(日鳥)’ · ‘흑조(黑鳥)’ · ‘청오(靑鳥)’ 등의 명칭이 있다. 이들 삼족오에 관련된 명칭은 태양과 관계되어 있으며 태양신의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상징이다. 『한어대사전』에는 ‘삼족오’를 ‘삼족(三足)’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삼족금계(三足金雞)’란 말이 있는데, 이는 전설 중의 신계(神雞)이다. 『신이경(神異經) · 동황경(東荒經)』에는 “부상(扶桑)에 옥계(玉雞)가 있고, 옥계가 울면 금계(金雞)가 온다. 금계가 울면 석계(石雞)가 울고, 석계가 울면 천하의 닭이 모두 온다.”라고 하였다. 여기의 삼족금계도 삼족오와 같은 것으로 삼족오는 항상 태양신과 관계하는 상징이다.

천신(天神)의 매개로 새가 등장하고 삼족오가 태양으로, 달은 계수나무와 두꺼비가 각각 존재하지만 하늘세계에도 각각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기도 한다.¹⁾ 신룡하선생은 「고조선 문명권의 삼족오태양상징과 조양원태자벽화묘삼족오태양(朝陽袁台子壁畵墓三足鳥太陽)」에서 “고조선족과 고조선문명권에 포함된 부족 및 원민족들은 ‘태양숭배’ · ‘하느님숭배’ · ‘천제숭배’ 등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이 여러 유적에서 증명된다. 그들은 스스로를 ‘태양신의 자손’ · ‘하느님의 자손’ · ‘천손(天孫)’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태양’ · ‘하늘’ · ‘하느님’ 들과 자기들을 연결시켜주는 동물매체를 새라고 생각하여 ‘숫대문화’, ‘소도(蘇塗)문화’를 공통으로 형성하여 갖고 있다. ‘태양’과 ‘새’를 결합하여 태양신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할 때는 ‘삼족오’로 상징화하여 표현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삼족오는 태양신과 조령신이 연계되어 나타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조선으로부터 나온 북부여 · 동부여 · 고구려 · 신라 · 백제 · 가야 등에 나타나는 일월 숭배사상에는 조령신의 자취가 남아 있다. 한민족의 일월숭배사상은 흔히 일월을 상징하는 삼족오(三足鳥)와 옥토 · 두꺼비로 나타나며, 이들은 각기 봉황과 용으로 대치되기도 한다. 이렇게 삼족오, 즉 봉황토텐은 동이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봉황이 동방군자의 나라에서 나왔다는 것도 동이족이 봉황토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이다. 봉황은 “동방군자의 나라에서 나와서 사해 밖을 날아 곤륜산(崑崙山)을 지나 지주의 물을 마시고, 약수에 깃을 씻고, 저녁에 풍혈(風穴)에서 잔다. 이 새가 나타나면 천하가 크게 안녕하였다”고 한다. 한유(韓愈)의 <송하견서(送何堅序)>에서는 “내가 듣기로 새 중에 봉(鳳)이라는 것이 있는데, 항상 도(道)가 있는 나라에서 출현 한다”고 하였고, 임금을 상징하는 방법으로 ‘용’과 ‘봉’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푸쑤우니엔(傅斯年)은 「이하동서설(夷夏東西說)」에서 “중국 고대의 국가와 문화의 성립은 동방으로부터 들어온 동이족들과 서방으로부터 들어온 하족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와 동이(東夷)가 처음에는 교승하다가 최후에 하(夏)가 동이를 극복 동화시켜 나간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夏) · 은(殷) · 주(周) 삼국 중에서 하와 주는 하족이 세운 나라이고 은(殷 : 商)은 은족과 동이

1) 허홍식, 『한국 신령의 고향을 찾아서』, (서울 집문당, 2006), 25쪽.

족이 연합하여 세운 고대국가”라고 하였다. 그는 “이시기의 대표적인 동이족으로서 치우(蚩尤) · 대호(大昊) · 소호(小昊) 등을 들었다. 황제와 치우의 대결투쟁이 처음의 큰 대전이었고, 이어서 하족과 동이족의 견제와 갈등이 계속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사실의 일편이 소호족의 설화와 관련이 있다.

삼족오의 연원이 고조선의 후예들이 살았던 산둥반도 소호족(少昊族 : 기원전 20세기)의 설화에 남아 있는데, 『회남자』와 『산해경』에 의한 소호족 설화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태양이 뜬 곳은 산둥(山東)지방으로부터 바다 건너 동쪽 양곡(陽谷)이란 곳이다. 양곡에는 부상(扶桑)나무가 있다. 양곡의 통치자는 천제(天帝)인 제준(帝俊)이고 황후는 회화(羲和)로 사이에서 열 명의 아들 태양을 두었다. 회화는 열 개의 태양을 번갈아 하나씩 이어서 떠오르게 하여 세상을 알맞게 환하고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열 개의 태양들은 모두 까마귀를 싣고 있었는데, 모두 세발 까마귀(三足鳥)들이었다. 『산해경』 대황동경에는 ‘온원곡(溫源谷)이라는 계곡이 있고, 탕곡 위에 부목이 있다. 하나의 태양이 도달하면 다른 태양이 나오는데 모두 까마귀가 머리에 이고 있다’고 하였다. 열 개의 태양들은 번갈아 뜨고 지는 똑같은 일의 반복에 싫증을 느껴서, 부모 몰래 동시에 떠올라 한꺼번에 열 배의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세상은 열배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너무 뜨거워서 동식물이 타 죽어 갔다. 요임금은 놀라 무당을 부르는 등 백방으로 대책을 세워보았으나 효력이 없었다. 요임금은 결국 바다 건너 동쪽 천제(天帝)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천제(天帝) 제준(帝俊)은 열 명의 아들 태양들에게 훈계했으나 아들들은 아버지 제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제준은 활을 매우 잘 쏘는 예(羿)를 내려 보내 요임금을 도와서 열 명의 아들들을 징벌하도록 하였다. 예(羿)가 요임금을 도우러 내려와 보니 열 개 태양의 장난으로 만물이 타 죽어가고 있었다. 예(羿)는 분개하여 태양의 심장을 겨누어 활을 쏘았다. 태양은 예(羿)의 화살에 명중되어 땅에 떨어졌는데, 달려가 보니 화살에 심장이 꿰뚫린 태양들은 황금빛의 태양신인 ‘삼족오’들이었다. 요임금은 태양이 하나는 남아 있어야 알맞게 세상을 따뜻이 비출 터인데, 예(羿)가 열 개 태양을 모두 쏘아 떨어뜨릴까 염려되었다. 그래서 요임금은 예의 화살 통에서 화살 한 개를 뽑아 감춰버렸다. 이 때문에 예(羿)는 아홉 개 태양만을 떨어뜨리고 한 개 태양은 남게 되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예(羿)는 고국의 천제에게로 돌아가려고 사실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천제 제준은 지나친 징벌에 분노하여 예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예의 화살에 죽은 아홉 개 태양은 제준의 아홉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제준은 예(羿)가 고국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羿)는 할 수 없이 지상에 남아 요임금을 도와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들을 퇴치하였다. 사람들은 기뻐서 요임금을 천자로 추대했는데, 이는 예(羿)의 도움에 의거한 것이었다.

예(羿)는 그 후에도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 각지를 유랑하다가 수신(水神) 하백(河伯)의 아내인 낙빈(洛嬪)과 사랑에 빠졌다. 그것을 질투한 예(羿)의 아내 항아(姮娥)는 불사약을 갖고 혼자 달로 올라가 버리고 예만 남게 되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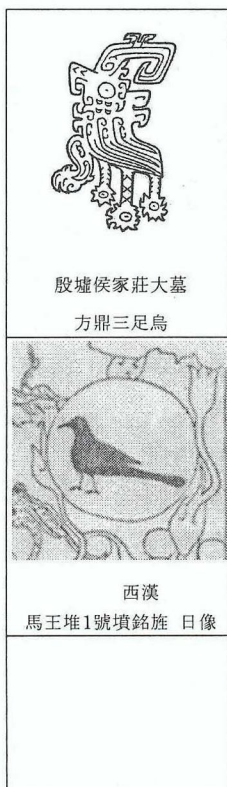
여기서 태양을 숭배하는 동이족과 삼족오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신용하선생은 “소호족은 문자 이전의 시대에 자기 스스로 자기 부족을 아사달로 표시하였으며, 자기의 기원을 바다 건너 동쪽 해 돋는 나라라고 전설을 만들었다. 후에 만든 ‘호(昊)’는 본디 ‘고(皐)’자로써 ‘백족(白族)’ · ‘박달족’ · ‘환한 태양족’이라는 의미의 명칭을

2) 『四庫全書』初編 史部 「焦氏易林」 卷第三, “其家漢天文志日中有三足鳥(兪下軌上)履十鳥俱飛羿得九雌雄雖得全且驚不危堯時十日並出草木焦枯命羿射其九日九鳥皆死墮其羽翼留其一日…”, 『楚辭·天問』王逸注 “堯命羿仰射十日, 中其九日, 日中九鳥皆死, 墮其羽翼 則三足鳥當指日之精. 又或傳爲駕日車者…”,

가진 부족이었다. 그들이 팽이형토기에 ‘아사달’ 문양을 새겨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기원이 고조선과 연결되어있고, 그들의 문화가 고조선 문명권의 서쪽 변방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소호족의 ‘삼족오태양’ 전설은 후에 소호가 중국에 동화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삼족오태양’ 그 자체는 고조선문명권의 상징의 하나이며 전설”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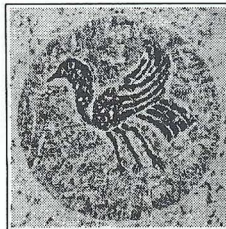
소호족의 이 전설은 구이(九夷)라는 동이족(東夷族)과 하족(夏族)이 대결했던 고대 초기에 하족이 동이족을 무찔러 나라를 보전한 설화라고 한다. 구이(九夷)는 동이(東夷)를 말하는 것으로 구이(九夷)가 아홉 개의 삼족오로 묘사되었다. 즉 이 전설을 통하여 보면 삼족오는 동이족을 말하는 것으로 아홉 개의 해를 떨어뜨린 것은 하족이 동이족을 무찌른 것에 비유된다. 유사한 예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85장에서 조선 태조 이성계의 설화가 있다. “태조 이성계가 젊을 때 정안옹주가 담장에 까마귀 다섯 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까마귀들을 잡아 달라고 하자 한 화살로 다섯 까마귀를 쏘아 맞추어 떨어뜨렸다. 이 광경을 본 정안옹주가 기이하다고 말하니 태조는 ‘삼가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는 다섯 까마귀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지만 고려의 다섯 충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호족 설화의 구이(九夷)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오아(烏鴉)는 대비되는 것으로 소호족의 설화와 관계가 깊다. 즉 삼족오는 태양을, 태양은 천(天)을, 천은 왕(王)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삼족오는 태양삼신(太陽三神)의 상징으로 삼족(三足)은 삼신(三神)을 표현한 것이다. 삼이란 가장 안정된 첫째 소수이고, 삼신은 창조와 생성의 기초이다.³⁾ 박은식(朴殷植) 선생은 『박은식전서』에서 “고조선은 국교가 ‘삼신교(三神敎)’이다. 삼신 즉 태양삼신은 환인(桓因) · 환웅(桓雄) · 단군(檀君)을 가리킨 것이다…고조선의 종교는 삼신교였으며, 이 삼신교는 부여 · 고구려 · 백제 · 고려까지도 계승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조선의 후예들은 삼신은 생명을 주고 가호하는 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기를 낳으면 삼신에게 제사하는 의식과 관습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 현재도 이런 관습은 민중에 흔하게 남아있다. 그렇다면 삼신은 무엇인가? 삼신에 대하여 유동식선생의 「불교사찰(佛敎寺刹)의 삼성각(三聖閣)과 삼신신앙(三神信仰)에 대하여」에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삼신(三神)은 ‘칠성(七星)’ · ‘산신(山神)’ · ‘독성(獨聖)’이다. 삼신은 삼성각(三聖閣)에 모시는데 모든 사찰에 대웅전과 함께 삼성각이 있다. 칠성은 수복연명과 자식을 낳게 해준다. 도교의 칠성신앙이 불교화되어 <불설북두칠성연명경(佛說北斗七星延命經)>이 형성 되었다. 그래서 칠성탱화를 보면 북두칠성신을 약사칠불(藥師七佛)의 수적(垂迹)이라 하여 칠성여래불(七星如來佛)로 그렸고, 북극성에 해당하는 금륜보계치성광여래불(金輪寶界熾盛光如來佛)을 가운데 모시고, 그 좌우에는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도교의 옥황상제와 환인제석(桓因帝釋)을 동일시 한 것은 칠성은 환인이고, 환인은 도교의 최고신으로 하느님이다. 산신은 한국 토착신앙의 중심적인 신위(神位)이다. 산신은 수명을 좌우하는 칠성과 달리 천신의 아들이요, 수호신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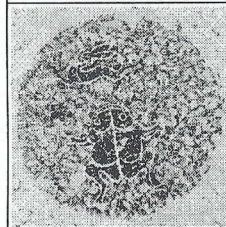
3) 허홍식, 『한국 신령의 고향을 찾아서』 (서울, 집문당, 2006),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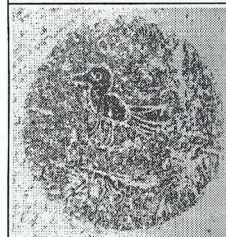
西漢 河南 日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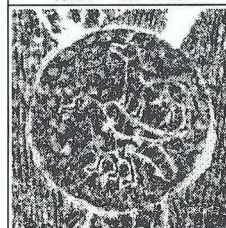
東漢 美山 西王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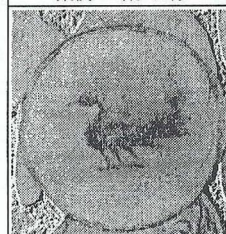
東漢 山東 月像



東漢 山東 日像



東漢 山東 日像



東漢 陝西 日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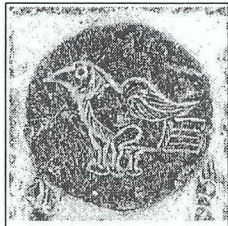
일상생활과 생산을 주관하는 기능신이다. 칠성은 환인천왕(桓因天王), 산신은 단군왕검, 독성은 환웅을 말한다. 천제의 아들인 환웅은 태백산에, 아들 단군은 아사달에 강림하였다”

삼성각은 삼신각 · 칠성각 · 산신각 · 독성각 등으로 명칭이 다양하다. 삼성각은 불교와 관계없는 우리 토속신앙이다. 유동식선생은 또 삼성(三聖)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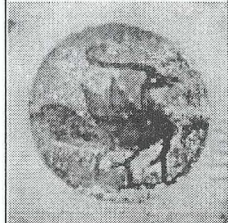
“하나, 도교적(道敎的) 칠성신(七星神), 무교적(巫敎的) 산신(山神), 불교적(佛敎的)독성(獨聖)님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무(巫) · 불(佛) · 선(仙) 통합신앙을 상징한 것이다. 둘째는, 환인칠성(桓因七星), 환웅독성(桓雄獨聖), 단군삼신(檀君三神)의 이해다. 이는 한국의 뿌리 깊은 삼신신앙이 불교를 수용하며 불교와 융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황해도(黃海道) 구월산(九月山) 삼성사(三聖寺)와 화계사(華溪寺) 삼성암(三聖庵)에는 불상이 없이 칠성(七星) · 산신(山神) · 독성(獨聖) 등 삼신(三神)만이 모셔져 있다. 신당의 북벽에는 환웅천왕(桓雄天王), 동벽에는 환인천왕(桓因天王), 서벽에는 단군천왕(檀君天王)을 모셨다. 삼성각에 모신 삼신은 삼성사에 모셨다는 한국 고래의 토착신앙이 계승된 것이요, 불교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삼성은 무교신으로서의 산신과 도교신으로서의 칠성, 그리고 신 불교로서의 독성이라고 볼 때 이것은 무 · 불 · 선 종교혼합의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삼성각과 삼신신앙은 불교적 전통과는 다른 것이며, 한국전통의 신앙적 요소를 표현한 것임에 틀림없는 듯하다”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은 <광개토왕능비>에서 천제의 후손임을 말하였고, 박혁거세와 김수로왕도 천신으로부터 보내어진 천손의 천군이며 무조(巫祖)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천손인 이들은 산신으로서 단군왕검(檀君王儉)과 같은 자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무교적 산신이요, 단군산신이다. 삼신신앙은 고구려의 지배적인 신앙이 되어 왔다가 불교가 수용되어 국교로 되면서 민간신앙으로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삼족오는 태양삼신이고, 태양삼신은 환인(桓因) · 환웅(桓雄) · 단군(檀君)으로 하늘로부터 보내져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천손이나 천군이 무조로서의 관계가 여기에 있다. 그 후 불교의 수용으로 삼신은 ‘칠성’ · ‘산신’ · ‘독성’으로 삼성각에 모셔졌다. 그래서 모든 사찰에는 대웅전과 함께 삼성각이 있게 되었고, 도교적 칠성신, 무교적 산신, 불교적 독성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무 · 불 · 선 통합신앙을 상징한 것이다. 환인칠성 · 환웅독성 · 단군산신의 경우도 한국의 뿌리 깊은 삼신신앙이 불교를 수용하여, 불교와 융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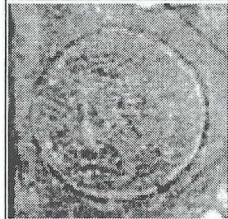
고대 우리민족은 조령신을 믿었고, 새를 신의 사자로 귀히 여겼다. 그 중에서도 삼족오는 태양에 살면서 태양의 불을 먹고 사는 태양의 전령으로 전설에 나타나는데, 태양은 바로 ‘하늘’ 혹은 ‘밝음’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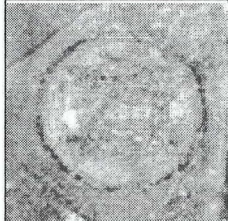
東漢 義和 日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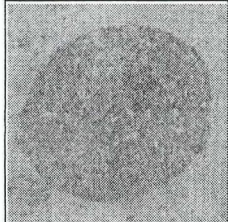
고구려 각저총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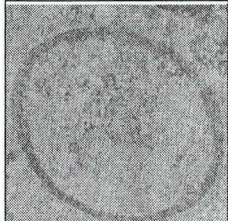
고구려 장천1호분 일상



고구려 장천1호분 월상



고구려 약수리무덤 일상



고구려 약수리무덤 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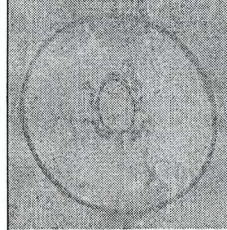
하는 것이다. 동이족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임을 자처하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삼족오를 숭상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었다. 『신단실기(神檀實記)』나 『환단고기(桓檀古記)』에 “세 발 달린 까마귀가 뜰 안으로 날아 들어왔는데, 그 날개의 넓이가 석자다(八世檀君于西翰...甲寅七年 三足鳥飛入苑中 其翼廣三尺)”라고 하는 기사에서 삼족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단군기(檀君記)』에 “환인(桓因) · 환웅(桓雄) · 단군(檀君) 삼신(三神)이 나라를 열고, 처음 공덕이 정하여 졌으며, 항상 외어 전하여 잊지 않았다(桓因桓雄檀君 三神之開倉 肇定之功德 常傳誦而不忘)”고 하였다.

왕충(王充)의 『논형(論衡) · 설일(設日)』이나 『산해경(山海經)』곽주(郭注)에도 “해 안에 삼족오가 있다(日中有三足鳥)”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족오의 사상은 매우 오래된 이념이 내포된 문양으로 보인다. 동이족은 『중국대백과전서』에 “이(夷)는 중국 동북지방 특히 발해연안에 거주하였고 그 분포가 강회지방(江淮地方 : 양자강 유역)에 이른다. 이들은 하(夏) · 상(商 : 殷) · 주(周)의 삼대 때는 ‘이(夷)’ 혹은 ‘구이(九夷)’라 하고, 서주(西周) 초 성왕(成王) 때는 한 동안 이(夷)가 서로 연합하였으며, 그들 종족의 본원지는 동북지방에 있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삼족오 신앙에 대하여 중국의 쑨즈오윈(孫作雲)선생은 『중국학보(中國學報)』 제1권에서 “해 가운데 까마귀가 있는데 태양이 운행하는 것은 까마귀가 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까마귀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새였다. 이는 새를 토tem으로 숭배하는 사람들과 태양을 토tem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의 사상으로 동이족이 새와 해를 토tem으로 하였다”라고 하여 동이족이 새와 태양을 토tem으로 하고 있는데 연유한다고 지적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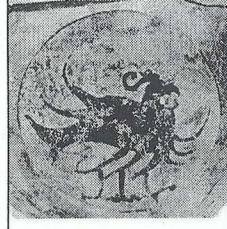
우실하선생은 『전통문화의 구성원리』에서 한자문화권의 기층문화는 ① 북방 수렵문화 ② 남방 농경문화 ③ 수렵문화와 농경문화가 융합한 문화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층문화를 배경으로 태양신 · 조령신(鳥靈神) 숭배의 샤머니즘인 삼재론사상(三災論思想)과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이 발생하였다. 북방문화의 전통이 강한 동이족이 남하하면서 세운 은나라에서는 B.C. 5000년경에 북상한 농경문화를 수용하여 발달한 농경문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방 수렵문화의 상징인 삼족오가 오랫동안 지속하였다. 이는 갑골점 등 수렵문화에서 5000여년전부터 지속하여 왔던, 사냥한 짐승 뼈를 이용한 점술인 복골(骨卜)이 성행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렵문화를 기층으로 형성된 은의 문화가 농경문화와의 접촉이 이루어저도 수렵문화의 상징성이 중심이 되어 농경문화의 전통들을 수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덕흥리무덤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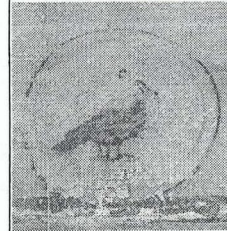
고구려 덕흥리무덤 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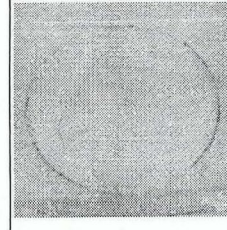
고구려 쌍영총 일상



고구려 쌍영총 월상



고구려 덕화리1호분 일상



고구려 덕화리1호분 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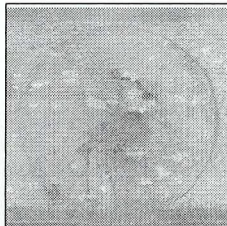
쑤쑤오윈(孫作雲)선생은 『중국학보』 제1권에서 삼족에 대하여 “범조와는 달리 신조(神鳥)로서 삼족을 달아 구별하였고 그 발생 시기는 씨족사회말기 또는 하조봉건국초(夏朝封建國初)로 보았으며 산동반도 일대에서 발생하였다”한다. 또 저우타오(周到)선생은 “태양의 흑점”으로 보았고, 이병도선생은 “음양사상(陰陽思想)”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세발 까마귀는 원래 동이족이 숭상하던 신성한 새였으며, 고대인들은 세 발 달린 까마귀가 태양 속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중국신화에서는 까마귀를 “현조(玄鳥)”로 북방을 지키는 새로 인식한다. 바로 오행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북방을 검정색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북방은 오행(五行)에서 수(水)를 차지하고 있고, 이수(水)의 의미는 “탄생과 시작”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신의 전령인 성스런 신물(神物)에 왜 발이 세 개가 달린 것일까? 한(漢)나라 때의 책인 《춘추원명포(春秋元命包)》는 태양이 양(陽)이고, 삼(三)이 양수(陽數)이므로 태양에 사는 까마귀의 발이 세 개라고 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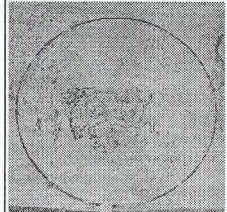
그러나 삼의 사상은 우리 고유의 삼사상(三思想)에 유래한다고 보여 진다. 바로 삼신을 일컫는 것으로 완성의 숫자로 삼(三)을 숭상한 것이다. 천(天) · 지(地) · 인(人)은 만물의 완성체를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인식하여, 삼신사상이 유래 되었다. 『초사보주(楚辭補注)』에 “태양이 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속에 세발이 있게 되었다. 해는 만물을 생성하는 핵심이다(陽 成於三 故日中有三足者 陽精也)”라고 보았다. 이는 우리 고유의 삼사상(三思想)과도 관계가 있다. 곧 삼 사상은 삼신을 일컫는 것이며, 완성의 숫자로 ‘삼(三)’을 숭상한 것이다. 천(天) · 지(地) · 인(人)이라는 만물의 완성체를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인식하여, 삼신사상이 유래 되었다. ‘삼(三)’에 대한 개념이 우리민족에게는 오랜 역사와 심오한 의미가 있어 매우 특별하다. 즉 ‘삼(三)’은 우리민족의 정서인 동시에 신앙이다. 이런 의미와 사고가 문양으로 나타나 현재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주장현선생의 삼(三)에 관한 열변을 참고하여보면 삼의 사상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중국에서도 삼(三)이 두루 쓰인다. <주자가례>가 강화되면서 귀착된 삼일장(三日葬) · 삼배(三盃) · 삼색실과(三色實果) · 삼탕(三蕩) 따위는 중국 영향이다. 삼황(三皇) · 삼도(三道) · 삼족(三族) · 삼계(三戒)도 전래 품이다.

우리에게 ‘3번’하던 고시레처럼 극히 원초적인 수 관념들도 있다. 신화시대 또는 신화의 전승체인 무속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3의 원초성이 보인다. 단군신화의 천부인 3개, 무리 3천명, 풍백 · 우사 · 운사, 삼칠일 간(21일)의 금기, 환인 · 환웅 · 단군의 ‘3대(三代)’로 이루어지는 ‘삼신(三神)’체계는 고대 서사문학의 원형이다. 해모수 · 동명왕 · 유리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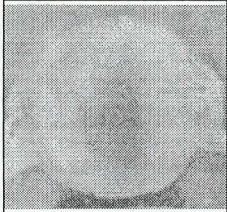
고구려 덕화리2호분 일상

고구려 덕화리2호분
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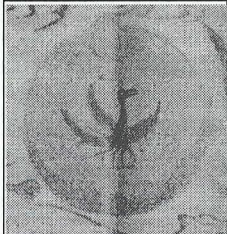
고구려 오편분4호 일상



고구려 오편분4호 월상



고구려 오편분4호 월상



고구려 오편분4호 일상

이어진 부여족의 '3대'도 마찬가지다.

구월산에 '삼신(三神)'을 제사하는 '삼성사(三聖祠)'가 있고, 곳곳에 '삼신산(三神山)'이 퍼져 있는 것도 신화시대의 산물이다. 민족의 탄생을 장식하던 삼신은 그대로 민족 구성원의 개개인의 탄생으로 이어져서 아기를 낳는 안방의 신이 되었다. '삼신할머니'가 그것이다. '삼줄(땃줄)'을 끊고 나오면, 밥과 국 '세 그릇'을 바치며 '삼칠일'간의 금기를 행한다. 아기가 클 때까지 '삼신'이 도와준다고 믿어 '삼신바가지' · '삼신주머니' 따위로 모신다. 3의 원초적 뿌리를 더 파고 들어가면 제주도신화의 '삼명두'를 만날 수 있다. 삼명두는 제주도 무당의 조상신격이자 3대 무구(巫具)인 '요령 · 신칼 · 산판'을 일컫는다. '세 쌍둥이' · '삼형제'가 양반 '삼천'을 죽인 뒤, 천 · 지 · 인을 관장하는 신격이 되어 제주도 무당의 원조가 된다는 '삼명두 이야기'는 3의 원형질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민중적 세계관을 관찰시키는 것으로도 사용했다. '삼재수'가 그것이다. 오늘날은 개인적 액막이 정도로만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큰 삼재'라 하여 불 · 물 · 바람의 재액을 일컬었고, '작은 삼재'로는 역병 · 굶주림 · 병난 따위를 꼽았다.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를 삼재로 본 것이다. '삼재'를 당한 사람은 '세 마리'의 매를 그려 문설주에 붙였다. 조선후기의 역동적인 삼두일족옹(三頭一足鷹) 부적들이 그것이다.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가렴주구로 시달리던 민중들에게 세 개의 머리는 힘의 상징, 그대로였다.

민중의 향거를 담은 황해도 장산곶의 장수매설화도 같은 의미다.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3을 쓰고 있다. 내기를 해도 '삼세번'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의사봉도 '3번'을 두드려야 가결이 선포된다. 3.1독립선언문에 '33인'이 등장하고, 결의대회도 '만세삼창'으로 끝낸다. 한글 창제원리도 하늘 · 땅 · 사람 셋을 중심으로 삼았고, 간장 · 고추장 · 된장의 '3장'은 민족음식문화의 기초를 이룬다. 같은 노리개를 만들어도 '이작'이나 '오작'이 아니라 '삼작' 노리개로 만든다. 이렇듯 우리 생활 곳곳에 3이 깃들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족의 집단적 무의식에 3이란 숫자가 깊게 각인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3은 저 혼자 쓰이는 것만은 아니다. 3이 3번 반복돼 9를 이루면서 강한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서말 서되 서홉으로 쌀을 준비하는 마을 곳에서는 3의 의미가 한결 강해진다. 아홉수라고 하여 29살에 결혼을 피한다는 관념 속에는 이미 '삼재'라고 하는 액이 3번 반복된 마지막 해라는 계산법이 숨겨져 있다. 삼현육각 · 삼정승 육판서처럼 3과 3의 배수인 6이 결합되어 강조되기도 한다. 3은 양수(陽數)이고 길한 숫자인 탓으로 양수가 겹쳐진 삼월 삼짇날(3월 3일) 따위를 길일로 친 것도 반복의 원리다"

Ⅲ. 삼족오 표현양식의 시대별 변천



고구려 오평분5호 일상



고구려 오평분5호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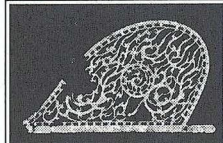
고구려 오평분5호 월상



고구려 사신총 일상



고구려 사신총 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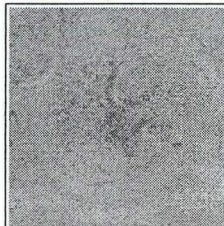
고구려 진파리7호분
금동관모 삼족오고구려 진파리7호분
금동관모 삼족오

태양신이나 조령신 숭배의 흔적은 고대 자료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즉 ‘十’·‘卍’·‘井’·‘卍’ 등의 기호는 태양을 상징하는 기호로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기호들로 볼 수 있다. ‘卍’은 본디 ‘十’과 같은 것으로 소용돌이의 변형에서 온 것이며, ‘井’은 ‘十’의 넓은 폭의 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호들은 인간의 모습이나 새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의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물이며 상징물이다. 한반도와 중국의 대륙에서 발견되는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의 토기들에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가야나 신라의 토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十’나 ‘井’의 기호,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된 호우명은 장수왕 3년에 광개토왕릉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를 기념하여 열 번째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 그릇이다. <호우명>에도 있는 ‘井’의 기호는 태양을 상징하는 기호이다. 이런 문양들은 고려시대의 기와나 토기에도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의 떡살에서도 사용되었다. 다만 떡살에 표현된 문양들은 태양의 모습으로 변형된 문양들이 많다.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조선시대 떡살에 사용하게 된 예와, 삼족오가 조선시대 민화나 부적에 변형되어 사용하게 된 것은 그만큼 대중화된 태양숭배 신앙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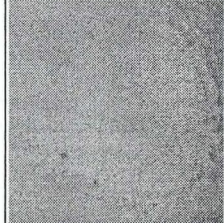
삼족오는 은(殷)의 유물과 기원전 2세기 서한(西漢) 초기 유적인 호남성장사마왕퇴일호고분(湖南省長沙馬王堆一號古墳)에서 출토된 명징(銘旌)에 그려져 있다. 그리고 동한(東漢)의 여러 화상석에서도 삼족오를 확인 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삼신신앙과 불교와 신선사상이 나타나 있다. 특히 초기에는 삼족오와 관련한 삼신신앙과 신선세계를 표현하였다. 삼신신앙은 우리 민족 고유 신앙이고, 신선세계는 도교사상으로 동이계의 신화인 『산해경』과 관련이 깊다. 『산해경』의 신화에서 고구려 문화를 읽을 수 있으며, 도교적인 신화는 고구려 벽화가 조성된 시기에도 멀지 않다. 『산해경』에 나타난 동이계 신화와 고구려 신화의 관계를 통해 고구려 문화의 성격을 조명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변방의 고구려 문화를 중원의 한족문화와 비교하여 보면 그 기원과 특징이 다를 수 있다.

상고시대 동이족은 중화족을 압도하여 동아시아의 맹주의 역할을 하였으나 후에 한족과의 경쟁에 밀리게 되고 중국사상의 영향으로 ‘한족을 핍박하던 동이(東夷)의 상징’인 까마귀에 대한 한족의 시각이 우리 문화로 스며들게 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타나는 삼족오, 가야와 신라의 토기, 그리고 까마귀의 모습을 한 솟대, 정월 대보름의 까마귀제 등에서 신조(神鳥)로서 까마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고구려 벽화에는 풍속화·초상화·사신도 등과 함께 성신도(星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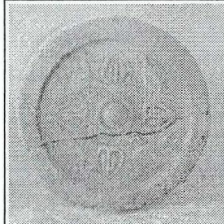
고구려 강서중무덤 일상



고구려 강서중무덤 월상

고구려 운산용호동
금동봉황장식신라 서봉총
금동봉황장식

백제 금동대향로



발해 봉황문수막새



통일신라 봉황문암막새

圖)가 많다. 성신도에는 해와 달, 별자리 등이 그려져 있고, 해 속에는 까마귀가 그려져 있다. 이 까마귀가 삼족오이다. 해 속의 까마귀는 달 속의 금와(金蛙)와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이 까마귀는 검은 색으로 되어 있고 다리가 셋이다. 이 세 발 달린 까마귀는 해의 상징으로 양(陽)의 뜻이고, 개구리로 상징되는 달은 음(陰)의 뜻이다. 즉, 음양론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고구려의 벽화에는 해와 달을 중심으로 북극성을 머리로 삼아 북두칠성과 견우직녀 등 수많은 별자리는 지상과 연관된 사자의 전생이며 돌아갈 사후의 세계이다. 천정은 천상의 세계로 저승이라면 측면은 이승이다.⁴⁾ 세발까마귀인 삼족오는 동이족의 문화로 동이족을 따라 나타난다.

삼족오가 가장 이르게 보이는 것은 앙소문화기의 토기와 은허인 후가장대묘에서 출토된 <방정금수문(方鼎禽獸紋)>의 삼족오가 있다. <방정금수문(方鼎禽獸紋)>은 삼정(三鼎)의 청동기에 형상화하여 그려진 삼족오다. 동북대륙의 주인이던 은(殷)나라는 동이족이 하족을 압도하여 동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동이족의 사상은 남쪽에서 올라온 하족에게 영향을 주었다.

기원전 2세기 서한 초기 유적인 <호남성장사마왕퇴일호고분명정(好男省長沙馬王堆一號古墳銘旌)>이 있다. 여기에는 해속에 까마귀가 있으며 다리가 두 개이다. 달 속에는 두꺼비가 있는데 보름달이 아니라 초승달인 점이 다른 그림과 다르다. 비록 다리가 두 개이지만 삼족오를 나타내는 것이다. 서한시대의 <하남화상석>에는 일중삼족오가 있다.

동한시대의 <서왕모伏羲女媧畫像(西王母伏羲女媧畫像 : 89~189년)>⁵⁾에는 해가 없으며 새만 있다. <산동화상석월상(山東畫像石月像)>에는 두꺼비와 토기가 함께 달 속에 들어 있다. 특히 <일월상(日月像 : 25~88년)>⁶⁾ · <산동화상석일상>과 <산동안구한묘중실봉정석화상(山東安丘漢墓中室奉頂石畫像)>⁷⁾ 등에는 삼족오와 개가 같이 있다. <섬서화상석(陝西畫像石)>에는 삼족오가 봉황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추산화상석(推山畫像石)>의 삼족오는 그대로 까마귀를 넣었다. <효당산석사격량저면화상(孝堂山石祠隔梁底面畫像)>은 까마귀, 두꺼비와 토기를 거꾸로 넣은 것이 다른 화상석과 다른 점이다. <희화봉일화상(羲和捧日畫像 : 149~189년)>⁸⁾ · <산동화상석일월상(山東畫像石日月像)> 등은 삼족오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한의 화상

4) 허흥식, 『한국 신령의 고향을 찾아서』 (서울, 집문당, 2006), 37쪽.

5) 『中國畫像石全集2』 (中國, 山東美術出版社, 2000), 32쪽.

6) 『中國畫像石全集2』 (中國, 山東美術出版社, 2000), 137쪽.

7) 『中國畫像石全集1』 (中國, 山東美術出版社, 2000), 112쪽.

8) 『中國畫像石全集1』 (中國, 山東美術出版社, 2000), 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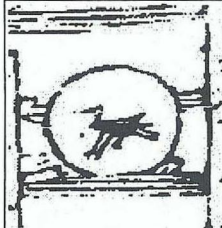
통일신라 섬토문수막새



통일신라 쌍조문수막새



고려 대장경
화엄제43권변상



고려 대장경
화엄제50권변상



고려 대장경
화엄제56권변상

석에 삼족오가 상당히 많이 사용된 것은 동이족의 문화 수용과 관계가 있다.

해 속에 삼족오와 개, 달 속에 두꺼비와 토끼는 종족의 숭배하던 신앙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삼족오 신앙은 주로 동이족이 거주하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요령성 <조양원태자벽화묘(朝陽袁台子壁畫墓)>에서 삼족오와 곰의 그림이 발견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삼족오는 중국 하족(夏族)의 문화일까? 북위의 <석관(石棺)>이나 <오안자조상(吳晏子造像)>에도 일중삼족오와 월중육토가 있긴 하다.⁹⁾ 그러나 중원에서는 위진남북조를 지나 수당시대가 되면 산둥과 요령지역을 제외하고는 점차 소멸되는데, 이것은 삼족오 문화를 일시적으로 하족이 수용은 하였지만 원래 하족의 문화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대부터 육조시대까지 나타났던 삼족오는 수·당 시대부터 더 이상 중원문화에서는 민멸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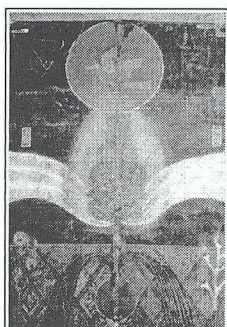
그러나 동이족의 문화이면서, 동북의 변방문화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여주는 삼족오는 현재에도 <천태종가사수장>·<정월대보름까마귀제>·<금오산> 등 여러 유물과 민속·설화·지명 등에서 신조로서의 까마귀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삼족오는 태양에 살면서 태양의 불을 먹고 사는 태양의 전령으로 전설에 나타나는데, 태양은 바로 하늘 혹은 밝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환(桓)이고, 배달(밝달)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天孫)임을 자처하던 고대의 조상들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삼족오를 숭상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었다.

삼족오의 문양은 시대에 따라 토기·벽화·기와·장의기구·불화·불구·민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신앙과 관련된 생활주변에 사용되었다. 문양도 봉황이나 천마·닭·꿩·까치·참새 등 시대별로 표현양식이 다양하다. 시대별로 표현양식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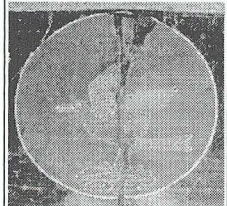
1. 삼국시대의 삼족오

고구려 무덤벽화의 천정에는 천상계가, 벽에는 지상세계가 구현되었다. 천상계에는 신의 여러 가족이 배열되었고, 지상에도 피장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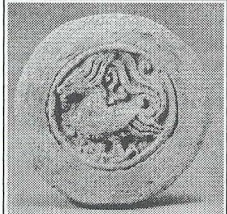
9) 『中國畫像石全集8』(中國, 山東美術出版社, 2000), 22,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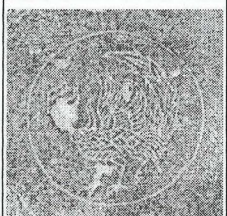
고려 지은원 판경병상도



고려 지은원 판경병상도



고려 삼족마수막새



고려 지광국사현묘탑비



고려 지광국사현묘탑비



고려 대불정다라니경

생전에 있었던 중요한 활동이 실려 있다. 즉 묘실 내부 천정에는 내세의 모습을 반영한 하나의 소우주를 그렸고, 묘실내부 벽에는 주인공의 현실 세계를 표현하였다. 천상의 큰곰자리, 북극성은 하늘세계의 아들이지만 지상세계와 접촉할 경우 천신의 기능을 가진다. 하늘세계와 지상세계는 모두 양성(兩性)이 존재하였다. 환인(桓因)은 태양신이고 달은 천상계의 모신(母神)이며, 하늘세계의 으뜸이었다.¹⁰⁾ 그래서 고분벽화에는 풍속화·초상화·사신도 등과 함께 성수도가 많다. 성수도에는 해·달·별자리 등이 그려져 있고, 해 속에는 삼족오가 있다.

해 속의 세발까마귀인 삼족오는 달 속의 두꺼비와 함께 쌍을 이루고 있다. 삼족오는 해의 상징으로 양의 뜻이고, 두꺼비는 달의 상징으로 음의 뜻이다. 즉 음양론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그러나 삼족오·주작·서조 등을 묶어 봉황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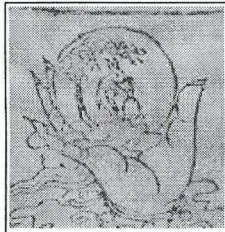
고구려 고분벽화의 삼족오는 고구려 고분인 집안시 통구 우산하묘구의 <무용총>·<각저총>·<장천1호묘> 등과, 북한에 있는 <황해도안악1·3호분>·<복사리벽화고분>·<평안남도강서태성리연화총>·<평남지구강서약수리벽화고분>·<강서중묘>·<용강쌍영총>·<덕화리1·2호분>·<평양진파리1·4호분>·<내리1호분> 등의 천정에서 대개 성수와 함께 그려져 있으며, <용강대안리1호분>과 <남포매산리수렵총> 벽면의 인물도 상부에는 삼족오는 없지만 일월상을 그렸다. 한편 <평양중화개마총>은 현실좌방 제2층 받침 중앙에 일상(日像)을, 우방 2층 받침 중앙에 월상(月像)을 그렸는데, 특히 달 속에는 오른쪽에 두꺼비를 그리고, 왼쪽에 방아를 찧는 토끼를 그렸다.¹²⁾ 고구려 벽화고분에 전반적으로 표현되는 삼족오와 월중섬여에 대하여 표현양식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안악3호분>(4세기중엽)의 앞 칸 천정무늬에는 일월상과 북두칠성이 있다.
- ② <각저총> 현실천정 성수도(4세기말)와 함께 일중삼족오와 월중섬여가 있다.
- ③ <무용총> 현실천정 성수도(4세기말~5세기 초) 일중삼족오·월중섬여가 있다.
- ④ <장천1호분>(4세기말~5세기 초) 천정에 일월과 북두칠성, 일중

10) 허홍식, 『한국신령의 고향을 찾아서』 (서울, 집문당, 2006), 26쪽.

11) 金珠美, 「鳳凰紋과 韓民族의 天神思想」, 『문화사학』 제 21호(한국문화사학회, 2004), 137~153쪽.

12) 李亨求, 「고구려 三足鳥 신앙에 대하여」, 『동방학지』 제86집(서울, 연세대학교학연구원, 1994),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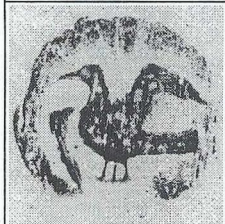
고려 대불정다라니경



조선 이곤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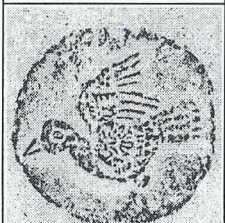
조선 이곤묘비



조선 박운묘표



조선 박운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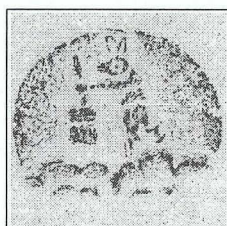
조선 변안렬신도비

삼죽오와 월중섬여가 있으며 삼죽오는 봉황으로 형상화되었다. 달에는 토끼가 절구질을 하고 있으며 두꺼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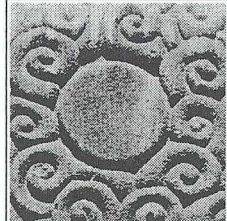
- ⑤ <약수리벽화고분>(4세기말~5세기 초)의 현실동벽 위 일중삼죽오가 있고, 현실 서벽 위에는 월중섬여가 있다. 삼죽오의 형태는 분명하지 않으나 봉황으로 형상화되었고 청룡과 해와 별자리를 그렸다.
- ⑥ <천왕지신총>(4세기 말~5세기 초)에도 삼죽오가 봉황으로 형상화되었다.
- ⑦ <덕흥리1호·2호분>(408)의 앞 칸 동쪽천정벽화에는 일중삼죽오가 있고, 앞 칸 서쪽 천정벽화에는 월중섬여가 있다. 삼죽오는 비상하는 까마귀의 모습이다.
- ⑧ <쌍영총>(5세기말)의 안 칸 천정벽화에 일중삼죽오와 월중섬여가 있다. 삼죽오는 봉황으로 형상화되었다.
- ⑨ <덕화리제1호무덤>(5세기말~6세기 초) 동쪽 천정벽화의 일상(日像)은 봉황으로 형상화된 일중삼죽오다. 서쪽 천정벽화 월상(月像)에는 월중삼죽오가 있다. <덕화리제2호무덤>(5세기 말~6세기 초)에도 동쪽 천정벽화에 봉황모양의 삼죽오가 있으며, 서쪽 천정에 월중섬여옥토가 있다.
- ⑩ <평남진파리7호분출토금동관식>(6세기)도 봉황모양의 일중삼죽오이다.
- ⑪ <오피분4호묘>(6세기)에서는 해신이 삼죽오를 머리에 이고 비상하는 일중삼죽오이다. 달신은 월중섬여를 머리에 이고 있다.
- ⑫ <오피분5호묘>(6세기)에 일신과 월신이 있다. 일신은 봉황모양의 일중삼죽오를, 월신은 월중섬여를 머리에 이고 있다. 춤추는 신의 옆에 다른 하나의 삼죽오가 있다.
- ⑬ <사신총>(6세기) 일신은 봉황모양의 일중삼죽오를, 월신은 월중섬여를 받들고 있다.
- ⑭ <강서중묘>(7세기) 천정벽화의 일월상에도 봉황모양의 일중삼죽오와 월중섬여가 있다.
- ⑮ <개마총>천정벽화의 일상에는 일중삼죽오, 월상에는 웅크린 두꺼비와 불노약을 짊고 있는 토끼를 의인화하여 그려 넣었다.

천정벽화의 일월상에 나타난 일중삼죽오와 월중섬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고구려 고분의 동쪽에는 일중삼죽오가 있고, 서쪽에는 월중섬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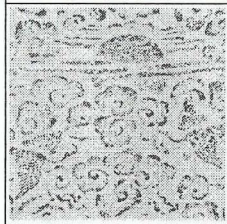
조선 변안렬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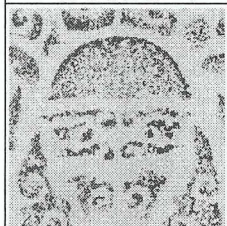
조선 이경현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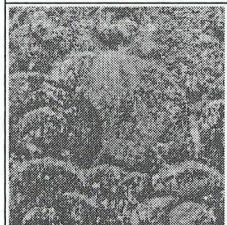
조선 정미수묘표



조선 김상준신도비



조선 김상헌묘갈



조선 이국주묘갈

- ② 삼족오는 뿔과 같은 벼슬을 갖춘 봉황으로 형상화된 것이 공통점이다.
- ③ 월중섬여에는 두꺼비만 있는 경우도 있고 토끼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두꺼비가 있다.

고구려는 천손의식(天孫意識)을 갖고 있었다. <광개토왕능비>에 추모왕은 “천제의 아들이고, 황천의 아들이다(天帝之子 皇天之子)”라 하고, <모두루묘지> 등에도 ‘일월의 아들(日月之子)’이라고 하여 천손임을 자처하였다. 삼족오도 천손신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고구려의 삼족오는 다리가 셋에 머리가 하나인 까마귀다. 무덤의 수호신으로서 고구려인의 힘찬 기상을 상징하는 일중삼족오와 조선시대의 삼두일족웅(三頭一足鷹)은 똑같이 삼에 기초한 제의적 상징물이다.

신라와 가야의 유물에서도 삼족오나 조류신앙과 관련된 문양을 살펴볼 수 있다. 서봉총에서 출토된 <금관봉황장식>(5~6세기)¹³⁾ · <서조도(瑞鳥圖)> · <목제칠기조형잔(木製漆器鳥形盞)> · <조형와(鳥形瓦)> 등은 이러한 사실을 대변해준다. <환두대도>¹⁴⁾ 고리 속에 소위 봉황이라고 알려진 조각은 삼족오의 머리로 보여지며,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쌍조문수막새>¹⁵⁾나 <사천왕사지출토와당>의 경우도 삼족은 아니지만 삼족오와 관계가 있다. <운산용호동1호분금동봉황장식>¹⁶⁾도 봉황으로 형상화된 삼족오와 같다. 이런 사실들은 경주에서 출토된 <월중섬여문와당>¹⁷⁾¹⁸⁾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삼족오와당>과 짝을 이루었던 <월중섬여문와당>이다.

백제의 경우도 신라의 예와 같다. <무녕왕릉출토목제봉황두침> · <백제금동대향로>(6~7세기) · <산경문전>(7세기)에도 봉황이 있다. 이들 봉황은 고구려 벽화의 경우와 같이 삼족오의 형상화된 봉황으로 삼실총 · 쌍영총 · 강서중묘 등에 그려진 주작과 같아서 비록 삼족오는 아니지만 삼족오 신앙과 관련된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해 <봉황문수막새>¹⁹⁾에도 네 마리의 새가 있는데 이 또한 삼족오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삼족오와 관련된 설화로는 고구려의 <추모설화>와 신라의 <연오랑 · 세오녀의 설화>가 일월(日月)과 관련되어 있다. 추모왕의 설화와 관련하여 <광개토왕능비>에 추모왕은 “천제의 아들이고, 황천의

13) 『신라인의 무덤』(경주, 국립경주박물관, 1996), 72쪽.

14)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0), 1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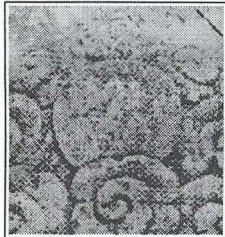
15) 『통일신라』(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3), 106쪽.

16)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2), 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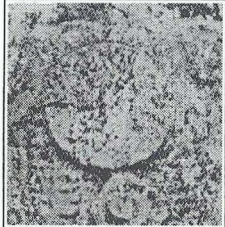
17) 임영주, 「탄생특집」, 『민학회보』 제18호(서울, 민학회, 1988), 15쪽.

18) 『유창중기증기와 · 전돌』(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2), 68쪽.

19) 서울대학교박물관, 『해동성국발해』(서울, 통천문화사, 2003), 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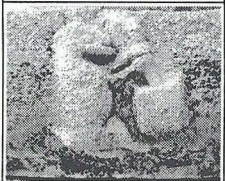
조선 이함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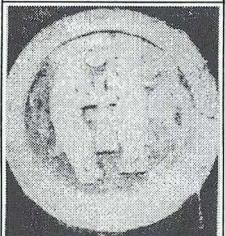
조선 한사개묘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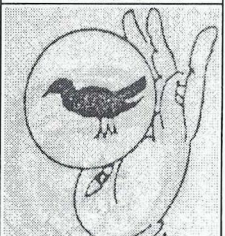
조선 한사개묘갈



조선 미황사 부도



조선 선암사와당



조선 일정마니인

아들이다(天帝之子皇天之子)”라 하고, <모두루묘지>에도 “하백의 자손이고, 일월의 아들로서 추모성왕은 부여에서 나왔다(河伯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之出夫餘)”라 하여 추모성왕이 일월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추모왕은 천제의 아들로 열 개의 태양에서 살아남은 한 개의 태양으로 귀결된다. 즉 북두칠성은 천제(하느님)이고 삼족오는 추모성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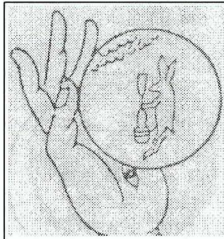
『삼국유사』의 “연오(延鳥)와 세오(細鳥)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자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이들 부부가 일월지정(日月之精)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세오녀’의 ‘세오’ 역시 ‘쇠오’ 즉 ‘금오(金鳥)’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연오랑은 천제의 아들로 추모성왕과 같은 삼족오에 비교된다. 영일군 동해면 도구동(都邱洞)의 일월지(日月池)에서 지내는 <일월제(日月祭)>와, 영일군의 지명이 근오지현(斤鳥支縣) · 오천현(鳥川縣) · 오양지현(鳥良支縣)²⁰⁾이었다는 사실도 ‘오(鳥)’를 보면 삼족오 신앙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에는 무덤벽화와 장의부장품, 향로나 대검 같은 저승의 신과 관련된 기구, 기와나 벽돌, 또는 설화 등에서 삼족오의 여러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북두칠성은 하느님이고, 태양삼신의 상징인 삼족오는 천자로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연결해주면서 지상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나타낸다. 그래서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당시 해와 달로 표현되는 정치지도자의 망명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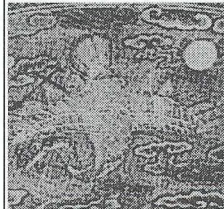
2. 고려시대의 삼족오

고려의 삼족오는 기와와 불교 유물에 있다. <가사수장(袈裟繡帳)>이나 <변상도>와 같은 불화, <지광국사현묘탑비>와 같은 비석과 와당에도 사용되었다. 수장(繡章)은 가사에 부착시키는 것으로 원형 또는 장방형이다. 수장은 대부분 가사의 윗부분에 붙이는데 예외 없이 해와 달을 표현한 무늬가 한 쌍을 이루며 서로 대비가 된다. 해와 달은 불교에서의 무량광명(無量光明)의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부분 수장에 수놓인 해에는 다리가 셋이 달린 삼족오를, 달에는 토끼 무늬를 수놓았는데 이러한 상징적 의도는 삼국시대로부터 시도되었다고 전해진다. 수장의 구성은 아랫부분에는 파도문과 연꽃 또는 불로초, 중간 부분에는 범어(梵語)와 일(日) · 월(月), 그리고 윗부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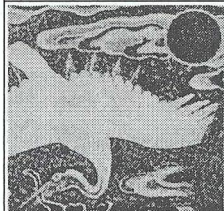
20) 인병선, 「일월신화의 고향을 찾아서」, 『민학회보』 제18호(서울, 민학회, 1988), 23~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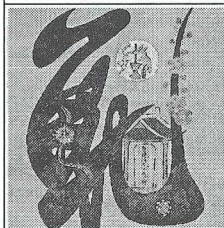
조선 일월마니인



조선 일월홍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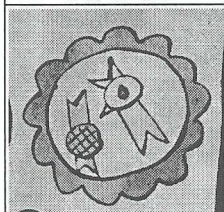
조선 일월홍배



조선 문자도



조선 문자도



조선 문자도

양쪽 옆은 오색구름을 수놓았다.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국왕에게 하사 받은 것으로 전하는 <삼보명자수가사(三寶名刺繡袈裟)>는 다홍색의 무늬가 없는 홍색소단(紅色素段)을 사용한 것으로 윗면과 측면에 3쌍의 가사 끈이 달려있다. 가사의 네 모서리에는 ‘천(天)’·‘왕(王)’자를 수놓고, 가운데 부분에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삼족오와 절구 찡는 토끼를 평수(平繡 : 자수 땀 새를 동일하게 수놓음)로 꼼꼼하게 수놓았다. 가사의 품계는 조각 천을 이은 조(條)의 수로 구분되는데 최고의 품계인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사 전면에 불·보살의 존명과 경전 이름을 치밀하게 수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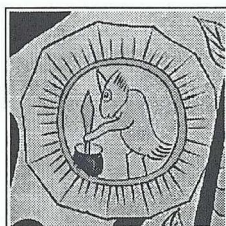
다라니주머니는 불화(佛畵)·번기(幡旗) 등의 불구(佛具) 양쪽 옆을 장식하는 것이다. 다라니주머니는 음양의 한 쌍으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 연꽃 위에 부처님께 발원하는 청신녀의 모습이 발원문과 같이 시문되어 있고, 상당에는 삼족오와 토끼와 해와 달의 상징으로 시문되어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불화에서도 약사불의 협시불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의 보관에서 해와 달 대신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와 달을 상징하는 두꺼비를 볼 수 있다.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法泉寺址智光國師玄妙塔碑)>(1085)의 상단 왼쪽에는 달 안에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고, 오른쪽에는 삼족오가 있다. 순천 <선암사삼보명자수가사수장(仙巖寺三寶名刺繡袈裟繡帳)>의 해에도 삼족오를, 달에는 토끼무늬를 수놓았다. <고려대장경화엄변상도>(1251)에도 삼족오가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제43권변상>은 구름 위에, <대방광불화엄경제50권변상>·<대방광불화엄경제56권변상> 등에도 역시 구름 위에 삼족오가 있다. 일본 교토 지은원(知恩院)소장의 고려불화 <관경변상도(觀經變相圖)>(1323)²¹⁾의 삼족오가 있다. 불화(佛畵)·번기(幡旗) 등의 불구(佛具) 양쪽 옆을 장식하는 다라니주머니에도 삼족오와 토끼가 해와 달의 상징으로 시문되어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약사불의 협시불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의 보관(寶冠)에도 삼족오와 월중섬여가 있다. 일정마니인과 월정마니인에도 삼족오와 월중옥토를 볼 수 있다. 고려시대 기와의 수막새에도 삼족오가 있다.²²⁾ 이 기와의 수막새에 있는 삼족오는 까마귀를 천마로 표현한 삼족마(三足馬)이다. 특히 얼굴은 말의 얼굴이고 꼬리와 갈기가 형상화되었으며 다리가 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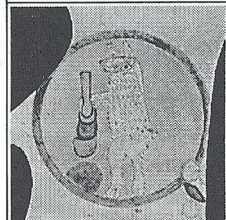
이와 같이 불교가 성했던 시대에는 여러 가지 불교와 관련된 불화나 불구에서 삼족오가 나타난다. 고승의 비석이나 가사의 수장, 화엄변상도·관경변상도와 다라니주머니 등의 불교관계 유물에 대부분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며, 천마 형상의 삼족마(三足馬)는 무인집정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삼

21) 서울 가회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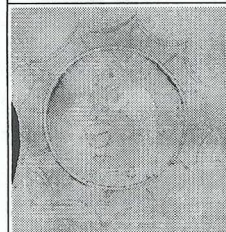
22) 『유창종기증기와·전돌』(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2), 122쪽.



조선 문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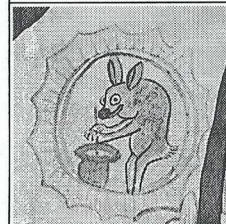
조선 문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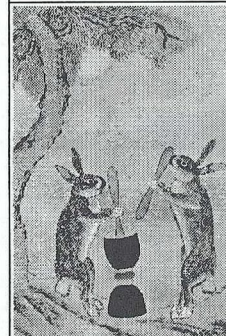
조선 문자도



조선 문자도



조선 문자도



조선 문자도

족오의 표현은 천마·봉황·까마귀 등 문양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3. 조선시대의 삼족오

조선시대에는 매우 다양한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삼족오를 발견할 수 있다. 삼신각의 칠성도나 비석의 비두와 가사 수장에 일월도가 있으며 민화에도 사용되었다. 물론 기와의 와당과 가사의 수장, 등잔이나 문자도, 당상관의 흉배와 일월도, 무당의 무구나 무속화(巫俗畵)²³⁾, 스님의 부도탑, 국가의 의례에 사용하는 의장기, 지명에서도 삼족오가 표현되었다.

<복개당(福介堂)애기칠성도>²⁴⁾와 <일월영수도>²⁵⁾에도 상단에 일월도가 있고 일월도 안에는 삼족오와 두꺼비나 토끼가 있다. 무당이 사용하는 무구인 <일월신장(日月神將)>에는 해와 달이, <신경(神鏡)>에도 해와 북두칠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일월상은 삼족오와 토끼나 두꺼비가 생략되어 일월도만 남아 있는 경우다. 이러한 예는 비석의 비두나 일월산악도에도 있다.

석비의 비두(碑頭)에 표현된 삼족오의 예로는 <연성군이곤묘비(延城君李坤墓碑 : 1559)>²⁶⁾ · <변안열신도비(邊安烈神道碑 : 1571)>²⁷⁾ · <박운묘표(朴雲墓表 : 16세기 후반)>²⁸⁾ 등이 있다. <이곤묘비>의 비두는 조선시대의 삼족오로는 가장 이른 것으로 매우 섬세하고 훌륭한 조각이다. 비두의 전면은 운문과 수평선의 파도문에 바다가 보이는 일출광경으로 해의 안에는 삼족오가 있다. 비두의 뒷면은 운문에 계수나무를 조각한 것이다. 그러나 토끼나 두꺼비는 보이지 않는다.²⁹⁾ 특히 <연성군이곤묘비>는 동쪽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울동에 위치한 금오탁시혈(金烏啄尸血)이라는 명당을 바라보는 위치와, 비두에 삼족오가 구성되어 그 의미를 더하여 준다. 즉 <연성군이곤묘비>의 삼족오와 금오탁시혈의 금오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성군 이곤(1462~1524)의 묘비는 사후 35년 뒤 1559년에

23) 『巫俗畵』(서울, 가회박물관, 2004), 23·106·107·114·132쪽.

24) 민학회, 「탄생특집」, 『민학회보』 제11호(서울, 민학회, 1985), 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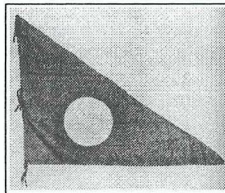
25) 김영재 저, 『우리민화이야기』(도서출판 조선민화박물관, 2004), 6쪽.

26) 이곤묘비, 『성남금석문대관』(경기, 성남시·성남문화원, 2000), 3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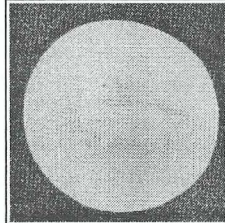
27) 남양주시, 『남양주시지』 2권(경기,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376쪽.
『남양주 조선시대 문양특본집』(경기, 남양주문화원, 2002), 105쪽.

28) 남양주시, 『남양주시지』 2권(경기,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364쪽.
남양주향토사료관, 『남양주 조선시대 문양특본집』(경기, 남양주문화원, 2002), 1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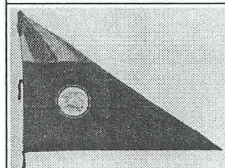
29) 손환일, 「연성군이곤묘비의 양식·문양·서체에 관하여」, 『성남문화원학술토론회 논문집』 제2회(경기, 성남문화원, 2004), 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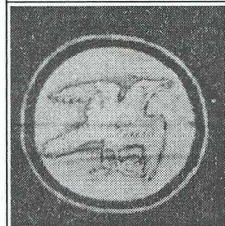
대한제국기 월기



대한제국기 월기



대한제국기 일기



대한제국기 일기

손자 이숙(李倬)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연성군의 묘비는 비두와 비신이 함께 조각된 통 비석으로 비두의 조각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삼족오의 문양은 한민족의 사상·문화와 관련하여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두의 문양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삼척의 비석에는 방부원수 일출형(方趺圓首日出形)이 많고, 금산에는 방부원수첩산형(方趺圓首疊山形), 경기도 지역은 방부원수운문형(方趺圓首雲紋形)이 많은데 연성군 이곤의 묘비도 방부원수운문형(方趺圓首雲紋形)에 속한다. 이는 지역의 특성으로 보이는데 호남에는 대부분 가침석을 얹는 경우가 많다.

연성군이곤묘비의 양식과 문양은 방부원수운문형이다. 비두는 매우 특이한 조각이다. 비두의 전면은 雲紋과 수평선의 파도문에 바다가 보이는 일출광경으로 해의 안에는 三足鳥가 있다. 비두의 뒷면은 운문에 계수나무로 보인다. 이 묘비에서 중요한 핵심은 삼족오다. 조선시대 삼족오가 있는 비두는 이국주묘갈명(1557)·〈변안열신도비〉(1571)·〈박운묘표〉(1488~1570) 등이 있으며 연성군묘비가 세 비석 중 가장 이르게 조성되었다. 삼족오는 동이족이 새와 태양을 토tem으로 하고 있는데 연유한다. 연성군 묘비의 비두에 사용된 삼족오는 ‘일중삼족오’와 수평선위의 운문은 일출을 상징하는 동방의 나라 ‘조선’을 말하여 준다. 이런 점에서 연성군 이곤(1462~1524)의 묘비는 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연성군묘비의 비두에 사용된 삼족오는 이런 차원에서 그 위상과 가치가 인식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안열신도비〉(1571)부터는 삼족오에 다리가 없다. 이런 문양은 후기에 삼족오·두꺼비·토끼가 사라지고 일월만 남게 된다. 일월도는 〈이국주묘갈명(李國柱墓碣銘)〉(1557)³⁰⁾·〈한사개묘갈(韓士介墓碣)〉(1564)³¹⁾·〈김상준신도비(金尙寯神道碑)〉(17세기 중반)·〈김상헌묘갈(金尙憲墓碣)〉(17세기 중반)·〈이경헌묘표(李景憲墓表)〉(1682)³²⁾ 등이 그 예이다. 조선후기에는 거의 일월도만 남게 되었는데 민화나 와당의 막새에서도 그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와당의 예는 경기도 <광능곡장수막새>, 와부읍 월문리 <묘적사수막새>³³⁾³⁴⁾ 에도 삼족오가 있다. 혹은 두 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선암사수막새>³⁵⁾에 토끼가 절구질을 하는 모습도 삼족오와 월중섬여와 같은 맥락이고, <미황사부도>³⁶⁾의 토끼가 약방아를 찧고 있는 조각도 월중옥토의 부류이다.

30) 「李國柱墓碣銘」, 『한국금석문대관』 권1(경기, 고려금석원, 2000), 135쪽.

31) 「韓士介墓碣」, 『성남금석문대관』(경기, 성남시·성남문화원, 2003), 197쪽.

32) 「李景憲墓表」, 『성남금석문대관』(경기, 성남시·성남문화원, 2003), 377쪽.

33) 남양주향토사료관, 『남양주 조선시대 문양탁본집』(경기, 남양주문화원, 2002), 62~68쪽.

34) 『井内功寄贈瓦甎圖錄』(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0), 283쪽.

35) 강순형, 「내가 찍은 우리 것 이야기」, 『민학회보』 제14호(서울, 민학회, 1987), 27쪽.

36) 서울 가회박물관 제공.

민화인 문자도에 효(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등을 한 글자씩 나누어 각 폭에, 그리고 팔폭의 병풍으로 꾸몄다. 각각의 그림에는 그 문자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관련된 기물이나 동식물, 또는 일화나 고사의 내용이 그려 지는데, 글자 필획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여백에 곁들여 그려졌다. 여덟 글자 중에서 ‘치(恥)’는 ‘치격(恥格)’을 말한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스스로 알고 바로 잡기 위해서다. ‘치(恥)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은 “상아와 같이 사람은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계몽의 차원에서 ‘치(恥)’자에 월중섬여옥토가 있는 것이다. 임영주선생은 ‘치(恥)’자에 두꺼비가 그려지는 연유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천상에서 내려온 예(羿)는 죄를 지어 부인 항아(姮娥)와 함께 천하에 머무르고 있었다. 어느 날 예는 천상으로 올라가고 싶어 곤륜산에 사는 서왕모를 찾아가 불사약을 구하였다. 이 약은 혼자 먹으면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둘이 먹으면 죽지 않는 불사약이다. 이것을 안 항아는 혼자 먹고 천상으로 올라갔으나 남편 예를 버리고 올라온 것에 대한 미움을 당하여 월궁(月宮)으로 가서 보기 흉한 두꺼비로 되었다. 그래서 만인이 늘 바라볼 수 있는 추한모습의 두꺼비로 변하여 월궁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불사약을 만드는 토끼를 도와 계수나무 아래서 약방아를 찧고 있다”

문자도에서는 서민들의 윤리의식과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유교적 윤리 사상과 도교적·불교적 요소가 있는 그림이다.³⁷⁾

이러한 토끼의 모습은 벼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수나무에 달이 있고, 토끼가 불사약을 찧고 있다. 붓으로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겸손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민화에는 토끼가 달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비록 삼족오는 없지만 월중섬여와 함께 삼족오신앙과 관계가 있다. 민화 중에서 특히 영수서조도(靈獸瑞鳥圖)³⁸⁾에도 위에는 월중옥토로 계수나무아래서 약방아를 찧는 토끼가 묘사되어 있고, 아래는 일중 삼족오가 그려져 있으며, 중간에는 영수가 있다. 중간에 있는 영수는 지상의 현실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일출의 상징인 삼족오는 18세기에 수탉이나 봉황 등³⁹⁾으로 표현된 예도 볼 수 있다. 삼족오가 해 속에 표현된 삼족오와는 달리 해의 밖으로 나오거나 해(빛)를 등지고 있는 형상이다. 이는 월중섬여와 같은 예로 조선시대의 민화⁴⁰⁾에서는 두꺼비나 토끼가 달 밖으로 나오는 예와도 같다.

당상관의 흉배에도 일월도가 있다. 대한제국 때의 오성기(五星旗)인 의장기(儀仗旗)로 <일기(日旗)>와 <월기(月旗)>⁴¹⁾가 있는데 적오기(赤烏旗)에 삼족오가 있으며, 『산능도 감의궤(山陵都監儀軌)』에도 있다. 깃발 속의 일월에도 삼족오와 월중옥토이다. 그러나 삼족오는 다리가 둘로써 하나가 줄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삼족오의 다리 수와는 무관하게 삼족오가 표현되거나 아주 생략되어 일월만 남은 예와 해나 달 밖으로 토끼나 두

37) 임영주, 「열개의 해와 열두 개의 달」, 『민학회보』 제18호, (서울, 민학회, 1988), 9~10쪽.

38) 『우리 민화 이야기』 (강원도, 조선민화박물관, 2004), 6쪽.

39) 『새 천년 유물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0), 1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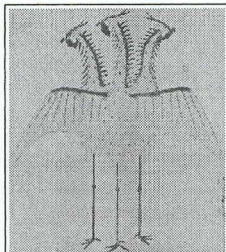
40) 서울 가회박물관 제공.

41) 『궁중유물도록』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263~264쪽. 고종이 광무 원년(1897) 황제가 되어 사용한 것으로 (大駕)·(法駕)가 나갈 때 뒤따랐음.

꺼비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현재도 <천태종가사수장>에 삼족오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의 삼족오문양은 삼신각과 같이 불교와는 관계없는 우리 민족신앙의 흔적으로 불교를 수용할 때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다.

지명에 있어서도 삼족오와 관련된 지명이 있다. 경북 선산 구미에 금오산(金烏山)과 금오천(金烏川), 금오산성(金烏山城) 등이 있다. 예로부터 금오산은 태양 안에 산다는 황금 까마귀인 금오가 노닐었다는 전설과 함께 신령스러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경남 삼랑진 행곡리 동북쪽 양산군 영포리와 단장면 감물리 등 경계지점에 해발 720m의 명산이 금오산이다. 또 충남 예산읍내의 금오산도 삼족오신앙과 일출과 관련하여 지어진 명칭으로 보인다. 금오라는 것은 태양속의 삼족오 전설에서 유래된 말로 ‘햇님’의 이칭이다. 즉 산의 동쪽에 아침 해가 떠오른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산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삼족오는 표현양식을 다섯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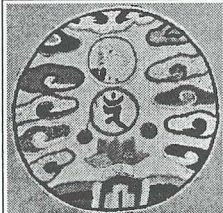
- ① 일중삼족오는 동한 <희화봉일화상>⁴²⁾ · <동왕궁화상> · <일월성화상> · <인물대좌화상> · <신인천마화상> · <신목대보당묘문우립주화상석> · <당하삼족오> · <북위석관함> 등이 있다. 고구려의 삼족오는 <안악3호분> · <각저총> · <무용총> · <장천1호분> · <약수리벽화고분> · <천왕지신총> · <덕흥리1 · 2호분> ·



조선 산능도감의케



조선 가사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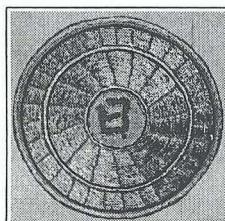


조선 가사수장

<쌍영총> · <덕화리제1호무덤> · <평남진파리7호분출토금동관식> · <오곡분4 · 5호묘> · <사신총> · <강서중묘> · <개마총> 등, 고려의 <지광국사현묘탑비> · <삼보명자수가사> · <대방광불화엄경제17 · 23 · 43 · 50 · 56권변상> · <다라니주머니> · <일정마니인> 등, 조선의 <이곤묘비> · <박운묘표> 등이 있으며 현재도 <천태종가사수장>에 삼족오가 사용되고 있다.

- ② 해 없이 삼족오만 있는 것으로는 동한 <합천한묘> · <팽산1호관> · <함강4호석관>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삼족오만을 표현한 예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 ③ 삼족오와 개가 같이 있는 경우는 동한 <안구한묘화상> · <일월화상> · <북희두궁화상>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는 삼족오와 개가 같이 있는 예를 아직 찾지 못하였다. 이는 개고기를 즐겨 먹었던 은의 동이족과 상관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④ 삼족오의 삼족이 없는 경우는 동한의 <미지묘문순화상(米脂墓門楯畫像)> · <완덕묘문순화상(緩德墓門楯畫像)> · <신목대보당묘문순화상석(神木大保當墓門楯畫像石)> · <일월화상> · 서한<당하호양(唐河湖陽)>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선 <변안열신도비>와 같은 비두와 민화 등에 그 예가 있다.
- ⑤ 일월만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북희집규화상> · <여와집규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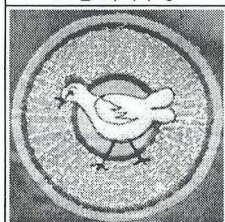
42) 湯池, 『中國畫像石全集2』(中國, 山東美術出版社, 2000), 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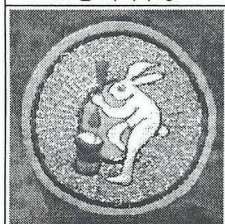
조선 가사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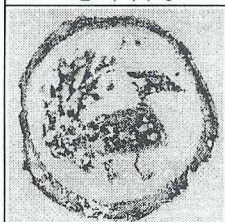
조선 가사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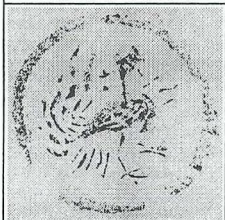
조선 가사수장



조선 가사수장



조선 광능곡장과당



조선 경기도묘적사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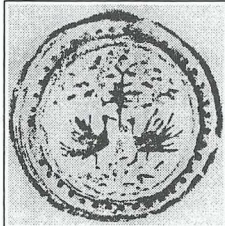
상> · <복희봉일화상> · <남양일신(南陽日神)> · <남양천상(南陽天象)> · <남양일월합벽(南陽日月合璧)> · <남양환일(南陽幻日)> · <남양일신(南陽日神)> 등이 있고, 조선시대의 <이경현묘표> · <김상헌묘갈> · <이국주묘갈> · <이함신도비> · <한사개묘갈> 등과, <일월성신도> · <나전칠기농> · <당상관홍배> 등에 많이 나타나는 종류이다.

월중섬여에 있어서도 월상에 두꺼비만 출현하는 예와 두꺼비와 토끼가 같이 출현하는 예가 있으며, 달만 그려진 예가 있는데, 이는 해만 그려진 예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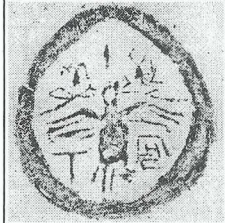
- ① 두꺼비만 있는 월상은 서한의 <마왕퇴명정> · 서한<당하호양> · <미지묘문순화상> · <신목대보당묘문순화상석> · <남양일월합벽> · <남양서관> · <남양천상> · <남양왕장> 등과, 고구려 <덕화리1호월상> · <덕흥리월상> · <약수리월상> · <쌍영총> 등이다. 그런데 고구려시대에는 대부분 <월중섬여>이고, 고려와 조선에 와서는 대부분 <월중옥토>이다. 옥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서 불사약을 쪼고 있는 것은 일반 민중들이 불노장생하길 바라는 염원일 것이다.
- ② 두꺼비와 토끼가 같이 있는 예는 동한 <산동화상석월상> · <산동일월상> · <동한신인화상> · <동한일월화상> · <완덕묘문순화상> 등과, 고구려의 <덕화리2호묘> · <장천1호분> 등에 있다.

삼족오나 월중섬여옥토의 문양에서 삼족오와 토끼와 두꺼비가 생략된 경우가 있고, 또 이들이 조선시대 민화에서 보듯이 해와 달의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만큼 자유분방해졌다는 뜻이고, 점차 삼족오나 월중섬여옥토의 개념에서 분리 독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삼족오가 시대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 양식은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대변해주는 것이다. 고구려나 통일신라시대의 용성기에는 봉황으로 표현되고, 고려시대에는 까마귀나 천마로 나타나며, 불교의 유행으로 여러 불구와 불화에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문화가 다양해지고 삼족오의 표현도 여러 형태로 표현되었다. 민중 사이에서 비석에는 까마귀로, 기와의 와당에는 봉황으로, 민화에는 닭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IV. 맺는 글



조선 묘적사와당



조선 경기도와당



조선 경기도와당



조선 봉황형등잔

삼족오는 동이족이 새와 태양을 토tem으로 하고 있는데 연유한다. 동이족은 태양신을 숭배하였고, 태양신은 태양삼신을 말하며, 태양삼신은 삼족오태양이다. 삼족오태양(三足鳥太陽)은 ‘태양삼신(太陽三神)’이다. 이 태양삼신은 환인(桓因)·환웅(桓雄)·단군(檀君)을 가리킨다. 그래서 고조선 후예들의 삼신은 생명을 주고 가호하는 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기를 낳으면 삼신에게 제사하는 의식과 관습이 있다.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은 <광개토왕능비>에서 천제의 후손임을 말하였다. 삼신신앙은 고구려의 지배적인 신앙이 되어왔다가 불교가 수용되어 국교로 되면서 민간신앙으로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삼족오 문양은 천손의식을 갖고 있는 고구려의 천손신앙을 표현한 것이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와 장의기물, 신라나 백제의 기와나 설화, 고려 시대에는 불화와 불구, 조선시대에는 비석과 민화, 지명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일상생활 곳곳에 삼족오가 표현되어 있다. 삼족오가 시대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 것은 당시의 문화를 대변해주는 것이다. 고구려나 통일신라시대의 융성기에는 봉황으로 표현되고, 고려시대의 무인시대에는 천마로 나타나며, 조선시대에는 까마귀·봉황·닭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 뒤에 삼족오 다리가 생략되어 일월만 남은 일월도가 되었다. 이런 생략된 표현은 그만큼 복잡해진 시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고구려의 삼족오는 <안악3호분>·<각저총현실천정성수도>·<무용총현실천정성수도>·<장천1호분>·<약수리벽화고분>·<천왕지신총>·<덕흥리1·2호분>·<쌍영총>·<덕화리제1호무덤>·<평남진파리7호분출토금동관식>·<오곡분4·5호묘>·<사신총>·<강서우현리중묘>·<개마총> 등과 <운산용호동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봉황장식에서 볼 수 있다. 신라와 가야에서 삼족오나 조류신앙과 관련된 문양은 <서봉총출토금관봉황장식>·<서조도와당>·<목제칠기조형잔>·<불국사출토토제조형와>·<김해출토환두대도>·<경주월지출토쌍조문수막새> 등과 백제의 <무녕왕릉출토목제봉황좌좌봉황>·<부여능산리출토백제금동대향로봉황>·<부여규암면외리출토산경문전봉황> 등에서 삼족오와 조류신앙과 관련된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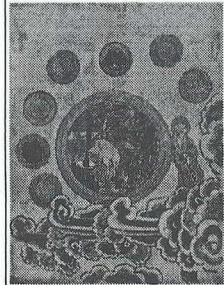
고려의 삼족오는 <법천사지지광국사현묘탑비>·<삼보명자수가사수장>·고려대장경 화엄변상도인 <대방광불화엄경제43권변상>·<대방광불화엄경제50권변상>·<대방광불화엄경제56권변상>·<교토지은원소장관경변상도>·<다라니주머니>·<일월광보살불화>·<기와수막새> 등에 표현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대부분 불교관계 유물에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며, 또 모두 삼족오로 까마귀의 형상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와의 와당에 천마의 형상을 한 삼족오가 보이는 것은 무인집정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 삼족오를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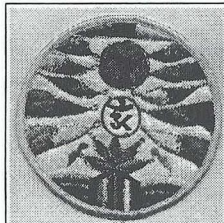
<삼신각칠성도> · <석비비두> · <가사> 등에 일월도가 있으며 <민화>에도 사용되었다. 물론 <막새기와>와 <가사수장> · <등잔>이나 <문자도> · <당상관홍배일월도> · <무당무구> · <무화> · <국가의장기> · <지명> 등에서도 삼족오가 표현되었다. <복개당애기칠성도> · <이곤묘비> · <박운묘표> 등의 삼족오와, <변안열신도비>는 삼족오에 다리가 없고, <이국주묘갈명>(1557) · <한사개묘갈>(1564) · <김상준신도비>(17세기중반) · <김상헌묘갈>(17세기중반) · <이경헌묘표>(1682) 등은 일월도만 남아있다. 삼족오의 변형된 형태로는 <경기도광능곡장수막새> · <와부읍월문리묘적사수막새> · <가사수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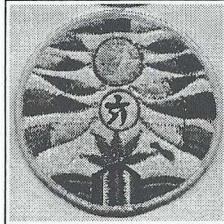
조선 민화 일상



조선 민화 월상



현대 천태종가사수장



현대 천태종가사수장

<문자도> · <당상관홍배> · <무당일월신장> · <선암사수막새> · 의장기로 <일기·월기> 등이 있으며, 지명으로는 <금오산>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믿음이나 상징의 대상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고구려의 삼족오는 다리가 셋이고 머리가 하나인 봉황과 까마귀다. 무덤의 수호신으로서 고구려인의 힘찬 기상을 상징하는 삼족오와 조선의 삼두삼족응은 똑같이 3에 기초한 신앙적 상징물이다. 까마귀의 다리가 셋이 되는 연유에 있어서도 중국 고전에서 말하는 철학적인 설명보다는 우리 민중의 생활 속에 구전되고 관습화되어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예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 삼족오는 조선시대에 와서 삼두일족응으로 변하여 민중의 생활 속에서 삼재를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였고, 민중의 보호막이 되어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도 겸하였다. 삼족오는 해 뜨는 동방의 나라 조선의 상징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시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세월을 걸쳐 민중들의 생활 속에 이어져 내려왔다. 이 문양은 동이족과 한민족을 상징하는 징표이며 민족 신앙이다.

주제어 : 삼족오(三足鳥) · 고조선(古朝鮮) · 단군(檀君) · 고구려(高句麗) · 백제(百濟) · 신라(新羅) · 고려(高麗) · 조선(朝鮮) · 삼신(三神) · 동이족(東夷族)

〈三足乌纹样的时代别变迁〉

太阳中的三足乌是东夷族的太阳和鸟的结合而产生的。东夷族崇拜太阳神，太阳神也叫太阳三神，太阳三神就是三足乌太阳。就是说三足乌太阳就是‘太阳三神’。‘太阳三神’是指桓因·桓雄·檀君。所以古朝鲜後裔的三神是给予生命的神，所以生孩子以后一定要向三神举行祭祀仪式的习惯。高句丽始祖东明圣王在〈广开土王陵碑〉里，对天帝的後孙说：高句丽古坟壁画의三足乌是东夷族的象征，是韩民族的思想和文化。所以高句丽在〈广开土王陵碑〉·〈冒头娄墓志〉里自封为天孙。高句丽始祖东明圣王，新罗的朴赫居世和伽倻的金首露王也是天神的天孙·天君。天孙作为山神，有和檀君王俭一样的资格。这是巫教的 山神，檀君三神。三神信仰原来是高句丽支配的信仰，后来佛教被受容，成为维持民间信仰的命脉。三足乌纹样是具有天孙意识的高句丽的天孙信仰的表现。

高句丽的古坟壁画和葬仪器物，新罗，百济的盖瓦，高丽时代的佛画和佛具，朝鲜时代的石碑和 民话，地名等民众的日常生活里，都有三足乌的表现。三足乌随着时代的变化及不同的表现，可以对辩当时的文化。凤凰表现了高句丽、统一新罗时代的隆盛期，在高丽的武人时代出现了天马。朝鲜时代乌鸦，凤凰，鸡等表现的，省略了三足乌的腿后，就成了日月图。这样的省略表现了当时的复杂时代。

三国时代高句丽的三足乌在〈安岳3号坟〉·〈角抵冢玄室天井星宿图〉·〈舞踊冢玄室天井星宿图〉·〈长川1号坟〉·〈药水里壁画古坟〉·〈天王地神冢〉·〈德兴里1·2号坟〉·〈双楹冢〉·〈德化里第1号墓〉·〈平南真坡里7号坟出土金铜冠饰〉·〈五块坟45号墓〉·〈四神冢〉·〈江西右贤里中墓〉·〈盖马冢〉等和在〈云山龙虎洞1号坟〉出土的金铜凤凰装饰上出现过。在新罗和伽倻里，三足乌，鸟类信仰有关的纹样在〈瑞凤冢出土金冠凤凰装饰〉·〈瑞鸟图瓦当〉·〈木制漆器鸟形盖〉·〈佛国寺出土土制鸟形盖瓦〉·〈金海出土环头大刀〉·〈庆州月池出土双鸟纹水漠乌〉里出现过。在百济〈武宁王陵出土木制凤凰足座〉·〈夫馀陵山里出土百济金铜大香炉〉·〈夫馀奎岩面外里出土山景纹砖〉里，也出现过与三足乌和 鸟类信仰有关联的痕迹。

高丽的三足乌由〈法泉寺址智光国师玄妙塔碑〉·〈三宝铭刺绣袈裟绣帐〉·高丽大藏经 华严变相图 〈大方广佛华严经第43卷变相〉·〈大方广佛华严经第50卷变相〉·〈大方广佛华严经第56卷变相〉·〈京都智恩院所藏观经变相图〉·〈多罗尼囊〉·〈日月光菩萨佛画〉·〈盖瓦水漠乌〉等表现。在高丽时代，大部分与佛教有关系的遗物都由特徵表现，或者用三足乌替代乌鸦的形象使用。还有在瓦当，天马的形象中能看出三足乌的现象中也能反映出武人执政时代的政治状况。

在朝鲜时代的日常生活中很容易发现多样的三足乌。在〈三神阁七星图〉·〈石碑碑头〉·〈袈裟〉等中有日月图，也用于〈民画〉。当然〈盖瓦〉和〈袈裟绣帐〉·〈灯盏〉·〈文字图〉·〈堂上官胸背日月图〉·〈巫具〉·在〈巫画〉·〈国家仪仗旗〉·〈地名〉中也有三足乌的表现。福介堂七星图〉·〈延成君李坤墓碑〉·〈朴云墓表〉中的三

足乌和<边安烈神道碑>中的三足乌没有腿。

<李国柱墓碣铭>(1557)·<韩士价墓碣>(1564)·<金尚俊神道碑>(17世纪中叶)·<金尚宪墓碣>(17世纪中叶)·<李庆宪墓表>(1682) 等只剩下了日月图。三足乌变形后的形态在<京畿道广陵曲墙盖瓦>·<瓦阜邑月文里庙籍寺盖瓦>·<袈裟绣帐>·<文字图>·<堂上官胸背>·<巫堂日月神将>·<仙岩寺盖瓦>·<日旗·月旗>等中有所表现。作为地名有庆尚北道和 忠南礼山的<金乌山>。这些大部分是信任的象征对象。

特别是高句丽的三足乌是有三条腿和一个头的凤凰和乌鸦。作为武德的守护神，高句丽人氣象的象徵的三足乌和朝鲜的三头三足鹰一样是基础至于三的信仰的象徵物。乌鸦之所以有三条腿用中国古典的哲学来说明，不如说是我们民众生活中口传的、隐藏在生活更有说服力。三足乌来自朝鲜时代，有三头一足鹰变化而来。可以阻止生活中的三灾，带来福气的作用。成为民众的保护屏，引导他们走向好路的作用。三足乌作为从东方升起太阳的朝鲜的象征，从三国时代开始，高丽和朝鲜时代， 直到现在，经过了长久的岁月，民众们的生活里延续下来。这个纹样是东夷族和韩民族的象徵，徵表，民族的信仰。(姜美玉 译)

【참고문헌】

『四庫全書』

『山海經』

『龍飛御天歌』

『楚辭·天問』

『楚辭補注』

『神檀實記』京城：大倣教青年會，大正 12(1923)

『中國大百科全書』(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1993)

『국립중앙박물관』(서울，국립중앙박물관，2000)

『궁중유물도록』(서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86)

『남양주시지』2권(경기，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2000)

『남양주 조선시대 문양탁본집』(경기，남양주문화원，2002)

『동방학지』제86집(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1994)

『민학회보』제11호(서울，민학회，1985)

『새 천년 유물전』(서울，국립중앙박물관，2000)

『성남금석문대관』(경기，성남시·성남문화원，2003)

『신라인의 무덤』(경주，국립경주박물관，1996)

『유창중기증기와·전돌』(서울，국립중앙박물관，2002)

『통일신라』(서울，국립중앙박물관，2003)

『한국금석문대관』권1(경기，고려금석원，2000)

『해동성국발해』(서울，서울대학교박물관，2003)

『환단고기』(서울，정신세계사，1987)

『井內功寄贈瓦甎圖錄』(서울，국립중앙박물관，1990)

『中國畫像石全集1~8』(中國, 山東美術出版社, 2000)

『巫俗畫』(서울, 가회박물관, 2004)

강순형, 「내가 찍은 우리 것 이야기」, 『민학회보』 제14호(서울, 민학회, 1987)

김영재, 『우리민화이야기』(도서출판 조선민화박물관, 2004)

金珠美, 「鳳凰紋과 韓民族의 天神思想」, 『문화사학』 제 21호(한국문화사학회, 2004)

손환일, 「연성군이곤묘비의 양식 · 문양 · 서체에 관하여」, 『성남문화원학술토론포럼논문집』 제2회(경기, 성남문화원, 2004)

우실하, 『전통문화의 구성원리』(조합공동체 소나무, 1999)

柳東植, 「佛敎寺刹의 三聖閣과 三神信仰에 대하여」,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8쇄, 1975)

李亨求, 「고구려 三足烏 신앙에 대하여」, 『동방학지』 제86집(서울, 연세대학교학연구원, 1994)

인병선, 「일월신화의 고향을 찾아서」, 『민학회보』 제18호(서울, 민학회, 1988)

임영주, 「탄생특집」, 『민학회보』 제18호(서울, 민학회, 1988)

허홍식, 『한국신령의 고향을 찾아서』(서울, 집문당, 2006)

<abstract>

The change according to the times of ‘Sam Jok Oh(三足鳥)

Son, Hwan-Il

In Kokuryeo is a crow which has one head and three legs. It has a deep relation with the thought and culture of the Korean nation indicated in the region where Dong-i tribe or descendents of Old-chosun era lived. So, Kokuryu has the spirit of heavenly offsprings. King Dongmyungsung who is the founder of Kokuryeo, Parkhuykgeose of Silla era, and King Kim, Su-ro of Kaya era are heavenly offsprings or heavenly kings and are entitled to forefathers of shamanism. Therefore, they as heavenly offsprings are equal to King Dangun or the founding father of the Korean nation as Mountain god. Those are shamanic Mountain gods and three gods of Dangun. The faith of three gods was the dominant faith of Kokuryeo, and after Buddhism was introduced and became national religion, it barely kept itself in existence. So, ‘Sam Jok Oh(三足鳥)’ is three gods of sun, the three gods of sun are Whan-In, Whan-Wung, and Dangun who were sent from Heaven and became the object of worship. It is why heavenly offsprings or heavenly kings have a relation as forefathers of shamanism.

‘Sam Jok Oh(三足鳥)’ is shown in the mural of an old tomb · stuff from a funeral in Kokuryeo era, Kiwa · Mith of Silla and Backjae era, books of Buddhism · equipment for buddhism of Korea era, and a tombstone and a falktale · the name of place in the Chosŏn Dynasty era. That ‘Sam Jok Oh(三足鳥)’ is described with different design and form according to the times is to be representative of the culture at that time. The ‘Sam Jok Oh(三足鳥)’ is described as Bongwhang(or a phoenix) at the peak day of Kokuryeo or United Silla, Chŏnma(or Pegasus) in militant`s times of Korea era. It is also indicated with a crow, Bongwhang(or a phoenix) and the fowls, which the three legs of ‘Sam Jok Oh(三足鳥)’ were omitted and only Ilwol was left to become Ilwoldo.

‘Sam Jok Oh(三足鳥)’ and faith for Sam shin(three gods) have been kept in existence around the life of the Korean nation from Kokuryeo era to presnet for 150 years. The ‘Sam Jok Oh(三足鳥)’ was the representative of Chosŏn which was the estern country with the rising sun and is still a symbol of the Korean nation.

Key Word : Sam Jok Oh(三足鳥) · Old-chosŏn(古朝鮮) · Dangun(檀君) · Koguryeo(高句麗) · Backjae(百濟) · Silla(新羅) · Korea(高麗) · Chosŏn(朝鮮) · Samshin(three gods ; 三神) · Dong-i tribe(東夷族)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形成과 展開

주제발표 : 김주미 (단국대 강사, 고고미술사 전공)

여 백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形成과 展開

김주미 (단국대 강사, 고고미술사 전공)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朝鮮 初-朝鮮 後期 |
| II. 日象文의 形成 | IV. 大韓帝國과 明代의 日旗 |
| 1. 東夷族의 日象文 | 1. 大韓帝國의 日旗 |
| 2. 華夏族의 日象文 | 2. 明代의 日旗 |
| III. 韓國의 日象文 展開 | V. 맺는말 |
| 1. 三國時代-高麗 | |

【국문 요약】

東夷族의 日象文은 日象 안에 3足の 玄鳥를 표현하고, 華夏族의 日象文은 日象 안에 2足 또는 날아가는 새를 나타내거나 日象 안에 새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양자의 이러한 특성은 日象文 形成과 展開에 있어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日象文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玄鳥 및 3足の 전통이 오랫동안 계승되고 있음을 여러 作例들을 통해 살필 수 있다. 玄鳥 표현은 東夷族의 玄鳥 숭배의 영향을, 3足은 天地人을 각각 상징한다.

국가 의식에 동원되는 儀仗物은 권력자의 天下 營爲 의식과 국가의 현재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최대한 화려하고 장엄한 것이 사용되며 이 가운데 儀仗旗는 標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儀仗의 핵심을 이룬다. 다양한 문양이 그려지는 儀仗旗 중 瑞鳥가 등장하며 또한 天象 및 吉祥을 나타내는 日旗는 天人合一을 지향했던 東洋의 정치사상을 함축하며, 여기에 보이는 새는 태양과 天子를 상징한다.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우리나라의 日旗는 조선 말 皇帝國으로 지칭했던 大韓帝國 시기의 儀仗旗에서만 볼 수 있다. 이는 皇帝國인 大韓帝國의 威容을 나타내고 중국의 諸侯國이 아닌 皇帝國으로 발돋움하고자 했던 조선의 自主性を 표현한 것이다. 日旗에는 圓 안에 날아가는 새가 그려져 있어 圓만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중국 明代의 日旗와는 차이가 있다. 圓 안에 玄鳥類(매, 까마귀, 독수리)의 새를 나타낸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졌던 日象文(圓 안에 三足鳥 표현)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그러나 3足이 아닌 2足の 날아가는 새를 묘사한 것은 중국의 陰陽論과 漢代 董仲舒에 의해 제기된 天人感應說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며, 이는 淸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朝鮮이 中華문화를 계승할만한 유일한 문화국가임을 표방한 朝鮮中華思想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제어 : 日旗, 天人合一, 玄鳥, 天·地·人, 陰陽論, 天人感應說, 朝鮮中華思想

I. 머리말

국가 의식에 동원되는 儀仗物은 권력자의 天下 營爲 의식과 국가의 현재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최대한 화려하고 장엄한 것이 사용되며, 이 가운데 儀仗旗는 標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儀仗의 핵심을 이룬다. 儀仗旗에는 다양한 문양이 그려지는데 이는 당시 국가의 사회적 배경과 요구, 사상 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상징물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儀仗旗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儀仗旗 관련 논문¹⁾은 매우 소략하며 그나마 최근에 발표된 논문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儀仗旗 가운데 天象을 나타내며 또한 瑞鳥가 등장하는 日旗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인류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고대 동북아 사람들은 새를 태양(日)과 天子, 穀靈과 新生, 祖靈과 靈魂 昇天의 使者 등으로 인식했고, 새는 始祖 崇拜, 農耕, 祭儀 등의 분야를 연결시키는 공통분모의 역할을 해왔다.²⁾ 새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고대국가의 始祖 卵生說話로 이어졌고, 日象文에 등장하는 三足鳥와 같이 하늘과 인간 세계를 잇는 天命의 전달자 및 실행자로 왕권을 상징하기도 했다. 또한 인간의 영혼을 天上에서 地上으로 또는 地上에서 天上으로 인도하는 매신저로서 새를 솟대 위에 올렸다.

여기서는 새의 이러한 상징성이 日旗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중국의 日旗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중국 典禮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天象을 표현한 日旗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日象文에 등장하는 새의 形成과 展開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여기에 나타난 새 문양이 당시의 시대상은 물론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와 정서를 잘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양에서는 天象이 단순히 자연과학의 대상이기 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지상에서의 통치조직이 天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天人合一을 통해 영원불멸의 절대적인 권력과 통치를 누리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日旗에 그려진 문양은 바로 天下 造營 즉, 治天下를 상징한다.³⁾

본고에서는 日象文이 그려진 日旗의 이해를 돕기 위해 日象文의 형성과 국내에서의 展開를 살펴본 후, 大韓帝國 때 제작된 日旗의 특성과 그 상징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日象文의 形成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光明과 熱氣의 상징인 태양은 敬天사상과 함께 태양숭배사상으로 이어졌고 최고 권력을 지닌 지배자를 태양의 아들 또는 天子로 지칭하면서

1) 白英子, 「朝鮮時代 儀仗旗에 관한 研究 I」, 『한국의류학회지 5-1』, 한국의류학회, 1981.

——, 「儀仗旗에 있어서의 天象의 意味 考察」, 『服飾』 5卷, 1981.

——, 「概說」 X. 函簿類, 『宮中遺物圖錄』,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6. 4.

崔敏順, 『朝鮮朝 旗幟에 관한 研究-儀仗旗의 紋樣을 中心으로』,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産業工藝學科 碩士學位論文, 1983.

2) 金珠美, 「鳳凰紋과 韓 民族의 天神 思想 - 高句麗 古墳 壁畫를 中心으로」, 『文化史學』 21號, 2004.6, p.137.

3) 白英子, 「儀仗旗에 있어서의 天象의 意味 考察」, 『服飾』 5卷, 1981, p.142.

그 절대성과 위용을 강조했다. 또한 날마다 뜨고 지는 태양의 속성은 有限한 인간으로 하여금 死後 태양과 같이 재생하길 소망케 했다. 따라서 태양을 상징화 한 문양은 왕권 및 亡者의 재생과 관련한 天上의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태양숭배의 양상과 이의 형상화는 지역과 종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여기서는 東夷族과 華夏族으로 나누어 日象文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東夷族의 日象文

(1) 玄鳥 표현



그림 1. 고구려 고분 쌍영총(평양 지역 고분, 5세기 중후반)에 표현된 三足鳥

東夷族의 경우 태양숭배와 새 토템을 결합하여 태양을 상징하는 원륜 안에 三足鳥를 표현하는 陽鳥의 형상을 만들었다(그림 1).⁴⁾ 陽鳥는 세 발 달린 까마귀로 묘사되는데 이처럼 玄鳥인 까마귀가 日象文에 표현된 것은 태양의 흑점 활동, 東夷族의 玄鳥 숭배, 天의 대표적 대상인 태양에 대한 인식, 태양·玄鳥·東夷와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는 神話 전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⁵⁾

日象文 안의 玄鳥 표현을 과학과 천문학의 발달에 따른 태양의 흑점 활동을 관측한 결과로 보고 있는데, 이는 神話 상에 나타나는 三足鳥 관념에 태양 흑점에 대한 인식이 추후 첨가된 것으로 생각된다.⁶⁾ 東夷族의 玄鳥 숭배는 북아시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鳥葬의 풍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 이유는 人肉을 먹는 독수리·매·까마귀 등과 같은 玄鳥類가 영혼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日象文 안의 玄鳥 표현을 신비한 天의 대표적 대상인 태양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千字文』에서 ‘하늘 天 땅 地, 검을 玄 누를 黃’이라고 記述한 것과 같이, 하늘이 검다는 것을 玄鳥로 표현한 것이며, 이 때 검을 玄은 단순히 검다는 의미가 아닌 오묘하고 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神話 전승을 통해 태양·玄鳥·東夷와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다.

“堯 임금 때 天帝의 아들인 1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떠올라 곡식을 타죽게 하는 등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 天帝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활의 명수인 羿를 지상으로 보냈다. 羿가 아홉 개의 태양을 쏘자 태양은 까마귀로 변해 떨어졌고 이로써 세상은 편안해졌다. 그러나 天帝는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羿를 神籍에서 제명했다. 이에 羿는 崑崙山의 西王母로부터 不死의 약을 청해 얻어 오나 그의 아내 姮娥가 그 약을 훔쳐 먹고 그 벌이 두려워 달로 도망쳤

4) 중국의 신화학자 孫作雲은 태양 속의 三足鳥를 산둥반도 일대의 東夷族의 새 토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李亨求, 「고구려 삼족오 신앙에 대하여-고고학적 측면에서 본 鳥類숭배 사상의 기원 문제-」, 『東方學志』 88집, 東方學會, 1994, pp.4-5)

5) 王大有 지음·林東錫 옮김, 『龍鳳文化原流』, 東文選, 1988, p.114, p.150 참조.

6) 宋美花, 『古墳壁畫에 나타난 高句麗人의 三足鳥 認識-漢唐代 三足鳥 認識과의 關聯性을 中心으로』, 韓國敎員大學校(歷史敎育科) 碩士學位論文, 2003. 2, p.28.

다. 달로 간 姮娥는 月神의 노여움을 받아 두꺼비로 변해 月精이 되었다.⁷⁾

이 같은 神話 전승을 뒷받침해주듯 해와 달을 상징하는 日象文과 月象文에 있어 日象文은 玄鳥인 까마귀로, 月象은 두꺼비로 표현되고 있으며, 특히 上古시대 東夷族의 이동 경로로 알려져 있는 산둥반도 일대의 漢代 畫像石 및 壁畫, 만주(집안) · 한반도(평양) 지역의 고구려고분벽화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활의 명수로 등장하는 羿는 東夷族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고구려의 始祖인 ‘朱蒙’이 활 잘 쏘는 사람을 지칭하듯이, 큰대(大)에 활궁(弓)이 합쳐진 ‘夷’의 어원이 큰 활을 잘 만들고 활을 잘 쏘는 東夷族의 특성을 강조한 데서 연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태양과 玄鳥에 관한 신화 전승이 東夷族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日象文 안의 玄鳥 표현은 玄鳥의 용맹성과 위엄, 날쌔 동작 등이 天神의 使者 및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졌고, 특히 日象文에 까마귀가 등장하는 것은 까마귀가 영특한 새이고 높고 멀리 날 수 있는 神鳥인 陽鳥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東夷系 설화에서 까마귀는 해를 상징하거나 王 또는 王才를 구하는 역할을 하며, 한방에서는 地上의 人蔘, 바다의 海蔘과 더불어 까마귀를 陽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天上의 飛蔘으로 일컫고 있다.

까마귀가 해를 상징하거나 王과 王才를 보필 또는 救하는 경우는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된 日月之精의 상징인 延鳥郎과 細鳥女, 高句麗의 始祖인 東明王(朱蒙)이 동부여의 追兵을 피할 때 朱蒙을 보필했던 烏伊, 백제 溫祚王의 남하 시 동행했던 烏干 등의 이름에 각각 까마귀를 상징하는 ‘鳥’字가 들어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東夫餘의 帶素王이 고구려의 大武神王에게 보낸 赤鳥 관련 기사, 射琴匣 설화에서 新羅 炤知王을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한 까마귀,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에게 ‘王’자가 새겨진 상아 조각을 전한 까마귀, 東夷界인 淸의 始祖 누루하치를 죽음의 고비에서 구한 까마귀, 일본의 日神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와 神武王을 인도한 까마귀 관련 기사 등이 있다. 이밖에 해를 상징하거나 王 또는 王才를 求하는 역할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百濟의 別稱인 鷹準의 ‘鷹(매)’자가 玄鳥인 매인 것도 東夷族의 玄鳥 숭배를 반영한다.⁸⁾

(2) 3足の 象徵性

日象文 표현에서 태양에 사는 陽鳥인 까마귀의 다리가 셋인 이유는 天地人 사상의 표현, 8괘 중 건 선 3개(三)로 天을 나타내는 乾의 상징, 남성의 陽物 표현, 홀수가 陽數 및 吉數를 나타내기 때문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天地人 사상은 三才論, 三神사상, 3수분화의 세계관 등 다양하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는 靈의 세계인 하늘 세계와 죽음의 세계인 지하 세계를 샤먼을 매개로 하여 인간 세계와 연결하는 巫의 세계관을 말한다. 이러한 三才사상은 人 속에서 天地의 조화를 추

7) 張基樞, 『中國의 神話』, 을유문화사, 1974, pp.118-120.1

8) 李承休, 『帝王韻紀』下卷, 「百濟紀」. ‘後王或號南夫餘 或稱鷹準與新羅’ 趙法鐘, 「百濟 別稱 鷹準考」, 『韓國史研究』66, 1989. 9 pp.9-26 참조.

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북방 수렵 문화의 전통을 반영하는 神 중심적이고 초월적인 세계관으로 이후 다른 요인들과 습합되면서 전개되었다.⁹⁾ 이를 반증하듯 三災 부적에서도 다리 셋은 아니지만 玄鳥의 일종인 3頭1足 또는 3頭2足の 매가 그려지고 있다(그림 2). 三災 부적에 매를 그린 것은 날쌔게 움직여 공중에서 먹이를 낚아채는 매의 사나운 습성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쁜 것을 막아주는 辟邪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三災를 막을 수 있는 瑞鳥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 三災 부적에 그려진 3頭 2足 鷹, 조선시대

三足鳥의 3足を 8괘 중 긴 선 3개(三)로 天을 나타내는 乾의 상징으로 본 것은 日象文에서 天의 대표적 物象인 태양과 함께 표현되는 까마귀를 天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洪與祖의 『楚辭補注』 「引春秋元命苞」에는 “陽은 三으로 이루어졌기에 陽을 상징하는 해 안에는 三足鳥가 있으며 이것을 陽精이라 한다.”¹⁰⁾ 고 기록되어 있어 까마귀의 3足이 陽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 안의 三足鳥를 陽精으로 본 것은 세발 중 가운데 다리를 남성의 상징인 陽物로 인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¹¹⁾

이밖에 3足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는 3과 같은 홀수가 陽數 및 吉數를 나타내고, 홀수는 짝수처럼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무한을 상징한다고 보았다.¹²⁾

2. 華夏族의 日象文

(1) 陰陽說

華夏族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문화권에서의 日象文은 陰陽說, 天命 사상과 天人感應說, 東夷族의 새 토tem 등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戰國時代에 형성된 陰陽說은 陰陽이 萬物을 이루는 本體가 된다는 관념으로 漢代에 五行論과 결합하여 陰陽과 五行의 운행을 人事와 연결시키는 단계로 발전한다. 陰陽說에서 天·日·君王은 陽에, 地·月·臣은 陰에 해당되며, ‘日者實也 太陽之精君象也’라 하여 日은 君王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태양을 형상화 한 日象文은 대부분 달을 표현한 月象文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처럼 陽의 상징인 日象文과 陰의 상징인 月象文이 짝을 이루어 표현된 것은 陰陽說의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 天命 사상과 天人感應說

商을 정벌한 후 “하늘로부터 부여된 命이 떠났기 때문에 왕조를 바꾼다”는 周의 天命

9) 우실하,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 소나무, 1998, pp.12-13. p.128.

10) 『楚辭補注』 「引春秋元命苞」. ‘陽成於三 故日中有三足鳥者 陽精也’

11) 李亨求, 주)4의 논문, pp.4-5.

12) 渡邊素舟, 『東洋文樣史』, 富山房, 昭和 46年, p.207 참조.

사상은 이후 天人感應說로 발전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前漢(BC. 206~AD. 24) 때의 董仲舒(BC. 179~BC. 104)이다. 董仲舒는 前漢 武帝 때 국상을 지낸 인물로 유교의 국교화를 이룩했고, 막대한 君主의 정치권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天人 관계를 강조했으며, 殷·周 이래 내려오던 절대적인 天의 개념에 陰陽五行論을 결합한 天人感應說을 제시했다. 그는 天人感應의 우주 질서 속에서 天과 人은 서로 교감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君主가 失政을 행했을 경우 天이 災異를 내려 경고하며,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유덕하고 인자한 君主에게 권력을 승계하도록 하므로 天命을 받은 君主는 天道를 본받아 인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다. 즉 한편으로는 天命에 의한 강력한 君主權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君主의 횡포와 전제를 막기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災異說을 마련한 것이다. 天人 관계를 중시하고 陰陽과 五行의 運行을 人事와 연결시킨 董仲舒의 天人感應說은 이후 유교사회의 중요한 통치철학으로 자리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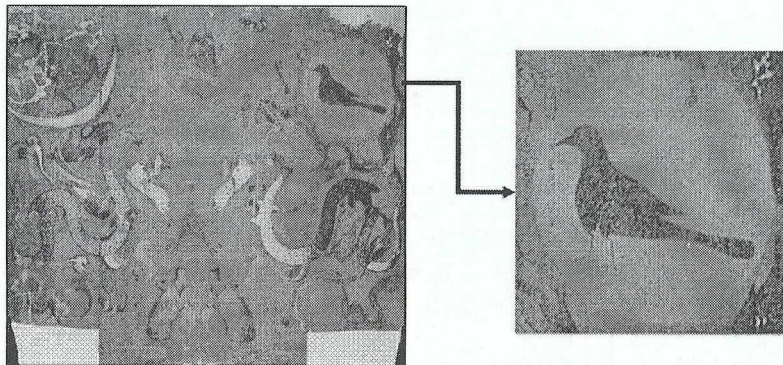


그림 3. 호남성 장사현 馬王堆1호묘 출토 帛畫에 그려진 二足으로 표현된 日象文, 西漢(기원전 2세기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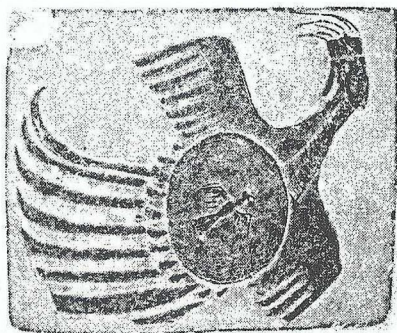


그림 4. 日神羽人 畫像塼, 東漢, 四川 출토

(3) 東夷族의 새 토템

漢代와 南北朝時代의 壁畫 및 畫像石 등에 보이는 日象文 안의 玄鳥 표현은 秦漢 교체기 때 중국 민족으로 흡수된 山東지역 등 중국 동부 연해 지역에 분포해 있던 東夷族의 玄鳥 숭배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¹³⁾ 上古시대에 東夷族은 중국의 서북변에서 동북 방면으로 이주하여 한 줄기는 중국 山東반도 방면으로, 또 다른 한 줄기는 동으로 나와 만주·한반도 일대에 분포하게 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¹⁴⁾.

13) 奇修延, 「東夷의 개념과 실체의 변천에 관한 연구」, 『白山學報』 42집, 白山學會, 1992, p.71 참조. 宋華燮, 「三韓社會의 宗教儀禮」, 『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1995.7. pp.56-57 참조.

14) 金庠基, 「東夷와 淮夷·徐戎에 대하여」, 『東方史論叢』, 1974, p.424. 金杜珍,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一潮閣, pp.5-6.

(4) 漢代・南北朝時代 日象文의 특징

陰陽說, 天命 사상과 天人合一論, 東夷族의 새 토템 등이 연계된 漢代・南北朝時代의 日象文은 다양한 형태로 묘사되고 있다. 태양이 陽으로만 기능할 때는 日象文은 圓으로만 표현되고, 여기에 새 토템이 반영되어 日象文 안에 새가 등장한다. 이 때 새는 호남성 장사현 馬王堆 1호묘 출토 帛書에 그려진 日象文 같이 3足이 아닌 2足으로 표현되거나, 四川 출토의 畫像磚에 나타난 日象文 속의 새처럼 정지된 모습이 아닌 날아가는 새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2足은 陰陽論을, 날아가는 새는 天人感應說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림 3, 그림 4). 여기서 날아가는 새를 天人感應說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새가 天命의 전달자 역할을 하므로 天命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漢代・南北朝時代의 壁畫 및 畫像石에 나타난 日象文 가운데 고구려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三足鳥와 같이 공작 벼슬이 달린 三足鳥를 해 속에 그린 것은 발견하기 어렵다(그림 1 참조). 그나마 3足を 표현한 경우도 山東 및 江蘇 북부지역, 遼西 및 遼東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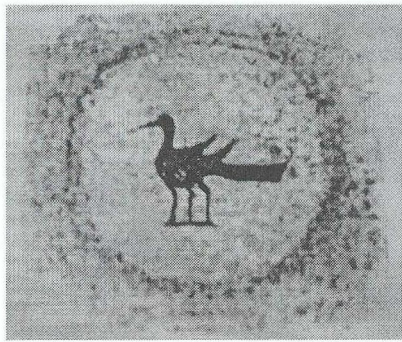


그림 5. 遼寧省 朝陽 袁台子 벽화 묘의 日象文 중의 三足鳥

등 上古 시대 東夷族의 생활 영역에서 볼 수 있다(그림 5)¹⁵⁾. 또한 검게 표현되고는 있으나 독수리·매·까마귀와 같은 맹금류의 玄鳥가 아닌 비둘기·까치 등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日象文과 같이 정형화된 패턴이 아닌 사실적인 鳥類의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後漢(AD. 25-220) 시대 日象文 중의 玄鳥는 서 있는 정지된 모습보다는 날아가는 모습이 많다. 날아가는 새를 天人感應說의 표현으로 볼 때 이것은 당시 어지러운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日象文 속의 三足鳥는 중국 중원에서는 위진남북조를 지나 수당 시대가 되면 산둥과 요녕 지역을 제외하는 점차 소멸된다. 즉, 漢代부터 六朝시대에 걸쳐 나타났던 三足鳥는 隋唐 이후부터는 그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 이는 중국의 華夏族이 東夷族의 三足鳥 문화를 일시적으로 수용했음을 말해준다.¹⁶⁾

III. 韓國의 日象文 展開

1. 三國時代-高麗

우리나라의 日象文 作例를 살펴보면 먼저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日象文을 들 수 있다. 성총(평양지역 고분, 5세기 초중반) 및 복사리벽화분(평양지역 고분, 5세기 초)과 같이 日象文이 원륜으로만 표현되거나, 덕흥리고분(평양지역 고분, 5세기 초) 및 강서중

15) 柳銀奎, 『高句麗 古墳壁畫 三足鳥 圖像의 特徵과 起源』, 서울大學校 大學院(社會教育科) 碩士學位論文, 2003.2, p.15.

16) 손환일, 「三足鳥 문양의 시대별 변천」, 『三足鳥』, 학연문화사, 2007.3,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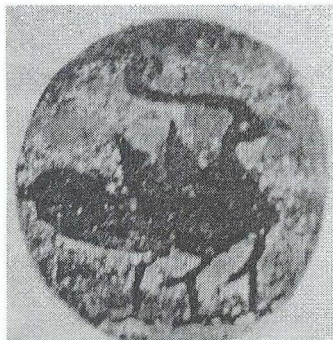


그림 6. 각저총(집안지역 고분, 5세기 초) 日象文 중의 날개를 접은 모습의 三足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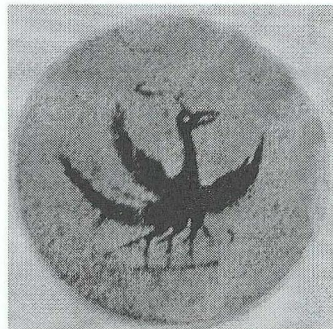


그림 7. 오회분 4호묘(집안지역 고분, 6세기 후반) 日象文 중의 날개를 반원형으로 편 모습의 三足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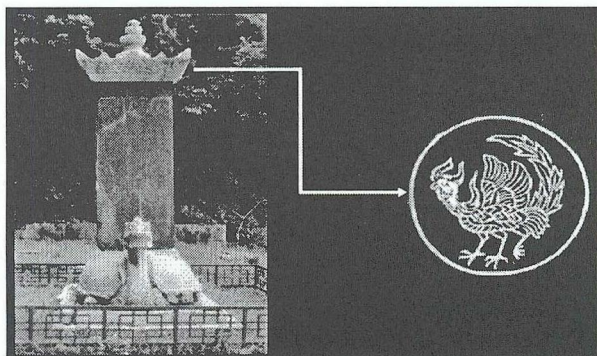


그림 8. 지광국사현묘탑비에 나타난 日象文 중의 三足鳥

묘(평양지역 고분, 6세기 후반-7세기 초)와 같이 날아가는 새로 묘사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日象文은 원륜과 三足鳥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 원륜 안의 새는 정지된 모습의 三足鳥는 대부분 공작 벼슬을 달고 있고, 날개를 접은 모습으로 또는 날개를 반원형으로 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그림 6, 그림 7).

日象文 표현은 통일신라시대에는 보이지 않다가 고려시대에 다시 등장한다. 고려 宣宗 2년(1085)에 세워진 원주 법천사 智光國師玄妙塔碑 離首 앞 좌측의 日象文 중의 꼬리를 말아올린 새는 다리는 3足이나 玄鳥인 까마귀가 아닌 닭의 형상을 하고 있다(그림 8).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로 추정되는 고려청자 상감진사 동자포도문 표형주자 상부에도 흑토로 象嵌한 원륜과 그 안에 3足の 새를 표현한 日象文이 나타난다. 꼬리를 말아 올린 새의 모습은 智光國師玄妙塔碑 日象文 중의 새와 일맥상통하나 벼슬 없는 머리, 가는 목과 긴 부리 등은 물새를 연상케 한다(그림 9). 14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일본 智積院 소장의 고려시대 약사3존12신장도 중 日光보살의 보관 위에 금박으로 그려진 日象文 중의 새는 날카로운 눈매와 긴 부리 등에서 玄鳥 및 물새의 특징적 모습을 함께 살필 수 있다(그림 10). 이밖에 안동 서삼동과 같은 12세기 초의 고려 벽화무덤에도 日象文이 등장하나 이 경우는 새 없이 원만으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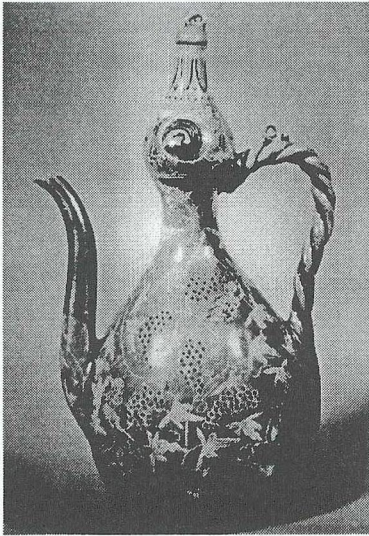


그림 9. 고려청자상감진사동자포도문 표형주자 상부 日象文 중의 三足鳥, 고려 12세기말-13세기 초



그림 10. 약사3존12신장도 중 日光보살 寶冠 위 日象文 중의 三足鳥, 고려 14세기

2. 朝鮮 初 - 朝鮮 後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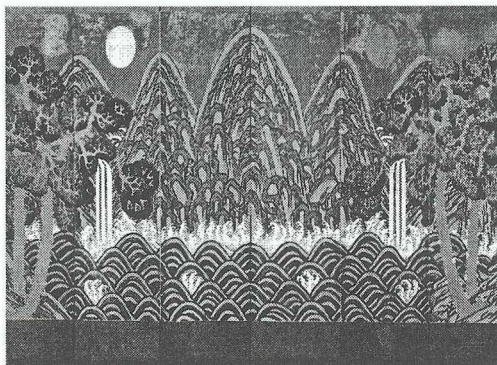


그림 11. 日月五嶽圖,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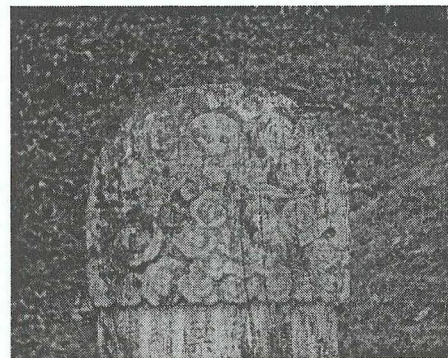


그림 12. 이곤(1462-1524) 묘비 관석 앞면의 日象文 중의 三足鳥, 조선 1559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日象文에는 왕의 절대 권위에 대한 칭송과 함께 왕조가 무궁하길 기원하고자 제작된 日月五嶽圖가 있는데, 산봉우리 좌우에 붉은 원과 흰 원으로 해와 달을 나타냈다(그림 11). 조선시대 日象文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이곤(1462-1524, 묘표 제작 1559), 박운(1493-1562, 묘표 제작 16세기 중후반경), 변안렬(1334-1390, 묘표 제작 작 1571) 등과 같은 사대부의 묘비 관석¹⁷⁾과 明宗 20년(1565) 문정왕후가 발원 제작한 약사삼존도 중 日光보살의 寶冠 안에 표현된 日象文이

17) 사망 시기와 묘표 건립 연대와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이곤은 명종 14년(1559)에, 변안렬은 선조 4년(1571)에 묘표가 건립되었으며, 박운의 경우는 정확한 조성 시기를 알 수 없다. 변안렬의 경우는 고려 우왕의 복위 모의와 관련하여 처형된 이로, 조선 선조 4년(1571) 그 후손들에 의해 묘역과 묘비가 조성되었다.



그림 13. 박운(1493-1562) 묘비 관석 앞면의 日象文 중의 三足鳥, 조선 16세기 중후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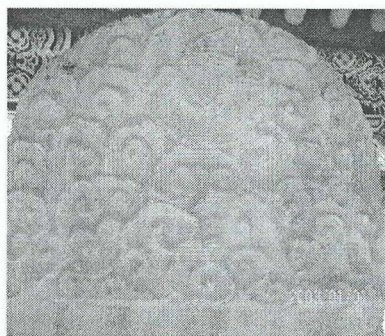


그림 14. 변안렬(1334-1390) 묘비 관석 앞면의 日象文 중의 새, 조선 15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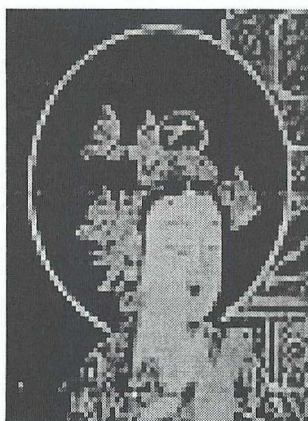


그림 15. 문정왕후 발원 약사3존도 중 日光보살 寶冠 위 日象文 중의 새, 조선 15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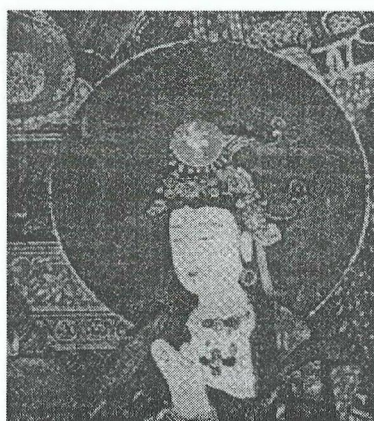


그림 16. 약사3존12신장도 중 보살 寶冠 위 日象文 중의 새, 조선 1477년

다. 여기에 등장하는 日象文 중의 새는 날아가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문정왕후가 발원 제작한 약사삼존도의 경우는 3足이 아닌 2足の 새로 묘사되고 있다(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더욱이 새의 모습도 前代와 같이 시기에 따른 특징적 모습(까마귀, 닭, 물새)은 보이지 않고 作例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문정왕후가 발원 제작한 약사삼존도의 경우, 成宗 13년(1477) 成宗의 누이동생인 明淑공주와 부마인 洪常이 발원 제작한 약사3존12신장도와 여러 면에서 비교된다. 문정왕후가 발원 제작한 약사3존도의 日象文 중의 새는 2足の 날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진 반면, 成宗 때 제작된 약사3존12신장도의 日象文 중의 새는 날개를 펼친 채 서 있는 三足鳥로 묘사되고 있어 전술한 일본 智積院 소장의 고려 14세기 전반의 약사3존12신장도의 日象文과 더 친연성이 있음을 살필 수 있다(그림 16, 그림 9 참조).

日象文 중의 날아가는 새가 연산군의 폭정을 경험하면서 군주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

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했던 시기에, 또한 明宗과 宣祖 등 嫡長子 내지 嫡統이 아닌 왕의 재위기간에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주목된다. 더욱 이곤은 中宗反正에 참여한 인물이고, 박운은 中宗反正의 일등공신으로 영의정까지 지낸 박원종의 아들이며, 문정왕후는 反正으로 왕위에 오른 中宗의 妃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앞서 언급한 “군주가 실행을 행했을 경우 하늘이 災異를 내려 경고하며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유덕하고 인자한 군주에게 권력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董仲舒의 天人感應說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이곤, 박운, 변안렬의 묘비 관석 모두 日象文 안에 날아가는 새를 묘사하고 있지만, 이곤과 박운의 경우는 3足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변안렬은 다리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곤 및 박원종의 아들 박운의 묘비 관석에 묘사된 天地人事상을 상징하는 3足の 새는 反正에 의해 왕위에 오른 中宗이 天命을 받은 天의 대리자임을 나타내며, 아울러 反正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고려 말의 충신 변안렬의 묘비 관석에 묘사된 새는 다리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날아가는 새로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뀐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3足の 새를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天命에 의한 것임은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변안렬은 고려 말 우왕의 복위 모의와 관련하여 처형된 이로 死後 200 여 년이 지난 조선 宣祖 때 그 후손들에 의해 묘역과 묘비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후손들의 입장에서 날아가는 새로서 고려 멸망 후 건국된 조선의 실체는 인정하되 3足の 표현을 생략함으로써 조선이 天命을 받은 天의 대리자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변안렬의 有志를 따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日象文 중의 날아가는 새는 양란(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원만으로 日象을 나타내거나 日象文 대신 龍文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짙어지나, 大韓帝國 때 제작된 日旗의 日象文 중에 다시 등장한다.

IV. 大韓帝國과 明代의 日旗

1. 大韓帝國의 日旗

日旗의 경우, 조선 말 황제국을 표방했던 大韓帝國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조선왕조의 기록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조선의 임금인 皇帝가 아닌 王이었기 때문에 天에 하나밖에 없는 日旗의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進宴儀軌』 卷3 儀仗圖式과 昌德宮 유물 중 大韓帝國 때 만든 儀仗旗에서는 日旗를 볼 수 있다. 이는 皇帝國으로 칭했던 大韓帝國의 위용을 나타내고자 高宗 황제의 즉위 후에 사용된 것이다. 大韓帝國의 日旗 사용과 비슷한 예로는 大韓帝國의 성립과 함께 高宗이 皇帝로 등극할 때 입었던 日과 月이 上衣 어깨에 수 놓여진 12章服¹⁸⁾을 들 수 있다.

18) 황제는 12장복, 국왕은 9장복, 왕세자는 7장복을 착용했는데 황제가 착용하는 12장복의 上衣에만 日月을 수놓았다. 1863년 고종이 국왕에 즉위할 때는 9장복을 착용했으나 대한제국의 성립과 함께 고종이 황제로 등극할 때는 12장복을 착용하여 그 위용을 과시했다. 그러나 고종의 황제 즉위식 때 사용한 12章服이 현재 남아 있지 않고 고종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원으로만 日과 月을 표현한 것인지 日旗와 月旗처럼 원 안에 새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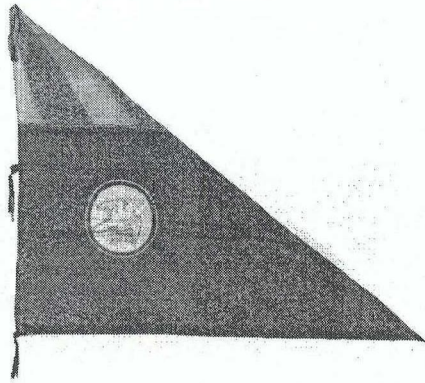


그림 17. 大韓帝國의 日旗
(日象文 중의 2足の 날아가는 새)

『進宴儀軌』卷3 儀仗 圖式 중의 日旗에는 “門旗二雙 日旗一柄 月旗一柄”이란 짧은 圖說과 함께 三角旗의 圓 안에 날고 있는 새를 묘사했다. 새의 부리가 짧고 날카로운 것으로 보아 까마귀와 같은 玄鳥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다리는 3足이 아닌 2足으로 표현되어 있어 ‘日中有三足鳥’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더욱이 서 있는 새가 아닌 날아가는 새로 그려져 있다. 昌德宮 유물 중 大韓帝國 때의 日旗 역시 삼각형의 청색 바탕에 해를 나타내는 원과 그 안에 날고 있는 새(玄鳥)를 금박으로 찍었다(그림 17).

『進宴儀軌』卷3 儀仗 圖式 및 大韓帝國의 日旗에는 원 안에 2足の 날아가는 새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날고 있는 새의 모습은 天人感應說을, 2足은 陰陽論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天人感應說과 陰陽論은 天人合一과 陰陽의 조화를 중시한 중국의 대표적인 정치사상인데, 大韓帝國의 日旗에 이러한 모습의 日象文이 표현된 것은 중국 淸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朝鮮이 中華 문화를 계승할만한 유일한 문화국가임을 표방한 조선 후기의 朝鮮中華思想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前代에 사용하지 않았던 日旗가 大韓帝國 때 등장하는 것은 列強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大韓帝國의 건설을 통해 실추된 왕권의 위엄을 높이고 朝鮮이 淸, 日本과 대등한 위상을 가진 자주독립국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大明集禮』나 『大明會典』 등과 같은 明의 제도를 바탕으로 大韓帝國의 典禮를 정비한 것은 조선이 明의 문화를 계승한 유일한 문화국가라는 ‘朝鮮中華思想’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¹⁹⁾ 日旗의 사용과 2足の 날아가는 새로 표현된 日象文 등을 朝鮮中華思想과 연계시키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2. 明代의 日旗

朝鮮과 明의 日旗를 비교 고찰하기 위해 『大明集禮』 卷43 儀仗 및 『三才圖會(一)』 卷3 儀制 儀仗에 圖說과 함께 圖示되어 있는 중국의 日旗를 살펴보기로 한다. 中國의 日旗는 大韓帝國의 日旗와는 달리 삼각형이 아닌 세로로 긴 장방형이고, 旗의 가장자리에 火焰脚이 달려 있으며, 旗 가운데에는 해를 상징하는 원이 그려져 있는데(그림 18), 『大明集禮』 卷43 儀仗 중의 日旗 및 月旗에 관한 圖說은 다음과 같다.

“周의 官司는 항상 9旗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데 그 하나가 日月旗이다. 左氏는 그것을 三辰旂²⁰⁾라 하고 밝은 것을 밝힌다고 했다. 按揚子의 『太玄經』에서 말하길 해는 밝기가 낮과 같고 달의 밝기가 밤을 밝히니 해와 달을 旗에 그려 天을 형상한다고 했다. 宋의 太祖

토기를 繡놓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안현주, 『朝鮮時代 即位儀禮 研究』, 단국대 전통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p. 75-76 참조.)

19) 김문식, 「高宗의 皇帝 登極儀에 나타난 상징적 함의」, 朝鮮時代史學報 37輯, 2006.6, pp.97-98.

20) 旂는 날아오르는 용과 내려오는 용을 그린 붉은 旗로 제후가 세우는 旗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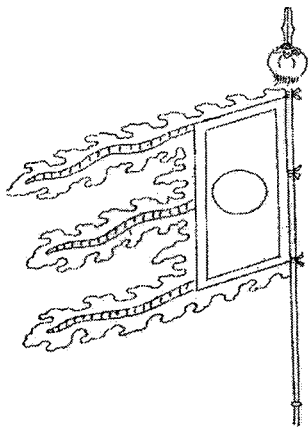


그림18. 『大明集禮』
卷 43 儀仗 中の 日旗

가 처음으로 日月을 깃발에 그려서 그 하나를 ‘天聖鹵簿圖’라 했다. 日旗는 적색 바탕에 해를 그리고 그 안에 까마귀를 넣었다. 月旗는 청색 바탕에 달을 그리고 그 안에 토끼를 넣었다. 元의 제도에서 日旗는 靑 바탕에 赤色 火炎脚을 그리고 해를 그렸다. 月旗는 청색 바탕에 적색 화염각을 그리고 달을 그렸다. 오늘날(明代)에는 日旗와 月旗를 제정해서 각각 청색 바탕에 노란 갓을 두르고 赤 화염 사이에 다리를 그려서 해는 빨강으로 칠하고 달은 흰 것으로 칠했다.”²¹⁾

위의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의 日旗 사용은 宋代부터이고, 宋의 日旗에는 해를 나타낸 원 안에 새가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大明集禮』 卷43 儀仗 및 『三才圖會(一)』 卷3 儀制 儀仗에 圖示된 圓으로만 해를 상징한 明代의 日旗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大明集禮』 卷43 儀仗 ‘日旗 月旗’에는 해를 그린 원 안에 烏(까마귀)를 넣었다고 되어 있으나, 三才圖會 卷3 儀制 儀仗 ‘日旗 月旗’에는 烏(까마귀)가 아닌 鷄(닭)으로 기술되어 있어 해를 표현한 원 안에 까마귀를 그린 것인지 닭을 그린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내용만으로는 새가 서 있는 정지된 모습인지 아니면 날아가는 모습인지도 알 수 없어 大韓帝國의 日旗와 宋代의 日旗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大明集禮』, 『大明會典』 등과 같은 明의 제도를 바탕으로 朝鮮의 典禮를 정비한 것은 고려할 때, 해 안에 玄鳥를 등장시킨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古來의 日象文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되고, 宋代와는 다르게 明代의 日旗에서 새를 제외시킨 것은 日과 새 토템이 결합된 日象文이 아닌 陽으로만 기능하게 된 日象文임을 의미한다. 이밖에 大韓帝國 때의 儀仗旗에는 前代에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문양이 등장하고, 방형이 아닌 삼각형의 儀仗旗가 나타나는 등 형태에도 변화를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는 조선의 건국 초부터 崇明사상의 영향 하에 禮書의 표본이 되었던 『大明集禮』와 『大明會典』의 틀에서 다소 벗어나 조선의 자주적인 禮書와 儀仗을 갖추하고자 했던 의도로 해석된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東夷族과 華夏族의 日象文 형성 · 韓國의 日象文 전개 · 大韓帝國의 日旗와 明代의 日旗 등을 살펴보았다.

東夷族의 日象文은 日象 안에 3足の 玄鳥를 표현하고, 華夏族의 日象文은 日象 안에 2足 또는 날아가는 새를 나타내거나 日象 안에 새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양

21) 『大明集禮』 卷43 儀仗. “周官司常掌九旗之物 各其一曰日月爲 常左氏曰三辰旂旗昭其明也 按揚子太玄經曰 日以煜乎晝月以煜乎夜登 日月於旗以象天也 宋太祖始置日月旗各一天聖鹵簿圖 日旗赤質畫日中以烏 月旗青質畫月中以兔 元制日旗一青質赤火焰脚繪日于上 月旗一青質赤火焰脚繪月于上 今制日旗月旗各一俱青質黃欄赤火焰間綵脚繪日以赤繪月以白

자의 이러한 특성은 日象文 形成과 展開에 있어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日象文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玄鳥 및 3足の 전통이 오랫동안 계승되고 있음을 여러 作例들을 통해 살필 수 있다. 玄鳥 표현은 東夷族의 玄鳥 숭배의 영향을, 3足은 天地人을 각각 상징한다. 日象文에 등장하는 새는 玄鳥, 물새, 닭이 주종을 이루는데 玄鳥와 물새의 경우 솥대 위에 올려지는 새라는 점에서 솥대신앙과의 영향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玄鳥와 닭은 태양숭배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玄鳥는 전설한 '10개의 태양과 쫓장군'이라는 신화 전승을 통해, 닭은 해가 뜨는 아침을 가장 먼저 알린다는 닭의 특성이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儀仗旗 중 瑞鳥가 등장하며 天象을 의미하는 日旗는 天人合一을 지향했던 東洋의 정치적 상징성을 내포한다. 그 이유는 천상과 지상을 넘나드는 새가 古來부터 天命의 전달자 및 실행자로서 日(태양)과 天子·穀靈과 新生·祖靈과 영혼 승천의 使者 등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자의 天下 營爲 의식과 국가의 현재 威力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日旗와 같은 儀仗旗에 등장하는 새는 태양과 天子的 상징적 매체로 이해될 수 있다.

현존하는 日旗는 조선 말 황제국으로 지칭했던 大韓帝國 때의 儀仗旗에서만 볼 수 있다. 大韓帝國 때의 日旗에는 圓 안에 날고 있는 새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圓만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大明集禮』, 『三才圖會』 등에 보이는 중국 明代의 日旗와는 차이가 있다. 원 안에 부리가 짧고 날카로운 玄鳥(매, 까마귀, 독수리)를 표현한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 그려진 日象文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나 日象文 중의 새는 三足鳥와는 달리 3足이 아닌 2足으로 표현되었고, 정지된 서 있는 모습이 아닌 날아가는 새를 묘사되고 있다. 원 안에 玄鳥를 나타낸 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을 이은 것이며, 2足の 날아가는 새를 묘사한 것은 중국의 陰陽說과 天人感應說이 각각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大韓帝國 이전에 日旗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조선의 임금인 皇帝가 아닌 王으로 지칭되었기 때문에 天에 하나밖에 없는 日旗의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大韓帝國의 日旗 사용은 중국의 제후국이 아닌 皇帝國으로 발돋움하고자 했던 조선 왕실의 자주성을 표현한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帝王韻紀』
 『世宗實錄』
 『國朝五禮儀』
 『樂學軌範』
 『續兵將圖說』
 『春官通考』
 『進宴儀軌』
 『宣化奉使高麗圖經』
 『大明集禮』
 『三才圖會(一)』
 『古今注』
 『春秋元命苞』

渡邊素舟, 『東洋文樣史』, 富山房, 昭和 46.
 原田淑人, 『漢六朝の服飾』, 東洋文庫, 昭化 12年.
 張基權, 『中國의 神話』, 을유문화사, 1974.
 王大有 지음 · 林東錫 옮김, 『龍鳳文化原流』, 東文選, 1988.
 徐兢 지음, 옮긴이 정용석 · 김중윤, 『宣化奉使高麗圖經』, 움직이는 책, 1998.9.
 우실하,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 소나무, 1998.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5.
 金裕俊, 『高句麗 古墳壁畫 研究』, 열화당, 2001.
 이근역 편역, 『중국역사』, 신서원, 2003.4.
 리창언, 『고려 유적 연구』, 백산자료원, 2003.10.
 李熙德, 『高麗時代 天文思想과 五行說 研究』, 一潮閣, 2000.5.
 문철영, 『고려유학사상의 새로운 모색』, 경세원, 2005.8.

崔敏順, 『朝鮮朝 旗幟에 關한 研究-儀仗旗의 紋樣을 中心으로』,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産業工藝學
 科碩士學位論文, 1983

安현주, 『朝鮮時代 即位儀禮 研究』, 단국대 전통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蔡秉瑞, 「安岳地方의 壁畫古墳」, 『白山學報』 第2號.

白英子, 「朝鮮時代 儀仗旗에 關한 研究 I」, 『한국의류학회지 5-1』, 한국의류학회, 1981

——, 「儀仗旗에 있어서의 天象의 意味 考察」, 『服飾』 5卷, 1981.

——, 「概說」 X. 鹵簿類, 『宮中遺物圖錄』,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6. 4.

李亨求, 「고구려 삼족오 신앙에 대하여-고고학적 측면에서 본 鳥類승배 사상의 기원 문제-」, 『東方學志』 88집, 東方學會, 1994.

金珠美, 「鳳凰紋과 韓 民族의 天神 思想 - 高句麗 古墳 壁畫를 중심으로」, 『文化史學』 21號,
 2004.6.

김문식, 「高宗의 皇帝 登極儀에 나타난 상징적 함의」, 朝鮮時代史學報 37輯, 2006.6.

Formation and Development Sun Emblems Seen Through Sun Flags

Kim Joo-mi

[Abstract]

Many sun emblems of Dongi Tribe feature three-legged hawks, crows or eagles within the sun pattern while many sun emblems of Hwaha Tribe feature two-legged birds or flying birds, or no bird within the sun pattern. These features of the two sun emblem styles served as an important motive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un emblems. Although Korea's sun emblems changed with the passage of time, it is apparent from numerous works that the tradition of hawks, crows and eagles, as well as three legs have been carried on. The depiction of the said birds was influenced by Dongi Tribe's worship of the birds, and the three legs each symbolized heaven, earth and man.

Splendid and majestic ceremonial objects were used in national rituals to display the ruler's authority of governing the heaven and earth and the state's power. Of them, the ceremonial flag, serving as the standard sign, became the core of emblems. Of ceremonial flags decorated with diverse patterns, the sun flag which features an auspicious bird and symbolizes heavenly beings and good omen, implies the political thoughts of the Orient which embraced the unification of heaven and man. And, the bird here symbolizes the sun and the emperor.

Of data surviving until present day, Korea's sun flags can be seen only in ceremonial flags created during the period of Korean Empire towards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ese sun flags show the dignity of the Korean Empire, and Joseon's self-independence not as a satellite state of then China, but as an empire. The sun flags feature a flying bird in the circle, and thus differ from the sun flags of the Ming Dynasty which symbolize the sun only by the circle. Featured in the circle of the sun flag are a hawk, a crow, and an eagle, as the sun flag carries the tradition of the sun emblem (three-legged birds in the circle) depicted in murals of the Goguryeo Dynasty. However, flying two-legged (not three-legged) birds were depicted as the sun flags were influenced by the Chinese principle of Yin and Yang, and the principle of heaven and man corresponding to each other and man worshiping heaven as advocated by Dong Zhongshu, a Han Dynasty scholar. As the Joseon Dynasty watched the fall of the Qing Dynasty, the sun flag implies the thought of Joseon respecting China as the only state that could inherit Chinese culture.

Key words: Sun flag, the unification of heaven and man, hawk/crow/eagle, heaven/earth/man, principle of Yin and Yang, principle of heaven and man corresponding to each other and man worshiping heaven, thought of Joseon respecting China

通过日旗所见的日象文的形成与展开

金珠美 (檀国大讲师 考古美术史专业)

【中文概略】

東夷族의 日象文은 日象中에 三足의 玄鳥를 表現하며, 多數의 華夏族의 日象文은 日象內에 兩足或飛鳥, 或者 日象內에 鳥의 形象이 無다. 兩者의 這種特性이 日象文의 形成과 展開에 重要한 動機를 與했다. 我國의 日象文은 雖然에 時代의 不同에 隨하여 多少의 變化가 有하지만, 玄鳥와 三足의 傳統이 繼承, 持續되어 長久한 時期를 經過했다. 這는 多個의 作例中에 見어 出다. 玄鳥의 表現은 東夷族의 玄鳥崇拜의 影響에 受고, 而三足은 各各 天, 地, 人을 象征한다.

國家儀式中에 使用된 儀仗物, 執權者의 “天下營爲” 意識을 體現했다. 為了 展示 國家의 威嚴, 儀仗物의 外觀이 最大限度에 顯示된 華麗, 莊嚴性을 持持, 其中, 儀仗旗이 其 標識功能의 意義上에, 儀仗의 核心所在이다. 多種의 紋樣의 儀仗旗中에, 瑞鳥가 出現, 體現了 “天象” 與 “吉祥” 의 日旗內涵에 “天人合一” 의 東洋政治思想, 在 此處에 出現된 鳥의 意旨은 “太陽” 與 “天子” 이다.

在 現存의 資料中에, 我國의 日旗는 朝鮮末期에 自稱 “皇帝國” 의 大韓帝國時期의 儀仗旗中에, 它 體現了 “皇帝國” 大韓帝國의 威容, 表現了 朝鮮이 中國의 諸侯國을 不再 作하고, 而 要 成為 皇帝國의 自主性을 求한다. 日旗中에, 圓內에 飛翔한 鳥가 繪어 有하며, 這는 只以 圓을 象征 太陽의 中國明朝의 日旗와 不同하다. 圓內에 玄鳥類(鷹, 烏鴉, 鷺)의 鳥가 繪어 有하며, 這는 繼承了 高句麗古墳壁畫中에 繪어 有한 日象文(圓內에 三足鳥가 表現)의 傳統이다. 但, 非三足, 而 爲 兩足의 飛鳥의 描寫, 應 視爲 是 中國의 陰陽論과 漢代董仲舒가 提出한 天人感應說의 反映이다. 它을 理解한 是 表現了 對 “目睹了 淸의 沒落, 朝鮮이 自認 朝鮮은 中國文化를 繼承할 唯一한 文化國家” 的 “朝鮮中華思想” 의 標榜이다.

主題詞: 日旗, 天人合一, 玄鳥, 天·地·人, 陰陽論, 天人感應說, 朝鮮中華思想

여 백

심양 서탑지역의 유래

주제발표: 정 무 (요녕일보사 고급기자, 심양시 세종한글학교 교수)

여 백

심양 서탑지역의 유래

정 무(요녕일보사 고급기자, 심양시 세종한글학교 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심양시와 서탑
- III. 서탑과 조선족
- IV. 서탑지역의 형성과 조선인의 반일 투쟁
- V. 빈민굴-서탑지역의 초기 개발
- VI. 서탑지역에서 진행되는 한국 축제
- VII. 심양시와 서탑지역의 발전 전망
- VIII. 맺음말

I. 머리말

서탑지역은 720여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료녕성 정부 소재지인 심양시의 화평구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서탑지역의 면적은 258km²이고 인구는 3만명인데 그중 조선족이 1만여 명이다. 지금 이 지역에는 한족(漢族), 만족(滿族), 조선족, 한국인과 북한(北韓)사람들이 자리 잡고 평화롭게 사는 특별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중수교 후 심양시에는 한국기업이 700여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조선족 집성촌인 서탑지역에도 한국인들이 5,000여명이나 자리를 잡고 거주하면서 식당, 사우나, 은행, 상점, 노래방, 태권도체육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북한사람도 서탑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별미로써 다른 식당들과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유독, 심양 서탑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코리아타운 모습이다.

한중수교 후 한국상품과 문화가 들어오고 한국 드라마 ‘대장금’ 과 한국 가수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중국대륙에 한류 열풍이 불었다. 이로부터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중국인이 많아졌다. 그러나 지금, 심양시의 중국인들은 굳이 한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의 문화와 맛을 향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심양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리아타운-서탑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날 빈민굴이었던 서탑지역은 초기개발을 거쳐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리아타운으로 변신하고 있다.

II. 심양시와 서탑

심양시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옛 도시이다. 7,200년 전에 이미 신락문화(新樂文化)가 형성되어 이곳 무연한 천리벌에 인류가 생존하여 지금의 신락유적지(新樂遺址)를 남겨 놓았다.

심양시의 도시 이름은 중국역사의 서한시기(西漢時期, 기원전 475~기원전 221년)는 후성(候城), 당조때(唐朝, 기원 618~907년)는 심주(瀋州), 원나라 때(元朝, 기원 1271년~1368년)는 심양(瀋陽), 청조때(淸朝, 기원 1644~1911년)는 성경(盛京), 일제시대(1931~1945년)는 봉천(奉天)이라고 불렀고, 1945년 광복 후에는 심양으로 다시 개칭했다.¹⁾ 중국에서는 강의 남쪽을 음(陰)이라 하고, 강의 북쪽을 양(陽)이라고 한다. 심양은 심수(지금의 渾河)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심양이라는 도시 이름을 짓게 되었다.

심양시에는 신락유적지, 북릉(北陵), 동릉(東陵), 고궁(古宮), 9·18역사박물관, 동탑, 서탑, 남탑, 북탑이 세워져 있고, 석대자 고구려 산성 유적지 등이 있다. 서탑과 그 주위를 서탑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서탑은 원래 청조초기(기원 1643~1645년)에 심양의 동, 서, 남, 북 4곳에 세운 4개 탑중의 서쪽의 탑을 가리키는 탑 이름이다. 이 4개 탑 밑에는 4개 절이 있는 데 즉, 동탑에 영광사, 서탑에 연수사, 남탑에 광자사, 북탑에 법륜사, 이를 4탑4사(四塔四寺)라고 한다.

4탑4사를 세우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누루하치는 1625년에 후금의 수도를 요양(遼陽)으로부터 심양에 천도했고, 황태극은 1636년에 청나라를 세우고 도읍(심양)을 성경(盛京)이라고 개칭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도읍에는 반드시 황궁이 있어야 하고 황궁이 있으면 반드시 천제를 제사하는 제단이 있어야 하며, 제단이 있으면 반드시 4개 탑과 8문8관이 있어야 한다. 심양의 지형은 봉황새가 나래를 펼치는 모습인 데 봉황새는 마스코드(吉祥物)이므로 4탑4사를 지어 봉황새가 날아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누루하치로부터 시작하여 황태극에 이르기까지 풍수지리설에 의해 심양시에 토목건축을 크게 벌이었다. 심양 외곽에 4개 탑을 쌓고 절을 지었다. 탑은 높이가 30m, 탑몸은 타원형으로 쌓고 색은 흰색, 탑안에는 식량, 경문, 황금을 저장했다. 이것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문화가 발전할 것을 기원한다는 상징물이다. 탑위의 상륜부분에는 구리(銅)로 해와 달, 앙련좌(仰蓮座)를 만들어 기념비의 특색과 장식특색으로써 그 시기의 건축수준을 보여주었다.²⁾

기실 4탑과4사(四塔四寺)는 누루하치와 황태극의 위세를 사방에 떨치며 천하를 통일하려는 결심을 보여 준 것이다.

III. 서탑과 조선족

서탑 연수사 대전에는 장수불상(長壽佛像)이 모셔져 있었는데 음력 5월 초하루가 장수불의 탄신일이라고 하여 매년 이날이 되면 하루 종일 묘회(廟會)를 굉장히 크게 가지곤 하였

1) 娜萬章:『瀋陽歷史沿革及有關問題』,「瀋陽地方誌資料叢刊」, 1983年.

2) 『淸史簡編』, P43, 遼寧人民出版社, 1980年.

다. 질환에 고생을 하거나 몸이 불편한 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도라 하면 모두들 제물을 들고 이른 새벽부터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때 묘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주로 중국인, 만족들이었는데 조선인들도 있었으리라고 추정된다.

『심양도성황묘비(瀋陽都城隍廟碑)』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 14세기(원나라때) 심양시 서부지역(지금의 서탑지역)에 《고려 여진 만호부(高麗女眞萬戶府)》를 두었다고 하였다. 이는 서탑을 세우기 200여년 전에 이곳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요동지(遼東誌)』에도 기원 14세기 중엽에 료심(遼瀋)지구의 인구 가운데 10분의 7은 화인(華人)이고, 10분의 3은 고려토착인(高麗土着人)인데 이는 모두 여진족에 귀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³⁾ 그때 요심지구란 실제상 지금의 요양과 심양일대를 말한다. 여기서 말한 고려토착인은 고려 원주민을 가리킨다. 그러면 10분의 3이 되는 고려토착인은 얼마나 되는가?

『요동지』의 기재에 의하면 명조 가정 16년(1537년) 심양주위의 요동의 인구는 27만 5,155명이었다. 그러면 이의 10분의 3인 고려토착인은 7만 2,546명이다. 명조 가정 44년(기원 1567년)에 심양주위 요동의 인구는 38만 1,496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의 10분의 3인 고려토착인은 11만 4,450명이다. 이상의 상황으로 보아 그때 심양지구와 서탑지역에 고려 토착인이 적지 않게 살고 있음을 가히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 심양과 서탑지역에서 살았던 고려 본토박이들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역사의 흐름속에서 당지의 한족(漢族), 만족(滿族), 여진족(女眞族), 몽골족(蒙族) 등 여러 민족과 융합(融合)되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추정한다. 현지 조사에 의하면 지금 서탑지역에 사는 조선족은 전의 고려 토착인들의 후손들이 아니고, 후에 조선에서 들어온 과정민족(跨境民族)의 후손들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 요녕성 본계현의 박씨마을에서 사는 243명(1985년 인구통계)의 조선족과 개주시의 박씨마을에서 사는 277명(1985년 인구통계)의 조선족들은 과정민족이 아니다. 그들은 1400여년 전에 고구려가 멸망할 때 도망가지 못하고 은신하여 살아온 고구려 본토박이, 즉 그들이 말하는 꼬리싸즈(高麗撒子)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박씨들은 모두 한 핏줄이므로 몇 백년을 내려오면서 서로 혼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구려의 원주민의 후손들인 박씨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하여 족속을 청조(淸朝)때는 만족(滿族)으로, 중화민국때는 한족(漢族)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에는 다시 만족으로 고쳤다가 1982년에 전국 인구조사 때에야 조선족으로 고쳤다. 그러므로 이들은 고려 토착인(고려본토박이)의 후손들이지 과정민족이 아니다. 이런 고려 본토박이의 후손들은 지금 중국의 하북성 청룡현, 길림성의 서란현, 요녕성의 요양시 등지에서도 살고 있다.

조선인들이 심양시 서탑부근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70, 80년대부터인데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은 기독교 신도들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1882년부터 1887년간에 조선인 서상륜(徐相崙), 백홍준(白鴻俊)이 서탑부근으로 들어와 조선문 《성경》을 출판하였다.⁴⁾ 19세기 중엽으로부터 조선 이재민들이 심양지구의 혼하, 요하, 포하 양안으로 천입하여 벼농사를 지으며, 서탑지역을 중계지역으로 삼고 내왕하면서 모여들었다. 1900년 5월에 조선 평안북도 녕성군의 농민 안봉태가 서탑밀에 집을 잡고 중국인 왕씨와 장사를 하였고, 1901

3) 娜萬章: 『瀋陽歷史沿革及有關問題』, 「瀋陽地方誌資料叢刊」, 1983年.

4) 김양 하동 저: 『불굴의 항일투사 윤희순』, P250~253, 료녕민족출판사, 2003년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6) 「창업」, P45~46, 민족출판사, 1989년.

년에는 조선기독교회의 백목사가 서탑지역에 와서 전도했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자 조선인들은 중국으로 많이 망명해왔다. 그때 서탑지역에 정착한 조선인은 50여가구, 200여명이나 된다. 1912년 안봉선(安東 - 奉天)철도가 개통되자 서탑지역에는 화물 적재고가 있었고, 교통도 편리하여 장사하기 좋은 곳이었으므로 조선인들이 떼를 지어 서탑지역으로 천입해왔다. 그리하여 서탑을 중심으로 1910년대 조선인들의 집거지역으로 형성되었다.

IV. 서탑지역의 조선인 반일투쟁

일찍부터 심양, 특히 서탑지역에는 조선인 반일 애국지사들이 많이 모여 들었다.

1911년 봄 조선의 시인 신정(申攄)이 심양 봉천적(奉天籍)에 가입하고 중국인 류아자(柳亞子)선생이 조직한 진보문인단체인 남사(南社)에 참가하여 청조 봉건통치를 반대하였으며, 손중산의 신해혁명을 옹호하며 일제침략을 반대하는 시를 많이 써서 심양과 서탑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과 조선인 청년을 계몽했다.

1920년 일제침략군 제19사단장 다카시마중장(高島中將)은 19사단의 주력과 기타 3개 사단 및 심양의 일본 관동군과 연합하여 “경신년 대토벌”을 감행하여 조선인의 반일무장대오를 습격하고, 여러 민족을 살해하고 재산도 빼앗아 갔다. 이에 분노한 심양시와 서탑지역의 조선인학생들은 며칠동안 반일 강연대회와 연합투쟁대회를 소집하여 일제의 침략죄행을 규탄하는 동시에 봉천당국과 북경정부에 대표를 파견하여 당국에서는 일본정부와 교섭하여 중국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상세하게 쓴 청원서를 바쳤다.⁵⁾

중국의 유명한 공산주의자, 미술가, 예술교육가인 조선인 한락연(韓樂然, 1896~1947년. 1923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 중국 조선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입)은 1924년에 심양에 파견되어 중국 공산당조직을 건립하는 지하공작을 하였다. 그는 심양과 서탑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반일 계몽사상을 전파하였다.⁶⁾

일제는 중국에서 조선인들의 반일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1925년 5월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쓰야마(三矢宮松)를 중국 심양에 파견하여 봉천경무처장 우진(于珍)과 “삼시협정(三矢協政)”을 맺었다. 협정내용은 중국에서 “조선인 취체방법에 관한 중일쌍방의 토의결정 요강”이었다. 1920년대 일제와 중국의 반동세력은 조선인을 중국에서 구축(驅逐)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대하여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은 단합하여 중국당국에 조선인 취체방법에 관한 “중일쌍방의 토의결정요강”과 “조선인 구축령(驅逐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1928년 1월 9일 23개의 조선인 반일단체와 40여명 조선인대표가 심양 서탑조선인 교회에 모여 협의회를 열고 조선인을 중국에서 구축하는 정책과 중국 동북군벌이 제기한 조선인은 무조건 “귀화입적(歸化入籍)”을 해야 한다는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심양, 서탑 조선인과 여러 민족이 단합하여 투쟁한 끝에 봉천당국은 할 수 없이 “조선인 구축령”을 폐지시켰고, 조선인 관리조약을 새로 발표했다.⁷⁾

5) 瀋陽市民委民族誌編纂辦公室 著:『瀋陽朝鮮族誌』, P38, 遼寧民族出版社, 1989年.

6) 『조선족혁명렬사전』 2집, P1~23, 료녕민족출판사, 1986년.

7) 瀋陽市民委民族誌編纂辦公室 著:『瀋陽朝鮮族誌』, P38~40, 遼寧民族出版社, 1989年.

1931년 9·18사변이 일어난 후 심양 서탑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일제의 동북침략을 반대하는 반일투쟁을 벌였다.

지금 요녕발해대학에 보관되어있는 『중수삼학사비(重修三學士碑)』는 1930년대 초반에 애국유지였던 황윤덕(黃潤德)이 심양시 서탑지역에 거처하면서 북시장에서 조선삼학사비의 비두(碑頭) 『삼한산두(三韓山斗)』비를 발굴하였다. 이에 망국의 한을 품고 심양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애국유지인사 294명(그중 일본인 4명이 있음)은 성금하여 비신을 제작하여 1935년에 서탑지역에 있는 조선인보통학교(지금의 심양시조선족제6중) 교정에다 『중수삼한산두비(重修三韓山斗碑)』를 세웠다. 이 비석은 후에 서탑지역에 있는 춘일공원(春日公園)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팔일공원(八一公園)으로 옮겨갔었는데 중국의 문화대혁명때 파괴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발해대학총장 천문갑교수가 『중수삼학사비』(비신)를 수장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05년에 복제하여 발해대학 교정에 세웠고, 1935년에 중수한 『중수삼학사비』는 지금 발해대학에 보관되어 있다.

1940년대 심양서탑의 인쇄공장의 한 근로자는 일본경관 1명을 죽여버렸고 심양동광중학교(조선인학교)의 애국학생들은 일본인교장 고찌와다시(日和多士)와 하꾸쥬센디(白壽千里)를 학교에서 구축해버렸다. 서탑의 조선인들은 자주 봉천극장(지금의 민족영화관)에 모여 일제침략을 반대하는 내용을 실은 비밀잡지 『비판(批判)』을 회람하였다. 조선인청년 한청(韓靑)은 자주 봉천극장을 찾아가 이 잡지를 열독하고 계몽을 받았다.⁸⁾

조선의 반일 애국지사들은 1930년대로부터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탑지역의 강산면점(江山面店, 지금의 심양시조선문서점)에다 아지트를 두고 반일활동을 하였다. 한국의 윤희순의사(1983년에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추서, 1993년에 국가유공자증 추서)의 손자 류연익(柳然益, 한국광복회 강원도 지부장)은 할머니와 부친 류돈상(柳敦相,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추서)의 뒤를 이어 1940년대 초반에 삼촌인 류민상, 류교상과 함께 심양 서탑지역의 아지트인 강산면점에 통신연락을 하였다. 그때 어린 류연익(봉준)은 독립단의 꼬마통신원으로 소문났다. 그는 무순, 심양, 혜성 등 100~200km되는 먼 길을 굴렁쇠를 굴리면서 통신연락을 하였고, 때로는 마차나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⁹⁾

1945년 8·15광복 후 어느날 심양시와 서탑지역의 조선인 500여명은 심양시 북시구조선인소학교(지금의 서탑지역에 있는 심양시조선족제6중)강당에서 항일전쟁승리 경축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 반일투쟁에 참가한 한청이 연설을 하였으며, 심양과 서탑의 100여명 조선인이 조선의용군에 참군하였다. 후에 조선의용군은 1,500여명으로 확군되었고, 한청은 조선의용군 선발중대장(군단장)으로 임명되었다. 광복 후 무정부상태에서 조선의용군 장병들은 심양과 서탑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분자를 처단하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¹⁰⁾

8) 瀋陽市民委民族誌編纂辦公室 著:『瀋陽朝鮮族誌』, P38~40, 遼寧民族出版社, 1989年.

9) 김양 하동 저:『불굴의 항일투사 윤희순』, P268~278, 료녕민족출판사, 2003년.

10) 瀋陽市民委民族誌編纂辦公室 著:『瀋陽朝鮮族誌』, P41, 遼寧民族出版社, 1989年.

V. 빈민굴-서탑지역의 초기 개발

광복 후 서탑지역은 조선인 빈민들이 모여사는, 심양시에서 유명한 빈민굴이었다. 길보다 낮은 판자집, 양철집들이 여기저기 올망졸망 들어앉아있는 서탑지역에는 노점행상을 펼쳐 놓고 음식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조선인 장사꾼들이 있는가 하면 새끼를 꼬아 가마니를 짜서 생계를 유지하는 조선인도 있었다. 그때 조선인들이 사는 곳을 새끼골목이라고 하였다. 좀 잘 사는 조선인들은 정미소, 소형 고무신 공장, 사진관, 여관, 냉면점과 식당을 운영하였다. 광복직전까지 서탑지역에는 조선인들이 경영하는 소기업체가 7개, 노점상이 30여 개, 음식점, 술집, 서비스 업체가 28개뿐이었다. 빈민굴에는 위생상황도 안 좋고 사회 치안 질서도 어지럽고 못사는 조선인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하여 중국 타 지방에서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서탑사람과는 혼사를 안 한다고 까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다. 서탑사람들도 멀리받는 “서탑 새끼골목”을 벗어나려고 생존투쟁을 했다.

1970년대, 특히 80년대 개혁개방 후 조선족 집성촌인 서탑지역은 변신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심양전기기계국주택개발공사 총경리인 김학수(조선족)가 웅심을 품고 서탑지역을 심양시 조선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구로 건설할 설계도를 내놓았다. 서탑지역 중심가의 길을 넓히고 연장하여 상업가로, 길 양쪽에는 조선족상품무역청사, 백화점, 문화센터, 병원, 호텔 등 16~20층의 현대화 건물을 짓고 대형지하주차장, 조선족공원까지 기획하고, 인민폐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41만㎡에 달하는 서탑지역을 개발할 목적으로 짧은 기일내에 주민들을 전부 이주시키고, 낡은 주택을 불도저로 모조리 밀어 버렸다. 그러나 그후 자금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 김학수는 서탑지역 개발 설계도를 오랫동안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서탑지역의 조선족, 한족, 만족 등 원주민들은 6년간이나 막심한 불편을 겪었다. 한중수교 후 심양시 정부의 배려와 노력으로 하여 서탑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서탑지역 “심양코리아타운”의 꿈과 우리 겨레들의 숙망이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심양시 정부는 1994년에 2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33만㎡되는 아파트를 짓고 2,400여 가구의 주민들을 새 집에 입주시켰으며, 1,000여가구의 거주, 경제 활동조건을 크게 개선시켰다. 서탑지역의 초기개발은 이렇게 첫 걸음을 내디뎠다.

초기개발을 거친 서탑지역에는 현재, 심양시 화평구서탑가도판사처, 화평공안분국 서탑파출소, 조선족백화점, 심양시조선족제6중, 심양시서탑조선족소학교, 심양시세종한글학교,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 심양시기독교서탑교회, 심양시조선족병원, 심양시조선문서점, 은행, 우체국, 사진관, 고려호텔, 연화국제빌딩, 방디빌딩, 한국인이 운영하는 백제원, 신라원, 경회루식당, 청와대식당 등과 노래방, 사우나, 태권도체육관, 북조선사람이 운영하는 평양관, 묘향산, 목란관 등 식당과 태권도체육관 등 상업, 문화, 오락, 체육, 음식업이 자리를 잡고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VI. 서탑지역에서 진행되는 한국축제

한중수교 후 심양에서 한국의 선진기술, 한국산제품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

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와 음식문화 및 생활문화까지도 매우 인기를 끌어 한류(韓流) 열풍이 심양, 서탑지역에서 불었다.

심양시 정부와 대한민국 주 심양 총영사관이 공동주최한 “중국심양한국축제”는 한류를 타고 2002년부터 해마다 서탑지역에서 진행되었다. 2006년까지 5회를 진행했다. 한국축제기간이 되면 서탑지역은 더욱 화끈 달고, 폭발적인 분위기로 장식되었다. 축제에 참가한 한국인은 5000여명으로부터 2006년에는 2만여명으로 늘어났다. 전 주심양 한국 유준상 영사, 오갑렬 총영사를 비롯하여 한국 전 총리 이동한, 이수성, 한국국회 박희태 부의장, 한국동북아시아시대 리정호부의원장, 강용식 국회비서장, 이대엽 성남시장, 인천시 등 한국과 료녕성, 심양시의 지도자와 중국의 100개 도시 시장들도 자리를 같이 하여 합작과 발전을 논의했고, 심양과 서탑의 기업들을 방문했다. 2006년의 심양한국축제의 주제는 “교류와 합작, 공동발전”이었고 축제의 특징은 광범위화, 국제화, 브랜드화이었다. 축제를 통하여 한중 양국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합작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시대발전의 필연적 추세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2006년의 한국축제에서 한중기업이 총 117건의 프로젝트를 조인했는데 그 프로젝트 투자총액이 3,045억 달러이고, 심양시 화평구는 한국 업체와 서탑 재개발 관련 6건의 프로젝트를 조인, 조인액이 7,725억 달러에 달했다.¹¹⁾

VII. 심양시와 서탑지역의 발전전망

중국은 개혁개방 후 등소평의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에 의해 지난 세기 80년대에 광둥의 새로운 공간—심수가 유명해졌고 90년대에 상해의 새로운 공간—포동이 유명해졌는데 미래 5년, 미래 15년, 미래 45년에는 심양의 새로운 공간이 우뚝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심양시 정부는 심양에 새로운 4대 발전공간을 이미 확정하였다. 4대 발전공간을 동우(東優), 서진(西進), 남척(南拓), 북통(北統)이라고 하는데 동우는 동쪽에 동부관광 휴게구로 203km²의 면적에 대화원(大花園), 청산록수를 만들어 동북 3성의 명승 관광휴게소로 개발된다. 서진은 서쪽에 50km 길이에 공업장랑(工業長廊)을 조성하여 선진 장비 제조업을 주체로 하고 화학 공업 및 신흥 상업기지를 발전시켜 인구 230만명이 거주하고 110만명의 취업 일터를 제공한다. 남척은 남쪽에 대혼남 1,400km² 면적에 신성구(新城區), 고신기술구(高新技術區), 물류구(物流區)를 개발하고 혼하강이 심양 내하(內河)로 된다. 북통은 북쪽의 1,098km² 면적에 고효도시형 농업발전, 녹색심북(綠色瀋北)의 채소바구니를 조성한다. 장래 심양 3환도로를 도선국제공항 북쪽으로 남이(南移)하고 지하철도 건설한다. 앞으로 심양시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하게 된다.¹²⁾

심양시 정부에서는 심양시의 만족, 조선족, 시버족 등의 민족 생태보호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심하구(瀋河區, 만족생태보호구), 서탑지구(西塔, 조선족 생태보호구), 신성자구(新城子區, 시버족 생태보호구)의 고문화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3년간의 시간을 거쳐 3대 특색이 있는 민족기지를 개발하였는데 그중 조선족의 집성촌인 서탑

11) 『조선문보』, 2003년 7월 22일 2004년 5월 18일 『료녕일보』, 2005년 5월 16일

『조선문보』, 2006년 7월 7일.

12) 『조선문보』, 2006년 2월 14일.

지역이 제일 먼저 전형적인 조선족 문화생태 보호구로 형성되었다.¹³⁾

심양시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서탑지역의 재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재개발 계획에 의하면 서탑지역의 2,700가구의 철거작업을 2005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주체 공사는 2008년 북경에서 개최하는 올림픽대회 전으로 준공한다. 서탑타운프로젝트 개발토지지역은 동쪽으로 남경가, 서쪽으로 서탑가, 북으로 영구로, 남으로 시부대로까지이다. 서탑타운에 주목할 것은 방디호텔 동쪽편에 서탑가와 남경가를 관통시키는 550m 길이의 신흥 보행거리에 상가, 호텔, 대형마켓, 아파트, 주택이 즐비하게 일떠서 음식점, 오락, 쇼핑, 휴식, 관광을 일체로 하는 상가가 형성되어 심양에 유명한 태원가(太原街)와 중가(中街)에 못지 않은 변화한 새로운 상가가 조성된다. 계획중인 서탑 보행거리 양편에는 신식 건물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게 되고, 모두 한국풍으로 가로등 장식을 하여 한국거리 특색을 띠게 한다. 거리에는 또 분수, 조각 등 경관이 조성된다. 그리고 30층 높이의 원주모형 상징건물과 5성급 호텔이 건축된다.

서탑지역 중심의 이 보행거리는 한국 서울의 명동거리처럼 심양시에서 첫 번째로 되는 24시간 불야성으로 될 것이다. 지금 서탑지역의 일(日) 인구 유동량은 3만명 좌우이지만 앞으로 일 인구 유동량은 10만명이 넘는 풍격을 그대로 보유한 기초에서 규모와 효과상에서도 세계 최대 한인타운인 미국 LA타운 못지 않은 더욱 매력적인 모습으로 단장될 것이다.¹⁴⁾

VIII. 맺음말

코리안타운 서탑거리는 국제적 도시인 심양시의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심양시는 료녕성 정부 소재지이고 중공업도시, 관광도시이며 동북 3성의 금융, 문화, 상업, 무역, 화물 집산, 상업유통의 중심지이다. 심양도선 국제공항에는 국내외 항공노선이 70여 갈래, 철도선이 6개 갈래, 국가급 고속도로가 5개 노선이 통하는 항공, 철도, 고속도로의 교통의 요충지이다.

심양시의 인구는 720만명, 면적은 13,000km²이고 76%면적이 평원지대이며 시 산하에 화평, 심하, 대동, 황고, 철서, 소가툰, 신성자, 동릉, 우흥 9개 구와 신민시, 요중현, 강평현, 법고현이 있다. 심양시에는 43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조선족이 10만명이고 그 외는 한족, 만족, 몽골족, 회족, 시버족 등이다. 심양시의 특수한 지리적위치는 앞으로 더욱 큰 정치, 경제, 문화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 일본의 화물이 중국 단둥, 심양을 거쳐 중국 각 지역과 러시아의 시비리아 철도와도 연결이 되어 동유럽, 서유럽의 여러 나라로 운송되고 수입, 수출이 더욱 편리하고 빈번해지게 될 것이다.

심양시에는 대한민국 주 심양 총영사관, 미국 주 심양영사관, 러시아 주 심양영사관, 일본 주 심양영사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 심양영사관이 있다.

금년 한중수교 15돌을 맞으며 서탑지역에서 거행될 제6회 한국축제는 더 창의성이 있고 영향력이 클 것이며, 성과도 클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심양시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

13) 『조선문보』, 2003년 2월 14일.

14) 『조선문보』, 2005년 9월 2일.

는 더욱 유명한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이며, 따라서 서탑지역도 세계적으로 더욱 자랑스런 코리안타운으로 발전할 것이다.

여 백

중국 태양조

주제발표 : 이행준

(요녕 조선문보사 특약기자, 무순시 민족과학자협회 상무 부회장)

여 백

중국 태양조

이 행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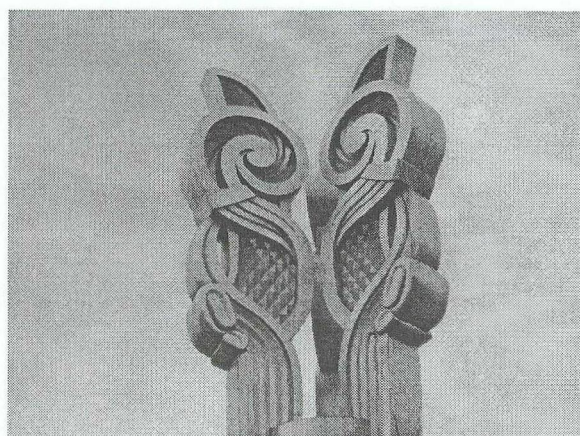
(요녕 조선문보사 특약기자, 무순시 민족과학자협회 상무 부회장)

목 차

- I. 태양조의 전설
- II. 중국태양조 및 종류
- III. 편집자의 말

I. 태양조의 전설

(1) 심양 태양조[太陽鳥, sunbird]



심양시 중심의 시민광장에 우뚝 서 있는 이 태양조[太陽鳥, sunbird]는 높이가 21m으로서 신라유적지에서 발굴한 7000 년전의 도동(圖騰)이다.

심양시 중심의 시민광장에 거대한 금속 조각 하나가 우뚝 솟아 있다. 조각의 주체는 세개의 교착(交錯)되어 세워진 신조(神鳥)인데 화강암을 끼워서 만든 천천히 떠오르는 황금색의 붉은 해를 받쳐 들고 있다. 신조(神鳥)의 두 눈은 반짝이고 기백이

넘치며 온 몸에 금을 둘러 휘황찬란하게 빛을 뿌리고 있다. 특히 긴 날개를 펼쳐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향하여 찌를 듯한 자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 금색 스테인레스강(不锈钢)조각이 바로 심양시의 상징인 태양조이다.

태양조[太陽鳥, sunbird]를 말할 때 반드시 그의 내력을 알아야 한다. 1978년에 고고학자들이 심양의 신락유적지(新樂遺址)에서 극히 드문 목조(木雕)예술품 하나를 발굴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목조조(木雕鳥)이다. 이 목조조(木雕鳥)는 고도로 개괄한 도안화(圖案化)수법으로 조각하여 만든것인데 가공 질이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윤곽이 자연스럽다. 그의 꼬리털이 매우 길어 전신의 절반을 차지하여 지팡이와 비슷하다. 실제상에서 이 나무 손잡이는 고정된 곳에 쏙아 부락에서 제사 지낼 때 쓰이는 것이다. 그러면 구경 이 새는 어떤 새가? 사학자(史學家)들의 고증에 따르면 이 목조조(木雕鳥)는 바로 사람들의 전설중에 나오는 대봉조(大鵬鳥)로서 지금으로 부터 약 7 천년전의 신락인(新樂人)의 도동(圖騰)이다. 이 태양조는 심양의 신락유적지(新樂遺址)에서 발굴한 극히 보기 드문 나무 조각 예술품이다. 신락유적지(新樂遺址)는 심양시 황고구에 위치하여 있고 이는 심양 역사의 연원이며 지금으로 부터 이미 7 천여년이란 세월이 흘러 절강성의 하모도 유적지(河姆渡遺址)에 상당하며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에 속한다. 장자 · 소요우(莊子 · 逍遙游)의 신화(神話)에 쓰기를 “북쪽의 큰 바다에 곤(鯨)이라고 부르는 물고기가 있는데 곤(鯨) 이 얼마나 큰 지 몇천리나 되는지 몰라 새로 변하여 그 이름을 봉(鵬) 이라 하노라.” 봉(鵬)은 새의 일종으로서 전설중의 바람의 별명이다. 그의 몸체는 일반 새 보다 크고 꼬리가 매우 길고 아름다워 날아 갈 때는 바람부는 것 같아 그 모습이 매우 장관(壯觀)스럽다. 옛날에 사람들은 줄곧 이 대봉조(大鵬鳥)를 상조(祥鳥)와 신령(神靈)으로 모셨다. 신락(新樂)에서 발굴된 이 목조조(木雕鳥)의 모습은 문헌중에 기재한 대봉조(大鵬鳥)와 서로 부합된다. 그의 머리는 크고 꼬리가 길며 체형이 단단하고 부리는 넓어 산하를 삼킬 수 있다. 몸의 털은 배열이 정제하고 신체가 길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일으키게 한다.

이 태양조[太陽鳥, sunbird]는 심양의 상징으로서 모든 심양 사람들은 이로써 더없는 자오감을 느끼지만 태양조[太陽鳥, sunbird]란 이 상표(品牌)가 아직 전국 인민들의 가슴속에 일정한 위치가 없으니 나는 여기에서 정성껏 선전하는 바이다.

(2) 하모도 (河姆渡) 태양조

절강성 여요(浙江余姚)시의 하모도 유적지 (河姆渡遺址)에서 지금으로부터 6~7 천년전의 골비수(骨匕)하나를 발굴하였는데 그 도안이 한 쌍의 새가 해를 받들고 있는 그림이다. 이 도안은 우리 선조들의 의식중에서 타오르는 태양은 신조의 날개로 운행된다고 믿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도안은 한(漢)나라의 돌그림(漢畫)에서 복사되었다. 하남성 신정(河南省 新鄭)에서 발굴된 그림벽돌(像磚)에 두 날개를 펼치고 몸체가 둥근 원으로 된 새가 그려져 있다. 이 둥근 원이 바로 태양이다.

섬서성 화현 천호촌(陝西華縣泉護村)양소문화유적지에서 발굴한 채색도편(陶片)에 날아다니는 새가 해에 의지하고 있는 것도 역시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으며 간결하나 도리어 장력(張力)이 있는 자유로운 상상(想像)을 갖고 있다. 한나라 시대에 태양조를 준오(駿鳥)라고 불렀는데 전설에 따르면 준오(駿鳥)는 다리가 3 개라고 한다.

<회남자·정신훈(淮南子·精神训)>에 “해속에 준오(駿烏)가 있노라”고 하였다.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지는데 새가 하늘을 날아 다니니 옛날 사람들의 태양조에 대한 상상을 불러 일으켰다.

전설에 해가 여섯 용(龍)이 끄는 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 가는 태양 신희(神羲)와 어수(驭手)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휘황부려하다. 이것에 비해 볼 때 새가 해를 부리면서 하늘을 날아 다니는 신화는 아주 소박하게 보인다. 그러나 소박 할 수록 원시적인 사유의 맛이 더 많다. 양오(阳乌)와 태양조의 신화로부터 금계(金鸡)숙박일에 대한 전설이 나타 났다. 이 전설은 닭류와 양오(阳乌)와 비슷한 데 의하여 나왔지만 아직도 추동력이 수요되었다. 여기에 큰 힘을 쓴것이 바로 우계(酉鸡)라는 닭이다.

(3) 성도 태양신조(成都 太阳神鸟)

사천성 성도시의 천부 입체교차교(立交桥)에 독특한 태양조 도안의 표지가 하나 있는데 남북으로 오가는 성도 사람들은 긍지를 갖고 이것을 성도시의 역사적인 문화명성의 큰 표지로 삼는다. 이 태양조 도안은 금사 유적지에서 발굴된 태양조 금박(金箔)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2001년 2월의 어느날 성도시의 왕방(王芳)이란 고고학자가 친구들과 함께 친히 이 태양조 금박(金箔)을 발굴하였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옛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태양조 금박(金箔)은 발견되는 그 날부터 고고학계를 놀라게 하여 예술가들의 무한한 상상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은 시적인 언어로 이 도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중간에서 돌아 가는 화구(火球)는 태양을 대표하고 새 네마리는 일년 4계절을 대표하며 12개의 반짝이는 고리는 열두달 혹은 하루중의 12개의 시각을 대표한다.” 고고학자들은 목전에 여기에 대하여 두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는 《山海经·大荒经》의 태양신제준(太阳神帝俊)과 상관되는 기재에 따라 돌아 가는 화구(火球)는 태양신이고 그를 둘러싼 새 네마리는 중국 고대 태양신의 사절이며 그 뜻은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의미한다. 두번째 해석은 돌아 가는 화구(火球)는 태양신이고 그를 둘러싼 새 네마리는 태양을 받든 하늘에서 운동하는 신조(神鸟)를 대표하며 이 도안은 형상적으로 “금조부일(金乌负日)”이라는 중국 고대 신화전설을 전시하고 있다. 어느 해석이나를 막론하고 금박(金箔)이 표시하는 그 의미는 모두 태양신과 관계된다. 고대의 사천성 사람들은 태양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하였다. 그들은 태양의 운동은 새들의 비행에 따라 완성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태양을 새와 연계시켰다. 이 현상은金沙와 일맥상통하는 삼성퇴(三星堆)유적지에도 대응 되는 현상이 있다. 삼성퇴(三星堆) 제 2 호갱에서 발굴된 구리신수(铜神树)와 구리태양(铜太阳)형의 물건들은 모두 태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옛날 촉나라의 제일 마지막 왕의 호는 “개명(开明)”인데 “개명(开明)”은 원래 태양이 떠 오르는 것과 밀접히 관계되는 어휘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태양조 금박(金箔)이 너무 얇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가능성은 매우 적고 반드시 이것과 기타 금속기구를 다른 어떤 기물위에 붙여서 고대 촉나라 사람들의 태양과 새에 대한 숭배를 표현하고 또 이것은 고대 촉나라의 종교 제사활동과 중국 고대의 신화전설의 중요한 물질적인 증거로 된다.

(4) 일조(日照) 태양조

산둥성 일조시(日照市) 북경로 중간에 “태양조”의 조각상이 하나 있다. 가이드 아가씨의 소개에 따르면 이 “태양조”에 아래와 같은 전설이 있다.

먼 옛날 하늘에 10 개 태양이 함께 대지를 쬔여 인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리하여 땅은 불 붙는 것 같아 세계가 곧 멸망하려 할 때 후예(后羿)라는 용사가 자원적으로 백성을 위해 재해를 없애려 나섰다. 그는 활로 한번에 9 개 태양을 쏘아 죽이고 마지막 태양만 남겼으나 몸에 중상을 입고 인간 세계에 떨어졌다. 천지는 긴 낮의 광명을 지난 후에 무진히 암흑한 밤세계로 변하였다. 한 가닥의 빛도 없어 천지공간은 온통 어두워 희망을 잃은 것 같았다. 이 때 만약에 태양이 하나 있어 하늘에서 빛을 뿌리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남은 하나의 태양은 어디에 있는가? 날개가 단절 되었다면 또 어떻게 하늘로 올라 갈 수 있단 말인가?

기실 태양은 본래 일종의 새인데 지금 날개가 단절 되었으니 날아 갈 수 없어 하늘에 올라 갈 수 없었다. 그는 다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만 인류에게 빛을 줄 수 있었다. 그러니 유일한 해결방법은 봉황의 녀반(涅槃)을 사용하는 것이다.

봉황은 본래 백조(百鳥)의 왕이다. 전설에 따르면 봉황이 어느 곳에 내려 앉으면 어느 곳이 길(吉)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봉황은 인류를 멸망에서 구해내는 사명을 갖고 있어 광명과 희망의 신(神)인 태양을 찾기 시작하였다.

봉황은 날고 날아 만수천산을 넘고 초원과 관목지대를 지나 풍찬노숙하면서 49일을 날아 결국엔 하나의 삼엽초 밑에서 날개가 단절되어 중상을 입어 숨이 곧 끊어 질 듯한 태양을 찾아 자기의 한쪽 5색털을 뜯어 내어 태양의 몸을 덮었다. 그는 태양의 상처를 닦고 약을 먹였다. 태양의 빛은 매우 미약하여 바람에 흔들리면서 꺼지려는 등불 같아 시시때때로 영원히 꺼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 때는 후과를 상상하기 어렵다. 봉황은 자기의 길상이 태양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태양으로 하여금 하루 빨리 회복되어 하루 일찍 하늘에 올라가 인류에게 행복을 도모하기를 기원하였다.

그러나 봉황은 태양이 건강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자기가 녀반(涅槃)되는 시각이라는 것을 알며 다만 자기의 녀반(涅槃)이 거대한 역량을 산생 할때만이 태양을 하늘에 올려 보내고 자기도 영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봉황은 의연히 말 없이 태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후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는 본래 인류에게 길운을 가져다 주어 인간에게 광명과 희망이 충만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태양은 봉황의 사심 없는 보살핌 속에서 상처는 천천히 회복되었으나 날개를 오래동안 활동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금방 하늘로 날아 갈 수 없었다. 그러나 인간은 잠시도 광명이 없어서는 안된다. 계속 이렇게 지난다면 이 세계는 암흑한 세계로 몰락 될 것이다. 그래서 봉황은 매일 태양을 업고 동에서 서쪽으로 날아

다녔다. 태양은 이미 봉황이 자기를 업고 동에서 서쪽으로 날아 다니는 데 습관 되었다. 태양은 또 요령부리는 것을 배워 낮선 사람이 볼까봐 처음에는 봉황의 검은 날개 밑에 숨었다. 왜냐하면 후예(后羿)라는 용사가 또 와서 쏘까봐 몰래 울었다. 이래서 하늘에서 비가 팔팔 내렸다. 그것은 태양이 요령부리는 눈물이었다. 어떤 때는 태양이 봉황의 스프링코드를 뜯어 머리수건을 만들어 얼굴을 가리워 사람들로 하여금 어슴프레한 흐린 날씨를 보게하고 또 어떤 때는 태양이 검은 날개 밑에서 돌연히 빠져나와 천천히 봉황의 7색털을 하나 뽑아 하늘에 던져 사람들은 이 때 부터 무지개를 보게되었다. 봉황은 태양이 요령부리는 것을 거들 떠 보지 않고 저 마음대로 놀게 하였다. 그것은 태양이 매 번 건강회복하는 것은 이별의 날짜가 가까워 올 수 록 념반(涅槃)의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봉황이 얼마나 큰 심리적인 압력을 이겨 내야 하는가!

끝내 이날이 왔다. 태양이 날개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봉황과 함께 동편에서 떠오를 준비를 하였다. 그는 오늘 단독으로 혼자서 날아 봉황에게 놀람과 기쁨을 주려고 다시는 자기를 업고 날지 말라고 하였다. 태양은 은밀히 기뻐다. 그러나 태양은 봉황이 념반(涅槃)생긴 강력한 조력이 없이는 하늘로 날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봉황아, 오늘 나 혼자 날게 할 수 없느냐?” 태양이 금방 이렇게 말하자 봉황이 갑자기 몸을 돌려 태양을 우로 밀어 태양은 한번 휘청거리더니 어느새 해평면을 떠나 몸을 획 돌아서기도 전에 봉황이 불을 뿜어 온 몸이 타기 시작하였다…… 순간에 강력한 불꽃이 봉황의 주위에 휩쌓였다. 태양은 꿈속에서처럼 봉황을 구하려 헤메었다. 그러나 강력한 화력은 태양을 천천히 하늘로 오르게 하고 높이 오를수록 멀어졌다.

“봉황아……너 무엇하느냐?”

“태양아! 너는 광명의 신이고 오직 네만이 광명을 가져 올 수 있으니 너는 광명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다만 하늘의 뜻을 따라 너를 협조하여 공덕을 원만히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며 나의 직분이다. 지금 나는 이미 나의 직분을 완성 하였기에 나의 념반(涅槃)으로 너의 재생을 바꾸었으니 인류는 너를 위하여 행복할 것이다. 동시에 나에게도 영생을 가져와……때문에 내 생명의 매차례 윤회중에서 일생의 힘을 다 하여 너를 향하여 날아 갈것이다!”

“봉황아 걱정말아. 나는 너의 말을 명심하여 나의 직분을 충실히 지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것이다. 이른 새벽 한오리의 빛을 네가 있는 곳에 뿌려 너의 재생을 기원할 것이다…… 너도 희망과 길운 그리고 영원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갯더미 재생 윤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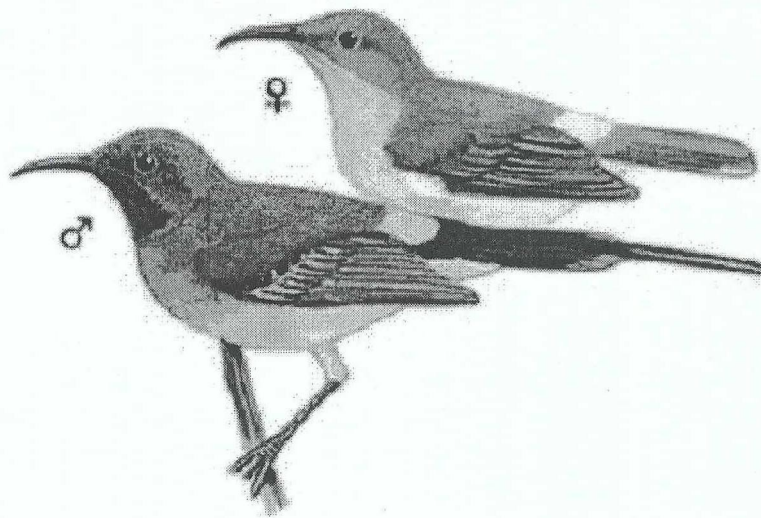
몇번이나 창상지변을 거치고 계절이 변하며 시간이 흘러 21 세기에 이른 오늘 원래의 봉황 념반(涅槃)의 지방에 지금은 이미 인류의 거주지로 되어 안녕과 화목이 가득한 변화로운 모습으로 가득찼다. 태양도 과연 자기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 인간에 광명을 퍼뜨렸다. 이른새벽 첫 서광이 비친 곳이 바로 봉황 념반(涅槃)의 곳이다. 이것은 태양이 고마운 봉황을 위하여 준 선물이다. 사람들은 역대로 내려 오면서 봉황 념반(涅槃)의 이야기를 칭송하여 이 도시를 태양성으로 불렀고 또 “해가 떠 오르는 서광이 먼저 비추는 곳” 이기 때문에 일조(日照)로 고쳤으며 봉황을 사람들은 “태양조”라고 불렀다. 바로 이것이 어째서 사람들이 어떤 때는 봉황을 “태양조”라고 부르게 된 원인이다. 전설에 따르면 지금 이 세상에도 일종의 새가 있는데 출생한 그

시각부터 태양이 있는 방향으로 날아 가는데 이 새가 바로 “태양조(太阳鸟)”일 것이다.

훗날의 기부중(紀富中)선생이 “태양조(太阳鸟)”전설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술적인 상상을 통해 조각을 하나 만들었는데 “태양조(太阳鸟)”라고 불렀다. 지금 산둥성 일조시(日照市) 북경로 중간에 우뚝 서 있어 이미 일조시(日照市)의 표지로 되어 있다. 그 모습은 태양과 같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찌를 듯 한 모습은 날개를 펼쳐 날아가는 뜻이고 일조시(日照市) 인민들의 개척정신을 상징하고 있다.

II. 중국 태양조 및 종류

(1) 태양조 [太陽鳥, sunbird]



태양조는 참새목 태양조과의 총칭이다. 세계에 모두 14 종 있는데 주로 히말라야산·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열대와 아열대 숲속에서 생활하고 중국에 6개 종류가 있다. 몸의 길이는 약 9~22 cm로서 흔히 꽃의 꿀을 빨아 먹고 산다. 부리가 가늘고 길면서 아래로 약간 굽어 있고 혀도 관 모양을 하고 있어 꿀을 빨아들이기에 편리하다. 수컷의 깃털은 금속성 광택이 나는데 먹에서는 붉은 자주빛 광택이 난다. 가슴은 노랑에서 빨강·자주·파랑·초록 등 다양한 빛깔을 띤다. 이러한 다양한 색에서 태양조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 그러나 암컷은 종류에 따라 광택없이 잿빛 녹색을 띄기도 하고 수컷과 같이 광택이 나기도 한다. 반대로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는 수컷이 암컷처럼 광택이 나지 않는 종류도 있다. 먹이는 거미류를 비롯하여 꽃의 꿀이나 작은 곤충 따위를 먹는다. 태양조는 꽃에 내려 앉아 부근의 곤충도 잡아 먹으면서 꿀을 빠는 종류와 미국 꿀새처럼 날면서 꿀을 빠는 종류가 있다. 둥지는

보통 낮은 나무에 틀고 한배에 1~3 개의 알을 낳아 주로 암컷이 새끼를 키운다.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구대륙의 열대·아열대와 남반구에 널리 분포한다.

(2) 중국 태양조의 종류

지금 중국에 6 종의 태양조가 있다.

① 황요태양조(黄腰太阳鸟) :

황요태양조는 자주 보는 종류이다. 꼬리의 털은 녹색이고 가슴은 붉은 색이며 등과 허리는 노란색이다.

수컷(雄鸟) : 이마와 머리위에는 녹색띠의 금속광택이 나며 머리 위에와 뒷 목은 감람갈색이다. 등은 붉은 색이고 배와 허리는 맑은 노란색이다. 꼬리위에 덮인 털과 중앙 꼬리털은 이마의 털과 같고 아래턱과 인후 부분은 주홍색이며 등은 산뜻한 붉은 색이다.

암컷(雌鸟) : 이마부터 인후까지는 회갈색이고 눈우에는 회색이다. 옷몸은 감람 녹색이고 허리와 꼬리위에 노란색이 약간 묻어 있다. 중앙 꼬리털은 수컷처럼 길지 않고 하체는 짙은 노란색이다.

습성은 활발하고 혼자서 혹은 쌍쌍이 심지어는 몇 마리씩 떼를 지어 차생 활엽림(次生阔叶林) 혹은 꽃이 핀 교목이나 관목우에서 활동하고 떼를 지어 먹을 것을 찾을 때는 경상적으로 서로 찾는다. 비행 능력이 강하고 급속적으로 두 날개를 꽃 앞에 펼치기를 좋아한다. 주요로 꽃꿀을 먹는데 가늘고 긴 부리를 꽃속에 넣어 관상의 혀로 꽃꿀을 빨아 먹는다. 또 꽃꿀과 거미 막시(膜翅)류의 곤충, 개미류, 쌍날개류의 곤충, 기생꿀벌(寄生蜂), 투명한 날개가 있는 곤충 및 종자들도 먹는다. 등지는 배(梨)모양이고 길이는 140~160 mm, 넓이는 75~100 mm이다. 등지의 재료는 다양하여 어떤 것은 등지 밖에 이끼뿌리(苔藓根) 혹은 잡초로 쌓고 안에 가는 꽃 줄기로 가리우고 등지 안에는 가는 실같은 종자의 용모로 두껍게 칸다. 또 어떤것은 등지 밖에 이끼뿌리(苔藓根) 혹은 기타 나무를 섞어서 이끼(苔藓)와 거미줄을 구성하고 안에는 솜같은 섬유를 깔아 놓는다.

② 흑웅태양조(黑熊太阳鸟) :

중앙의 꼬리는 랍흑색이고 목구멍과 앞가슴에는 흑색이며 복부는 회색이다.

③ 화미태양조(火尾太阳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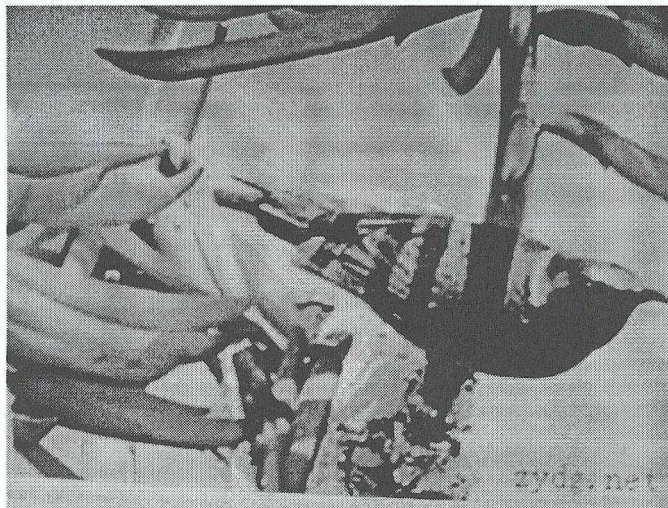
꼬리의 털은 산뜻한 붉은 색이고 운남성의 동남쪽과 광둥성의 남쪽에서 번식한다. 태양조의 털이 아름다워 경상적으로 사람들이 관상하는 새로 기르고 있다. 최근에는 야생동식물보호국제 필위림(毕蔚林)박사, 중국과학원곤명동물연구소 소문(肖文) 및 세계에 저명한 동물학자이며 광서대학의 교수인 주방(周放)이 카스터(喀斯特) 우림(雨林)

의 중국과 베트남 변경일대의 우리나라에 속하는 정서현(靖西县) 임장향(壬庄乡) 방랑림구(邦亮林区)에서 고찰 할 때 많은 희유동물의 종적을 발견하였고 또 많은 희유동물의 노래소리도 들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극히 드문 화미태양조(火尾太阳鸟)를 관찰하였다. 이것은 광서경내에도 화미태양조(火尾太阳鸟)가 있다는 새로운 기록이다. 주요로 희말라야산맥과 인도의 아쌈(阿萨姆)에서 만마(缅甸) 및 우리나라의 운남, 서장 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삼림부근이나 계곡의 경사진 곳의 관목림속에 등지를 틀고 꽃꿀을 빨아 먹고 살아간다.

④ 녹후태양조 (绿喉太阳鸟) : 인후부분은 금속녹색을 띄고 있다.

⑤ 차미태양조(叉尾太阳鸟) :

머리의 털은 녹색이고 복판의 꼬리털은 매우 길고 두개 털로 갈라졌다. 차미태양조의 체형은 참새의 크기와 비슷하고 산뜻하고 아름답다. 등에는 깊은 녹색이고 허리부분은 노란색이며 인후부분은 진홍자색이다. 그의 노래소리는 매우 우렁차다. 이런 새와 문학작품속의 태양조와는 아무런 연계도 없으며 일종의 자주 보는 새로서 일반적으로 남방에서 활동한다.



⑥ 람후태양조(蓝喉太阳鸟) :

인후부분은 남색이다. 중국의 6 종 태양조중에서 람후태양조와 차미태양조는 가장 북쪽에 분포되어 있으며 기타는 대부분이 남쪽에 있어 변경지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태양조의 산뜻하고 아름답고 작고 감쪽하며 특수하게 진화한 전문적으로 즙액을 빠는 긴 부리는 람후태양조(蓝喉太阳鸟) 가족중에서 가장 큰 축이다. 몸의 길이가 긴 부리와 긴 꼬리를 포함하여 14cm인데 이 두부분을 제외하면 그의 신체는 역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품이다. 오래전부터 진령(秦岭-중국의 섬서성 남쪽)에 가면 꼭 람후태양조(蓝喉太阳鸟)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곳에 가서야 진짜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노래소리는 독특하고 체형 역시 특수하여 쉽게 발견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침에 암컷과 수컷들이 떼를 지어 함께 모이를 쪼아 먹는 습관이 있다. 그러나 보기는 쉽지만 촬영 하기는

비교적 곤란하다. 그들은 목표가 매우 작고 동작이 또 빨라 앓기 전에 촬영기에 망원경을 이어 찍으려면 인차 날아 나며 만약에 망원경을 쓰지 않으면 또 좋은 장면을 찍을 수 없다. 아래의 사진은 점함정(点陷阱)을 이용하여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을 통하여 태양조(sunbird)의 식물(食物)에 대하여 요해(이해)할 수 있다.

태양 조는 꽃꿀과 화분을 먹을 뿐 만 아니라 장과(漿果)도 먹는다. 사진속의 랍후 태양조(藍喉太陽鳥)가 먹는 것은 진령(秦嶺-중국의 섬서성 남쪽)의 인동 덩굴의 과실로서 당지에서는 바지가랑이 과실(褲襠果) 이라고 하는데 맛이 팬찮고 달면서도 약간 쓴맛이 난다.



(3) 북경에 나타난 태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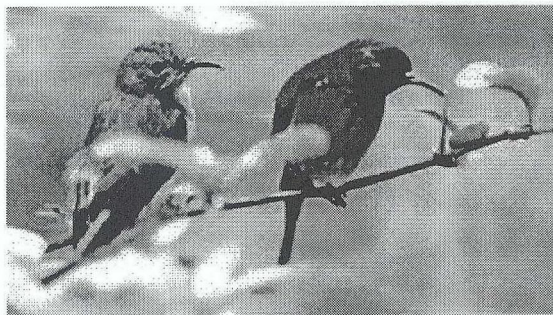


근래에 관원(官園)의 새(鳥)시장 가게에서 13마리의 괴상한 새를 팔고 있었다. 몸체의 길이는 10cm미만이고 털색은 산뜻하며 특별히 날카로운 긴 부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가게 주인은 “이 새는 보기 드문 꿀새” 라고 하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새는 “꿀새”와 아주 비슷한 태양조다. 이 새는 북경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태양조다.

(4) 중국 태양조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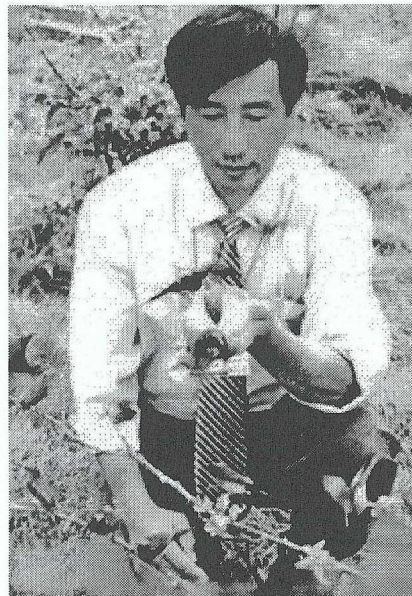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 첫번째로 되는 태양조 전시관은 최근에 운남성 곤명시 연못(滇池)부근에 낙성되었다. 600여 m² 되는 태양조 전시관에 300여마리의 운남성 문산과 홍하 및 西双版纳 밀림에서 온 태양조와 흑두금날개(黑头金翅) 등 20여종의 명금(鸣禽)을 기르고 있다. 이 전시관의 낙성은 소형 조류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기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곤명시에 새로운 관광경치를 첨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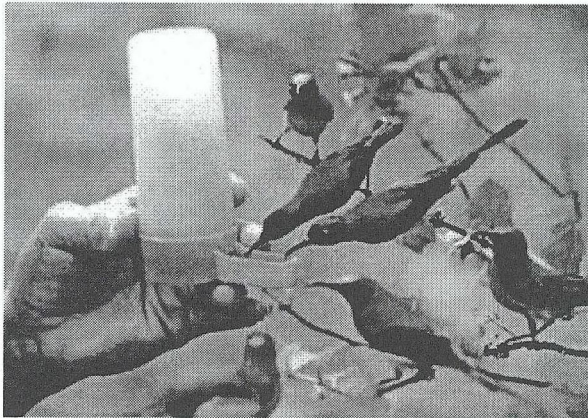


태양조는 작고도 깜찍하여 진귀하고 희소하며 유명한 소형 관상적인 새다. 그림의 왼쪽은 암컷이고 털은 회색을 띄며 오른쪽은 수컷인데 붉은 털이 태양같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운남성 西双版纳 태족 자치주의 순양사(驯养师) 유곤(刘琨)선생은 이미 15 년을 두고 태양조를 기르며 연구하고 있어 풍부한 사양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림은 그가 태양조 전시관에서 태양조가 취식(取食)하는 상황을 관찰하는 장면이다.





◀ 태양조의 꽃꿀과 화분을 즐기는 습성에 따라 사육원은 매일 작은 새에게 꿀물을 먹인다.

Ⅲ. 편집자의 말

필자는 짧은 시간내에 태양조와 연관되는 많은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 보았다. 이 문장들은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었다. 본문은 태양조에 대한 학술 논문도 아니고 태양조에 대한 전문 자료도 아니며 태양조에 대한 일반 상식을 소개하는 문장일 뿐이다.

시간의 촉박과 수준 제한 그리고 본인은 물리 배운 사람이기에 높은 수준의 문장을 써내지 못하여 독자들에게 유감스러운 심정을 표시하는 바이다. 동시에 인터넷에 많은 높은 수준의 논문과 문장을 발표한 전문 학자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참고자료

- (1) 《辞海》640页 1979年版 上海辞书出版社
- (2) www.zydg.net 香港观鸟 24小时 《博物》
- (3) 其它网站报道

한·중 문화교류 학술토론회

인 쇄 : 2007년 4월 21일

발 행 : 2007년 5월 20일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26번지

전 화 : 031) 756-1028, 1082

팩 스 : 031) 756-1056

※ 이 논문집 발행은 연안이씨 연성군파 종중 지원금에 의하여 제작함



Seongnam Culture Center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26
Tel. 031 756 1082 Fax. 031 756 1056